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8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결과 발표 및
5개국의 기부동향 비교

기빙, 한 자리에 모이다



K Giving Korea 2008

Joan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Giving, Convergence and Divergence!"



2008 Giving
Korea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8

“기빙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결과 발표 및
5개국의 기부동향 비교

일시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아름다운재단 · 유한킴벌리
주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협찬 (주)리서치 앤 리서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Giving Korea 2008

“Giving, Convergence and Divergence!”

December 3,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20th floor, Korea Press Center Building
Co-host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Yuhan-Kimberly, Co. Ltd.
Organized b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Sponsored by Research&Research, Inc.,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시간	프로그램	강연자
09:30~10:00	등록	사회: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10:00~10:10	개회사	김영진 (주)한독약품 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10:10~10:20	환영사	이은욱 유한킴벌리 부사장
10:20~10:30	환영사	박상중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1부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결과 발표		
10:30~11:00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11:00~11:30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분석	강철희
11:30~11:50	패널 발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 선임연구위원
11:50~12:10	Q&A	
12:10~13:10	점심식사	
2부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		
13:10~13:50	미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멜리사 브라운 (Melissa S. Brown)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Associate Director of Research, USA
13:50~14:30	호주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킴 매든 (Kym Madden)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 Nonprofit Studies, Senior Research Fellow,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Faculty of Business, Australia
14:30~14:45	Coffee Break	
14:45~15:25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요시호 마츠나가 (Yoshiho Matsunaga)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Associate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Japan
15:25~16:05	네덜란드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테오 슈이츠 (Theo Schuyt)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Professor, Geven in Nederland, Netherlands
16:05~16:45	영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리차드 해리슨 (Richard Harrison) Charities Aid Foundation, Director of Research and Insight, UK
16:45~17:00	Coffee Break	
3부 Q&A 및 종합토론		
17:00~18:00	Q&A 및 종합토론	좌장 : 박태규 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18:00	폐회사	윤정숙 상임이사 아름다운재단

Time	Program	Speaker
09:30~10:00	Registration	Presided by Seong Yeon Park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t Ewha Womans University
10:00~10:10	Opening Address	Young-Jin Kim CEO & Chair, Handok Pharmaceuticals Co., Ltd.
10:10~10:20	Welcoming Address	Eun Wook Lee Vice President, Yuhan-Kimberly Co., Ltd.
10:20~10:30	Welcoming Address	Sang Jung Park Chair, The Beautiful Foundation
Session 1. Presentation of "Yuhan-Kimberly Giving Index" : 2008 National Survey on Giving in Korea		
10:30~11:00	Presentation of "Yuhan-Kimberly Giving Index of Korea" Survey Results	Chul Hee Kang Vice Dean, School of Social Welfare at Yonsei University, Vice Directo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11:00~11:30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Chul Hee Kang
11:30~11:50	Panel Discussion	Won-Ik Son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1:50~12:10	Q&A	
12:10~13:10	Luncheon	
Session 2.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Giving, Convergence and Divergence!"		
13:10~13:50	Giving in the USA	Melissa S. Brown Associate Director of Research,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USA
13:50~14:30	Giving in Australia	Kym Madden Senior Research Fellow,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 Nonprofit Studies, Faculty of Busines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14:30~14:45	Coffee Break	
14:45~15:25	Giving in Japan	Yoshiho Matsunaga Associate Professor,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Executive Director, The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Japan
15:25~16:05	Giving in the Netherlands	Theo Schuyt Professor,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Netherlands
16:05~16:45	Giving in the UK	Richard Harrison Director, Research and Insight, Charities Aid Foundation, UK
16:45~17:00	Coffee Break	
Session 3. Q&A and Discussion		
17:00~18:00	Q&A and Discussion	Presided by Tae-Kyu Park Dean,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Directo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18:00	Closing	Jung Sook Yoon Executive Director, The Beautiful Foundation

목차

개회사 _ 김영진	8
환영사 _ 이은옥	10
환영사 _ 박상증	12
Session 1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발표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_ 강철희	17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분석 _ 강철희	45
Session 2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기빙(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	
미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_ Melissa S. Brown	61
호주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_ Kym Madden	73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_ Yoshiho Matsunaga	97
네덜란드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_ Theo Schuyt	113
영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_ Richard Harrison	125
부록 부록1. 2008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143
— 조사개요	
—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분석	
부록2. Giving Index 설문지	205
부록3.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_ Chul Hee Kang	223
부록4. Giving USA _ Melissa S. Brown	237
부록5. Giving in Australia _ Kym Madden	249
부록6. Giving Japan _ Yoshiho Matsunaga	273
부록7. Giving in the Netherlands _ Theo Schuyt	289
부록8. Giving in the UK _ Richard Harrison	30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316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12월 3일 수요일

개 회 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김 영 진

Giving Korea 2008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운영이사장 김영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다른 해보다 더욱 추위에 떨 어려운 이웃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어느덧 8회째를 맞은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 Giving Korea 2008 행사가 '나보다 더 추울'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년 아름다운 1% 나눔 운동으로 시작한 아름다운재단은, 그 동안 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의 기부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기적인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단계이고, 기부금액 자체도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소액 기부 문화가 시작되고 있고, 기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Giving Korea 2008은 "기빙(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며,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한국인의 기부 지수 조사' 발표와 이에 대한 강연을 저희 기부문화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계시는 연세대학교 강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기부 문화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해주신 해외 강연자분들과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를 맡아 연구해주신 강철희 교수님, 3부 종합토론의 좌장을 허락해주신 박태규 기부문화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올해에도 Giving Korea를 공동주최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유한김벌리와 설문조사와 심포지엄을 협찬해주신 리서치앤리서치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아름다운재단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모쪼록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의 기부 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단비를 내려주는 레인메이커(Rain maker)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12월 3일 수요일

환영사

유한김벌리 부사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08 기빙코리아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신 연세대학교 강철희 교수님과 연구팀 그리고 리서치 앤 리서치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해외 전문가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빙코리아는 2001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4번째 “유한김벌리 기빙인덱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나 자선적 기부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형화된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던 시대에 비해, 오늘 우리가 공유할 기부지수는 7년여에 걸쳐 축적된 자료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트렌드를 제시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년의 연구조사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별 실질적인 참여 활동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선적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과반수 이상인 것 또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2008 기빙코리아는 의미 있게도 “기빙, 한 자리에 모이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부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한국과 전세계의 기부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국경을 넘어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8 기빙코리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iving · 2008
Korea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12월 3일 수요일

환영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증

Giving Korea 2008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Giving Korea) 2008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 첫 번째 기빙코리아를 준비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8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재단은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고, 특히 기부문화 연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자선기부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기업들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늘랄 만큼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의 양적인 증대에 걸맞은 성숙한 기부의 문화와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빙코리아 2008은 참으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부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 주요 5개국의 기부 현황과 기부문화에 대해 들어봄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 성숙한 기부의 문화와 철학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주신 해외 연사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내의 여러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한킴벌리, 후원해주신 리서치 앤 리서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사의 뒤편에서 수고해 주시는 자원활동가 여러분들 역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나라에 보다 성숙한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 믿기에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8 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S E S S I O N

1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연구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겸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
Presentation of "Yuhan-Kimberly Giving Index"
Survey Results

강철희 | Chul Hee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겸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Giving Korea 2008

-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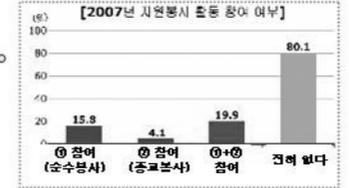
조사 개요

조사설계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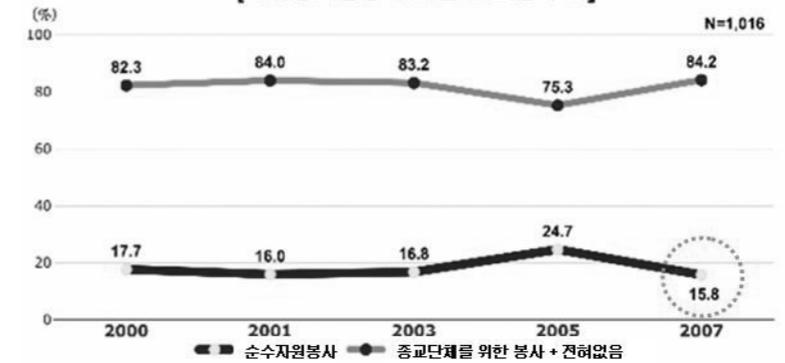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1,0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방법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추출법 - 조사지점 선정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 - 응답자 선정 ↳ '3절, 표본추출방법'에서 별도 설명
조사기간	▪2008년 6월 18일(월) ~ 7월 20일(일)
조사기관	▪(주)리서치 앤 리서치(R&R; 대표 노규형)

2007년 자원봉사활동

2007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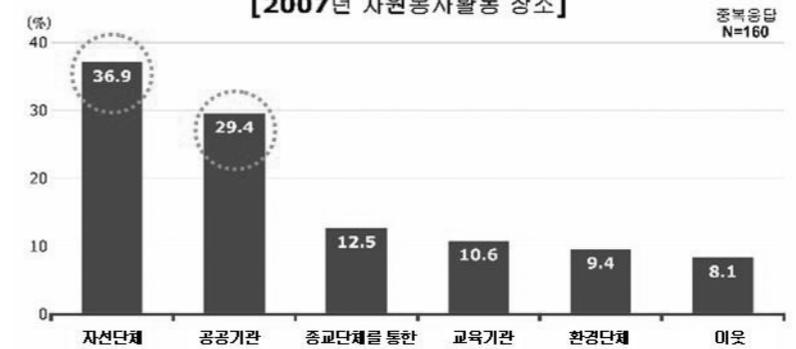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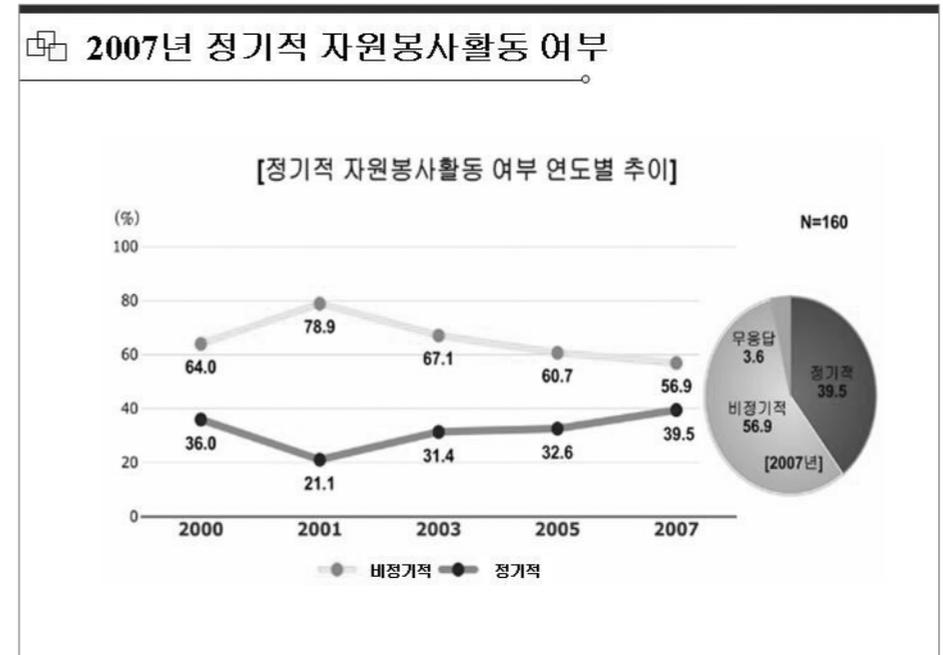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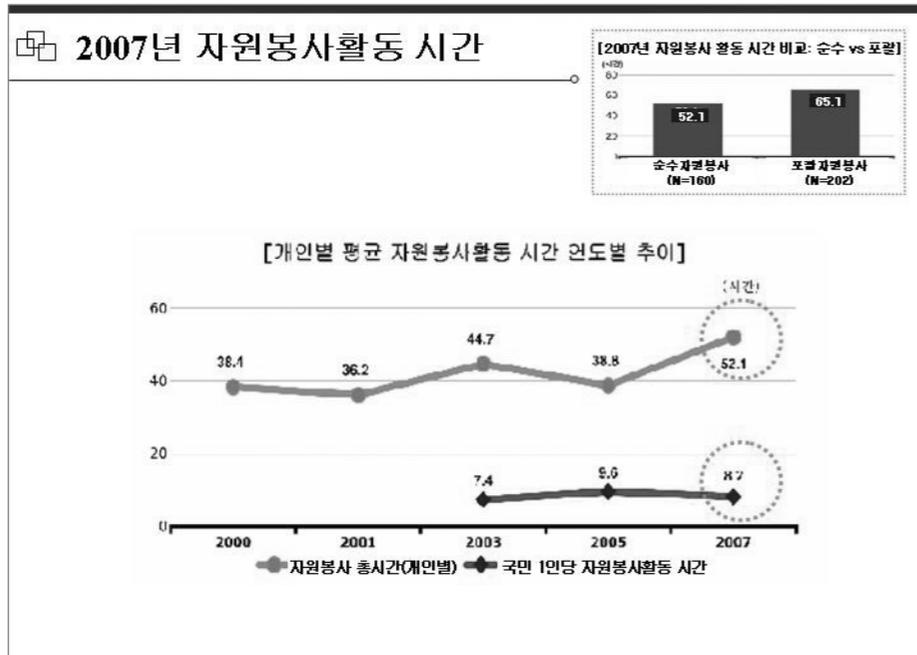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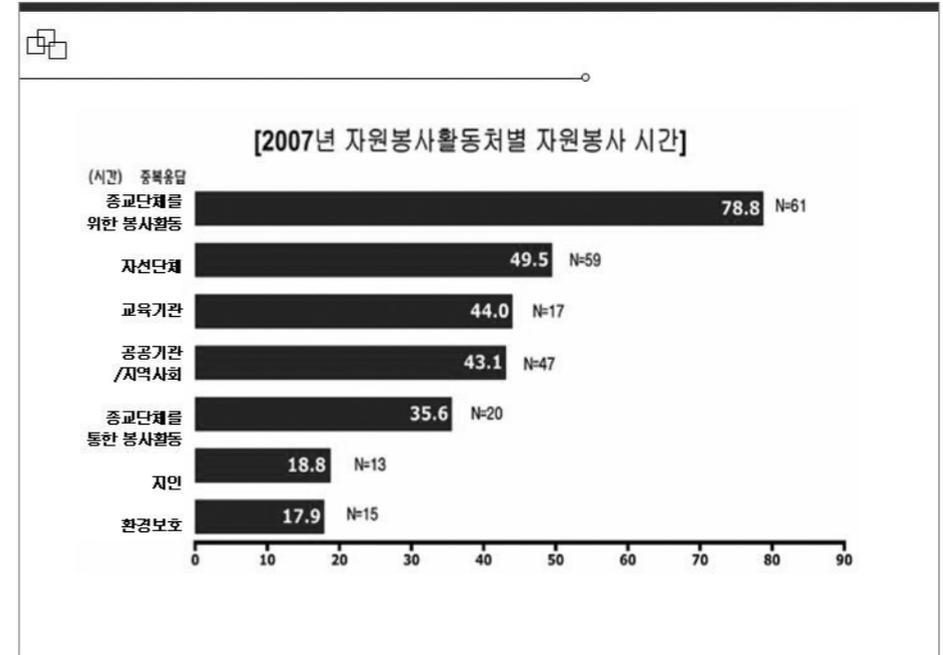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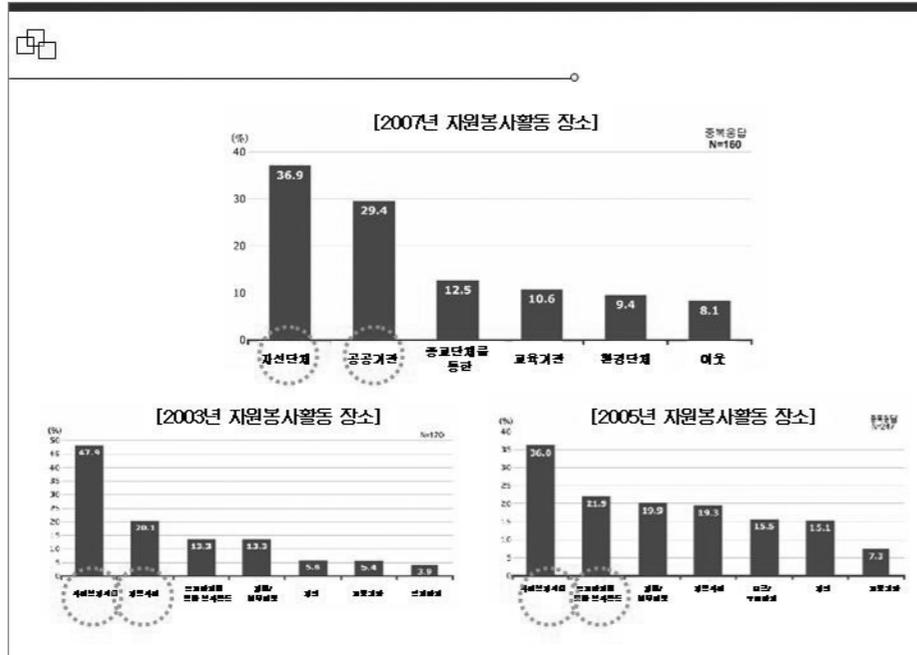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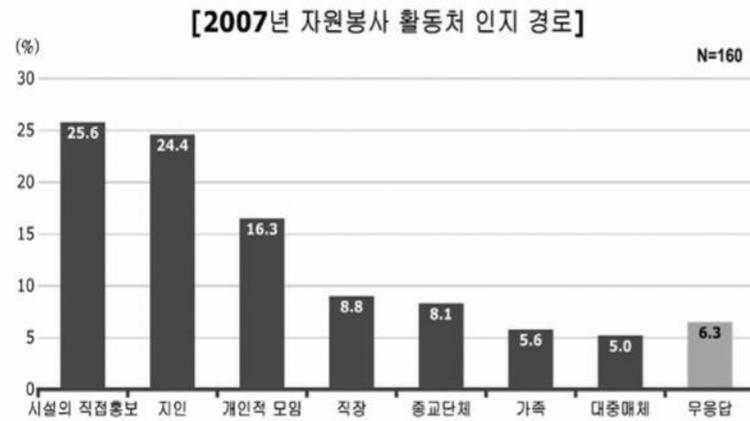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2007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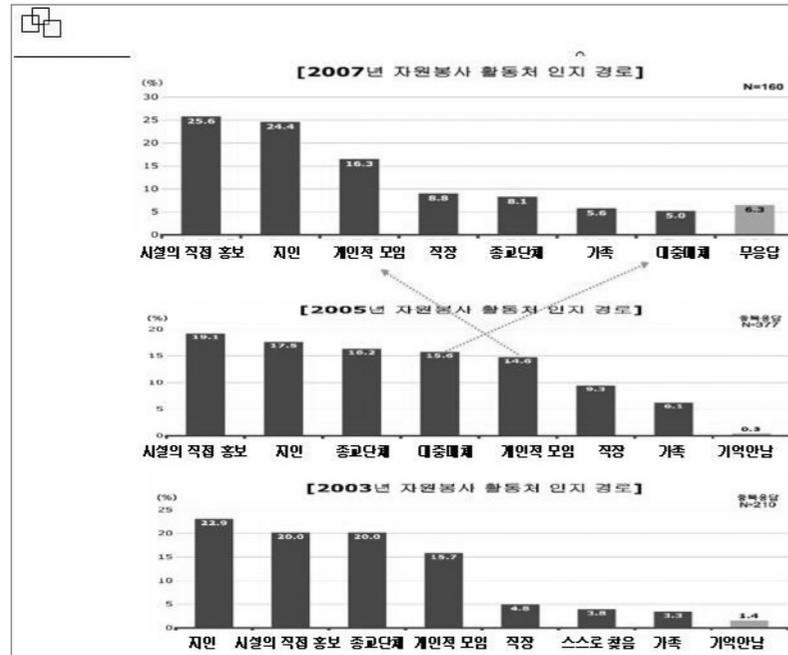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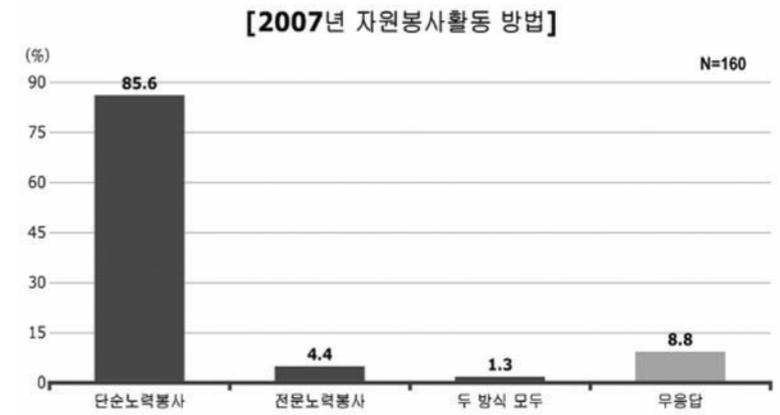




☐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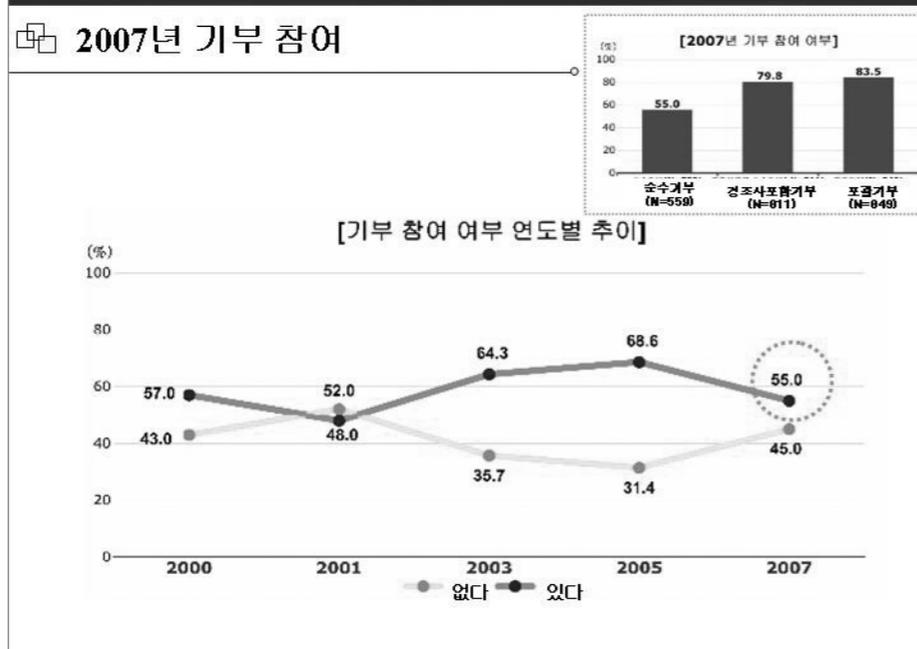


☐ 2007년 자원봉사활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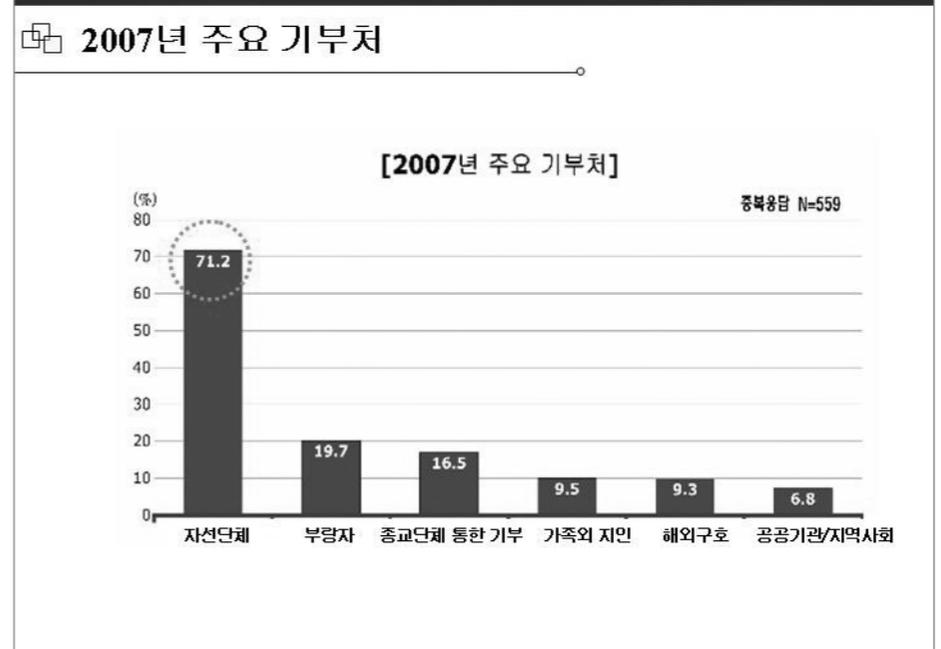


2007년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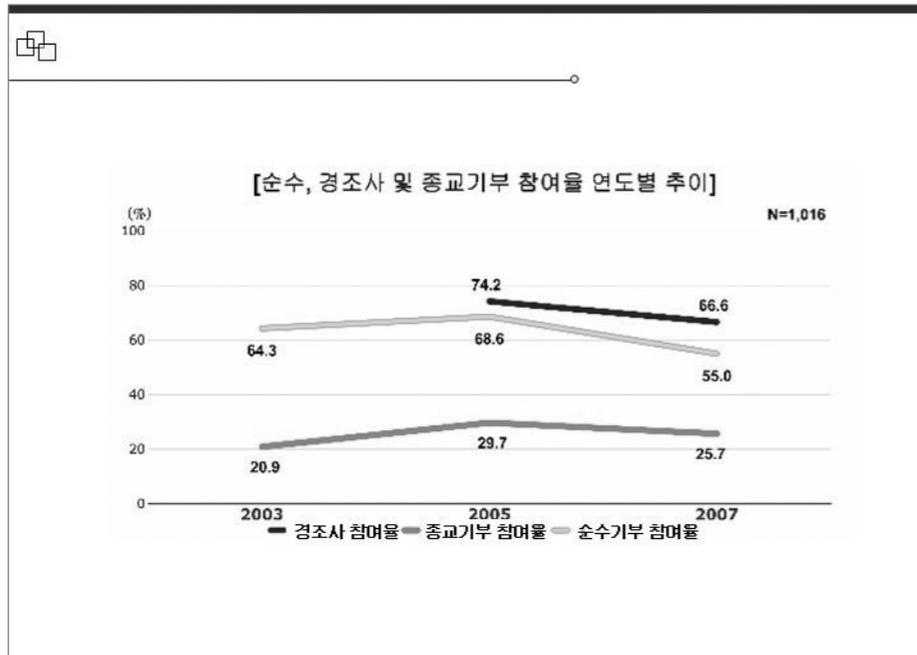
2007년 기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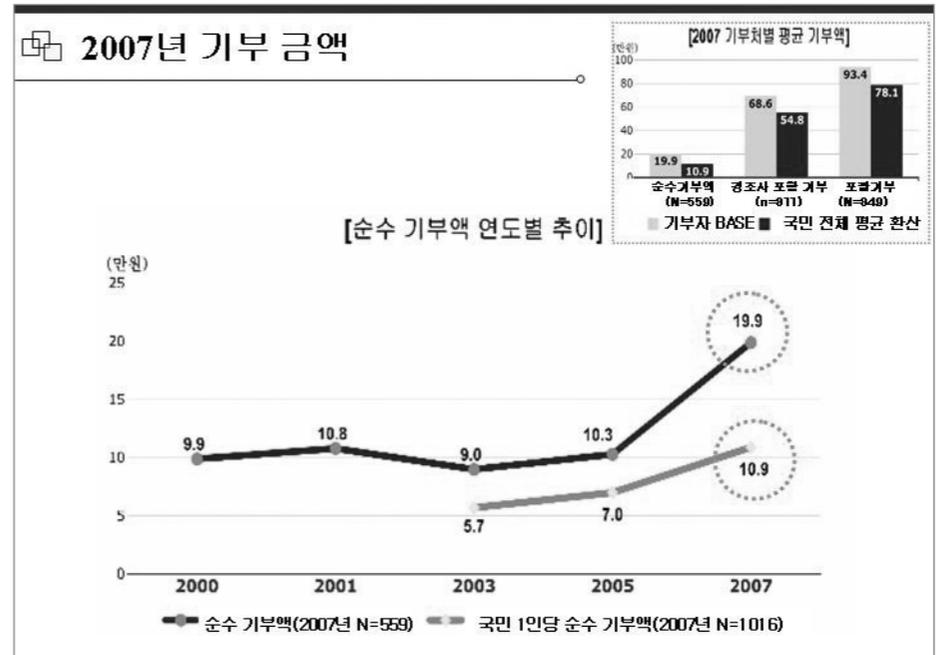
2007년 주요 기부처



2007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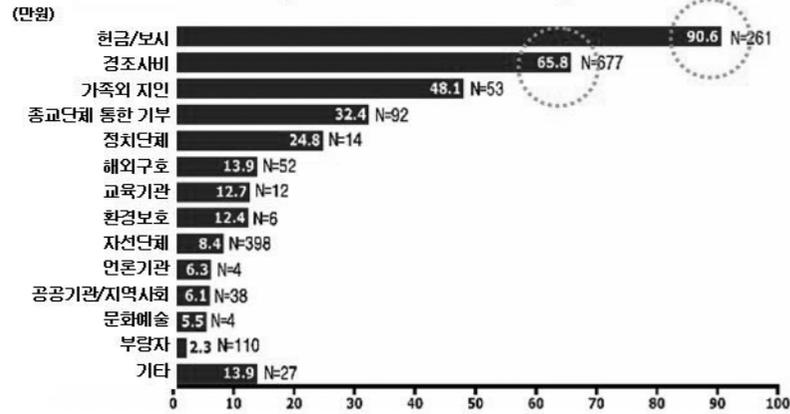


2007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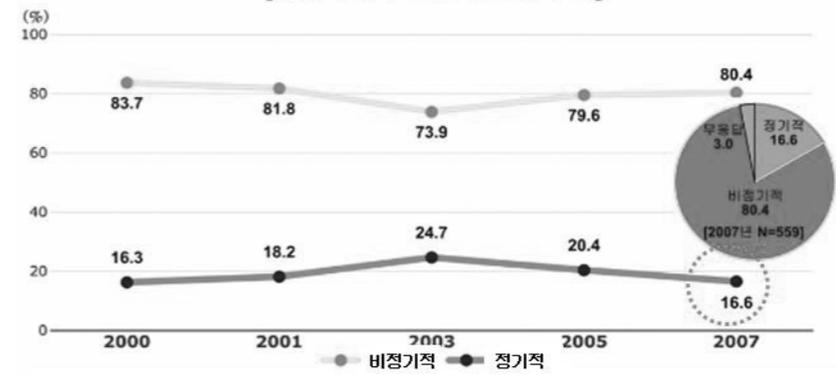


[2007년 기부처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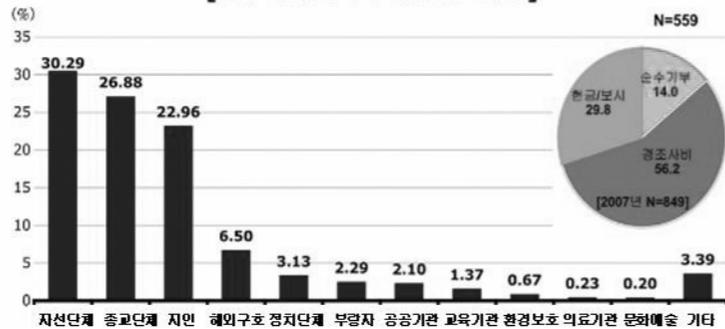


[2007년 정기적 기부 여부]

[정기적 기부 여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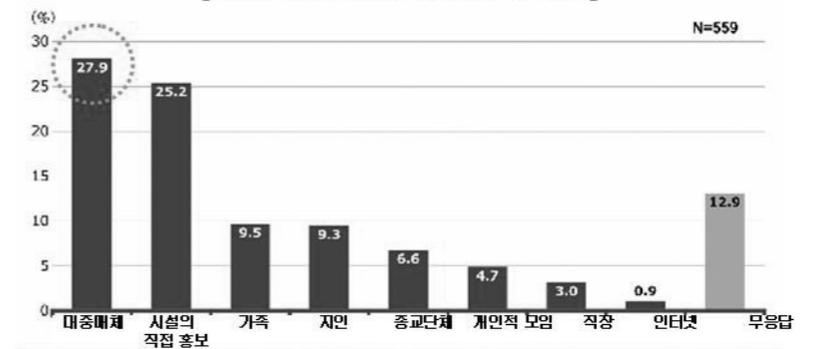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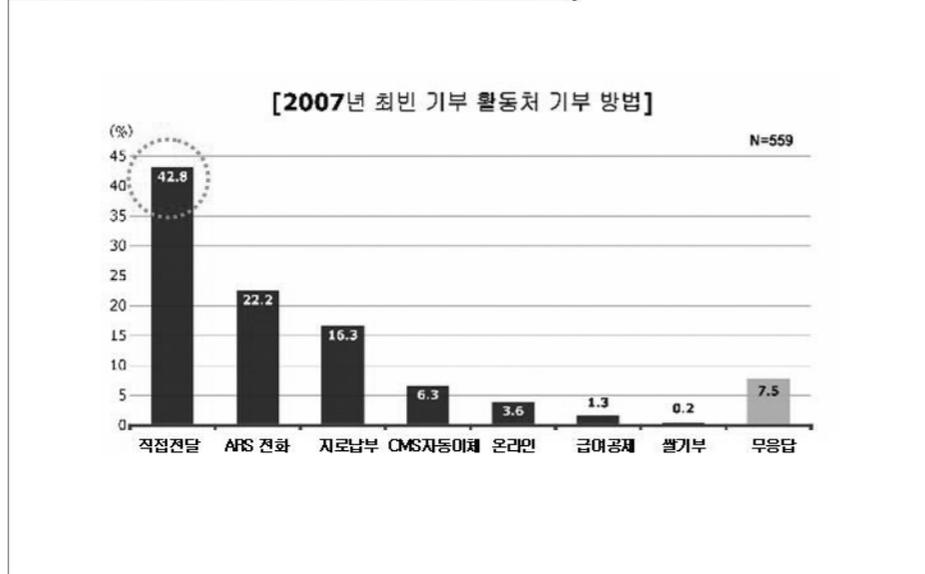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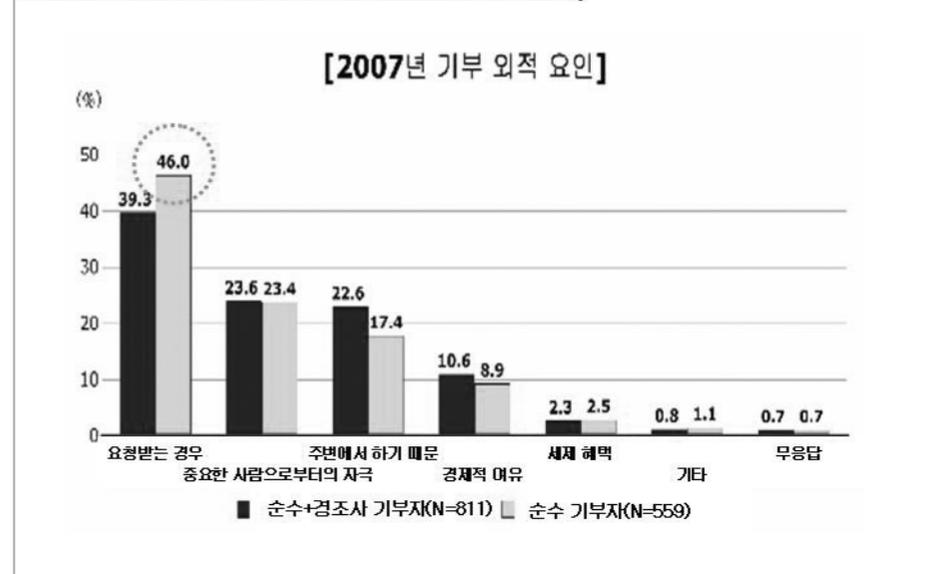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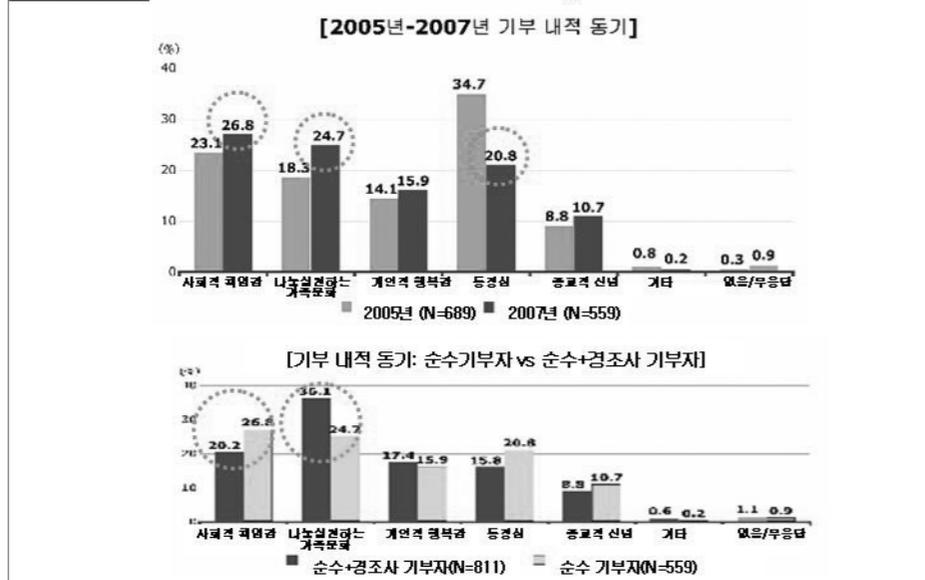
☐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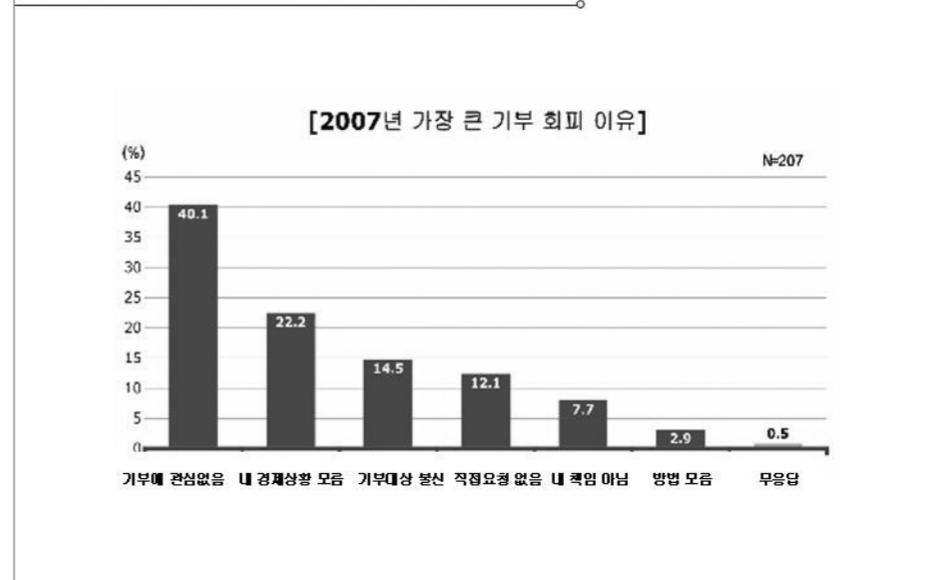
☐ 기부의 외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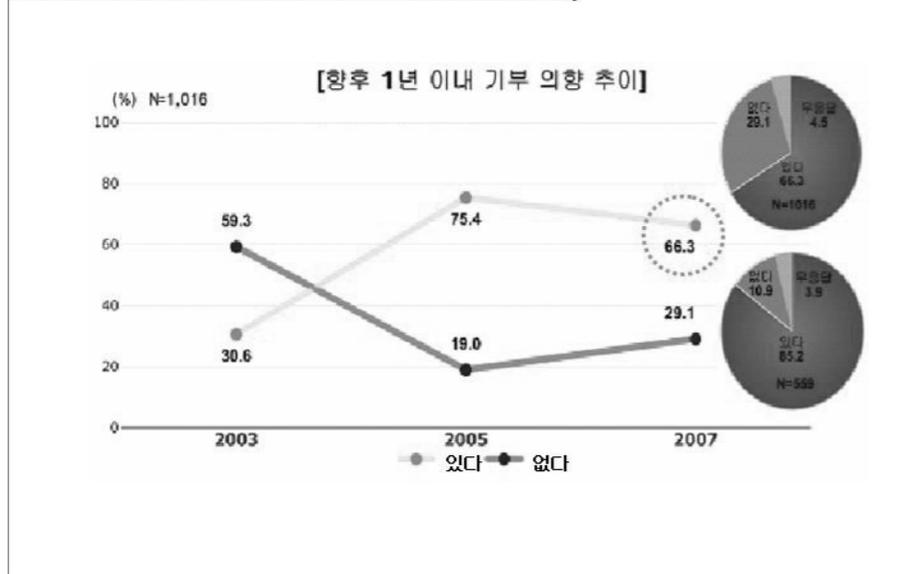
☐ 기부의 내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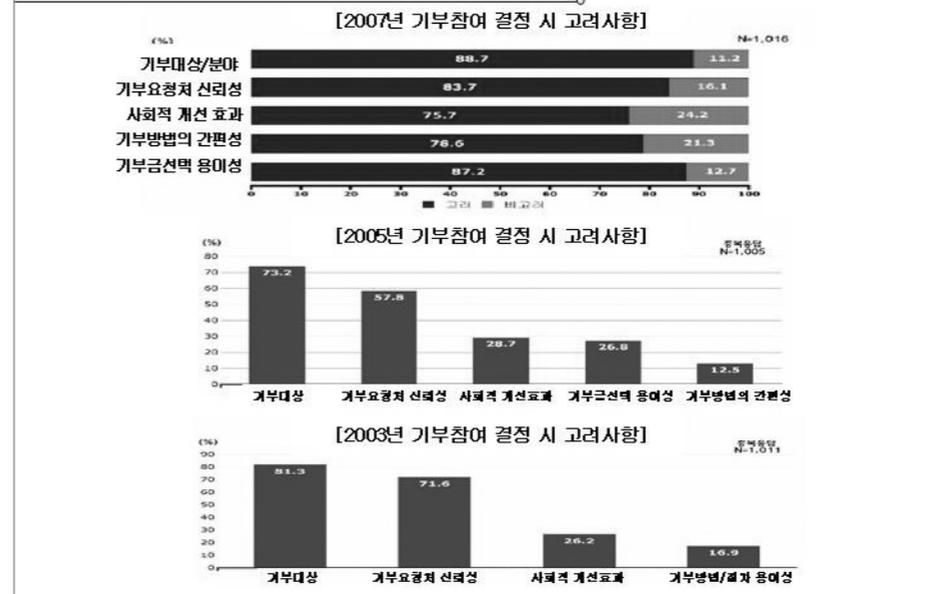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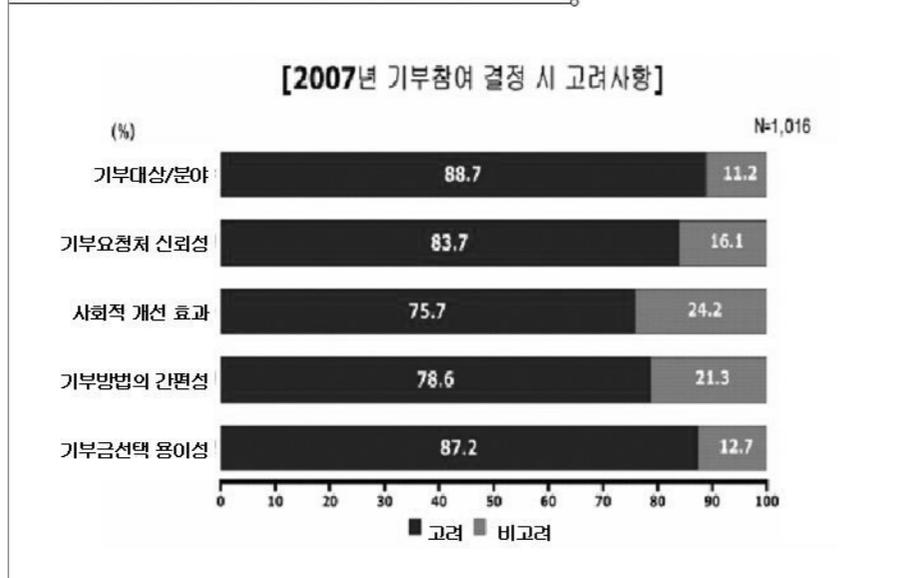
☐ 가장 큰 기부 회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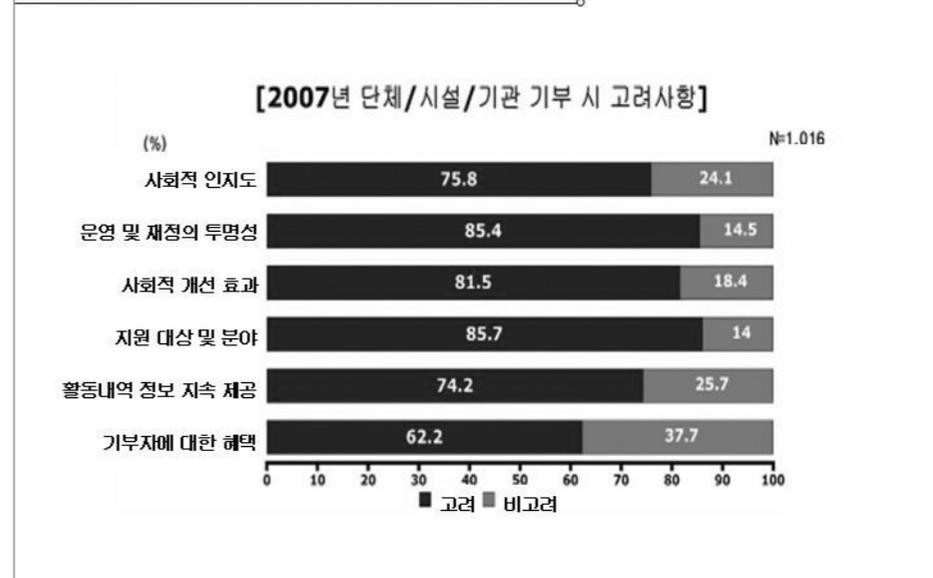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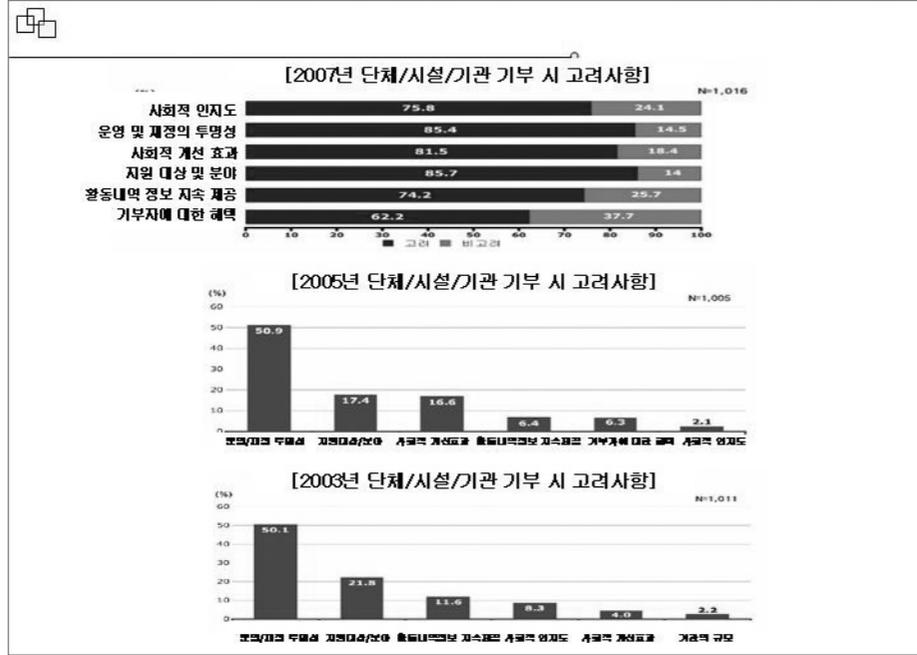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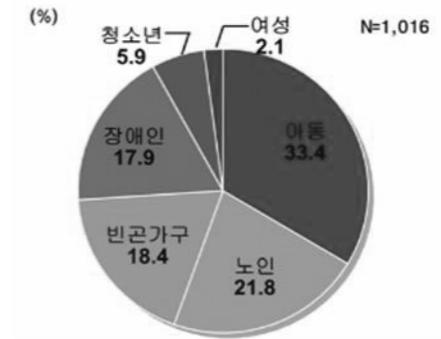
2007년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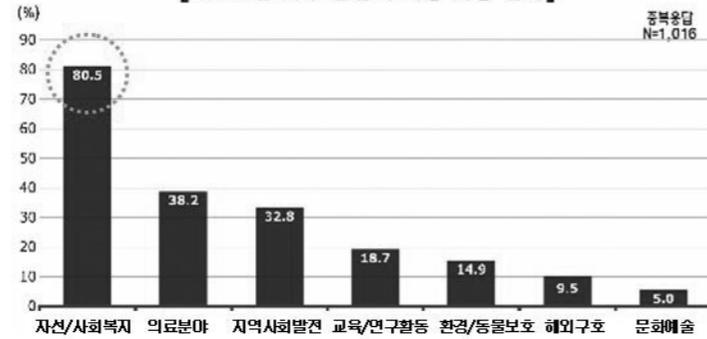
복지분야 중 기부금품 희망 사용분야

[복지분야 중 기부금품 희망 사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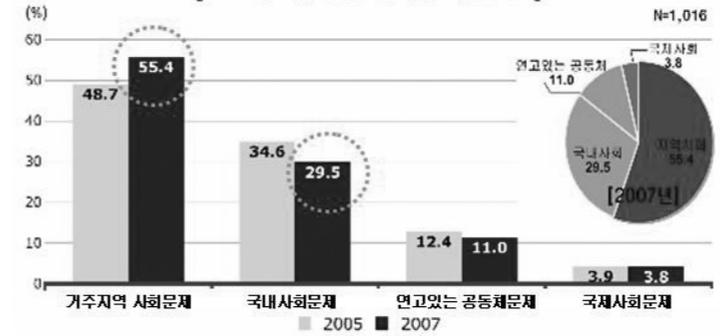
기부 금품 희망 사용 분야

[2007년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단위

[2007년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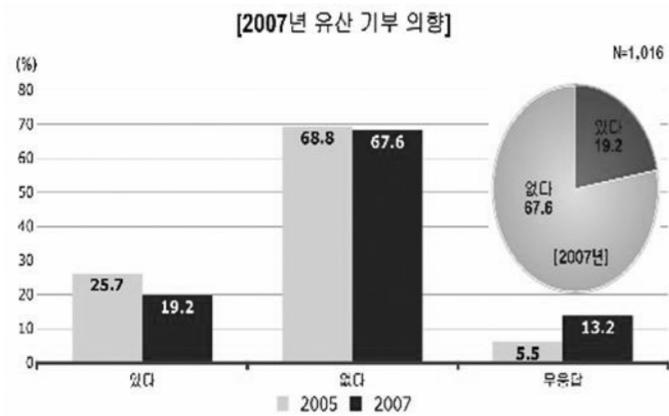


유산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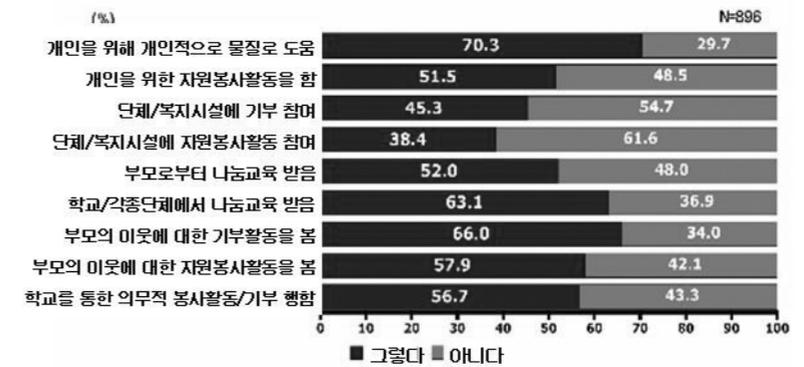
나눔 교육

유산기부 의향

학생 시절 나눔 교육/실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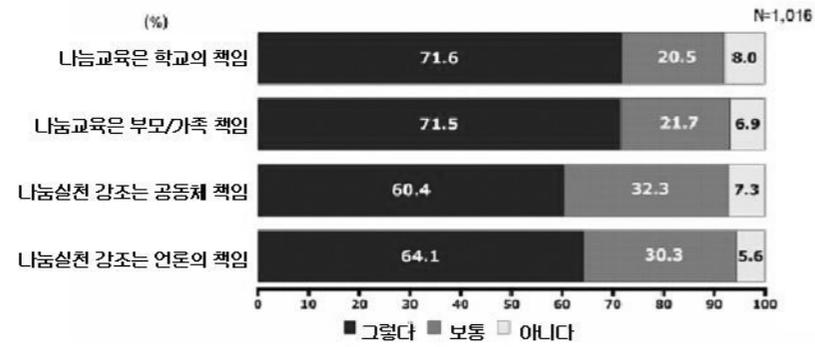


[2007년 학생시절 나눔교육실천 경험 여부]
N=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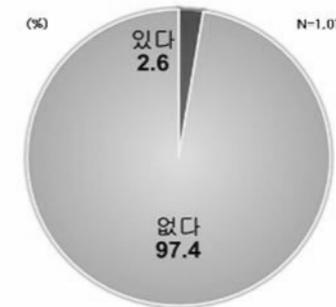
☐ 나눔교육 책임

[2007년 나눔교육 책임]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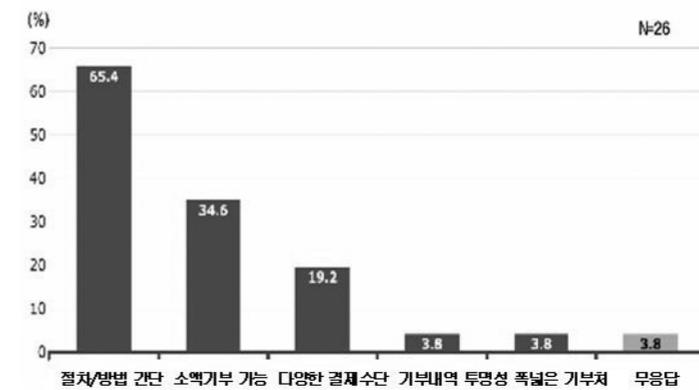
[2007년 인터넷 온라인 기부 여부]



인터넷 온라인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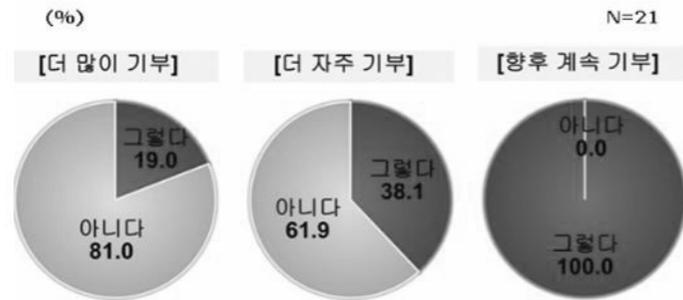
☐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

[2007년 인터넷 온라인 기부 유용성]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



기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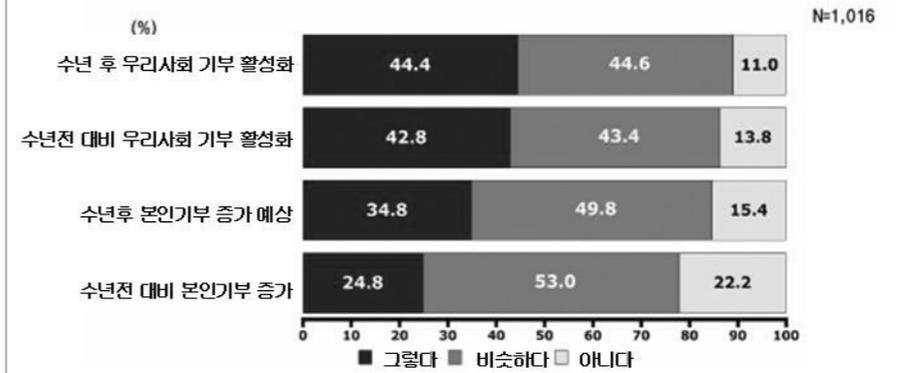
☐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

[2007년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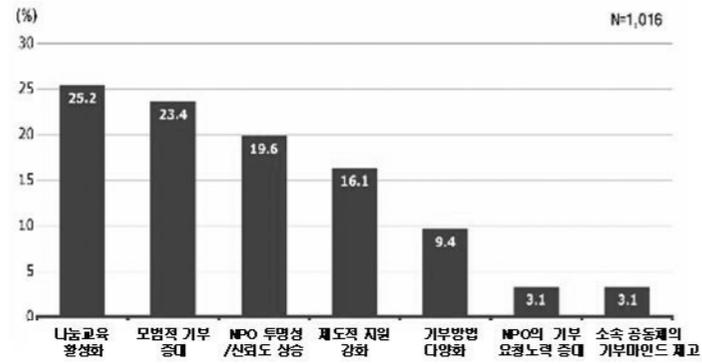
☐ 우리 사회 기부문화 평가

[2007년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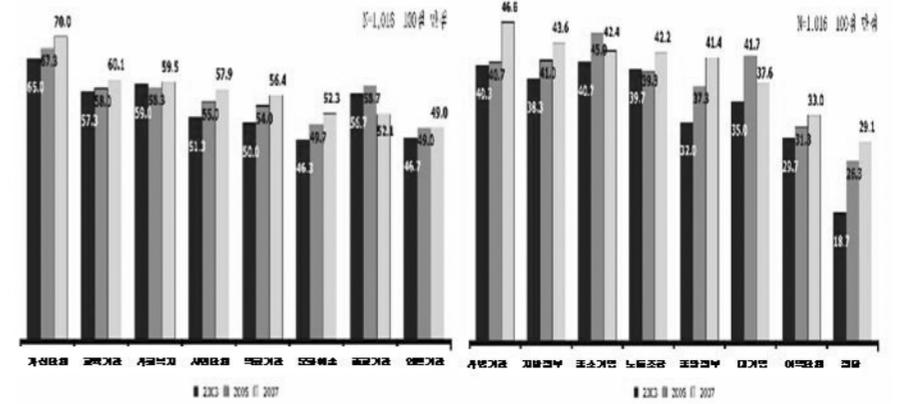
☐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007년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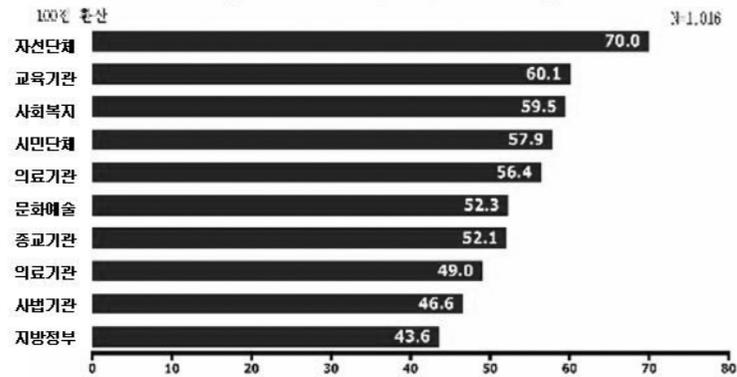
[2007년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 상위 8개]

[2007년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 하위 8개]



☐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2007년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분석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분석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강철희 | Chul Hee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겸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한국인의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행동: 예측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강철희 교수

☐ 서론

- *기부 유형은 순수 자선 기부, 종교 기부, 경조사 기부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 *기부 패턴은 문화 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여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부 유형에 따른 기부 패턴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자료에서는 위 세 유형의 기부규모를 가계 소득 대비 비율 측면에서 비교하고, 각 유형별 기부에 대한 예측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가계 소득 대비 기부 비율: 기부 노력).
- *또한, 순수 자원봉사 시간과 종교 기관을 통한 총 순수 자원봉사 시간으로 자원봉사 노력을 측정하며, 각 유형별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예측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문헌 연구

1.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

: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 소득, 혼인 여부, 직업, 가족 규모, 거주지 등

2.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의식 및 행동 변수

: 자원봉사 또는 기부 참여, 신뢰도, 나눔 사회화, 나눔의 가치, 투명성 고려, 사회적 거리의 수용도, 필요성 자각 등

3. 새로운 관심: 기타 유형의 기부의 영향력

: 종교 기부 및 경조사 기부

방법

❖ 데이터

-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 조사
- 조사 기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08년 6월 16일-9월 20일)
- 조사 방법: 2007년도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행위와 의식에 대한 면접 조사

• 표본 수: 1,016명

-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수혜처 목록을 보여주고, 응답자가 각 수혜처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서 기부와 자원봉사 규모를 측정함.

❖ 데이터 분석 방법

- **Tobit 분석:** 정보가 절단(censored)된 자료 또는 샘플로 OLS 회귀식을 추정하면 부적절한 추론을 유발할 수 있음 (Smith 및 Brame, 2003). 따라서 정보가 절단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빗 추정량이 보다 합리적인 추정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빗을 이용하여 분석함.

방법

❖ 변수 및 측정값

- **종속변수:** 순수 기부 노력, 종교 기부 노력, 경조사 기부 노력, 순수 자원봉사 시간, 종교기관을 통한 사회봉사 등의 총 순수 자원봉사 시간
- **독립변수**
 - ▶ **인구학적 변수**: 종교(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가계 소득(가계 소득 및 가계 소득 제공값), 성별, 연령(연령 및 연령 제공값), 혼인 여부(미혼, 기혼, 기타), 직업(자영업, 주부, 생산직, 사무직, 기타), 교육 수준
 - ▶ **지각 및 행동 변수**: 순수 자원봉사 또는 기부 참여, 나눔 사회화, 나눔의 가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나눔 대상에 대한 수용도
- **측정값**
 - ▶ **순수 기부 노력:** 가계 소득 대비 순수 기부 비율
 - ▶ **종교 기부 노력:** 가계 소득 대비 종교 기부금(현금+종교기관을 통한 자선 기부) 비율
 - ▶ **경조사 기부 노력:** 가계 소득 대비 경조사 기부금 비율
 - ▶ **자원봉사 시간:** 순수 자원봉사 시간(종교기관을 통한 사회봉사를 포함)
 - ▶ **종교 자원봉사 시간:**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
 - ▶ **순수 자원봉사:** 순수 자원봉사 참여 여부
 - ▶ **순수 기부:** 순수 기부 참여 여부
 - ▶ **기부 사회화:**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
 - ▶ **나눔의 가치:** 나눔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 ▶ **사회적 신뢰:** 자선기관 등의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 수준
 - ▶ **나눔 대상에 대한 수용도:** 나눔 대상과의 거리에 대한 수용 정도

결과: 기술적 결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

	n	%		n	%
성별 (n=1,016)			교육 수준(1,007)		
남	497	48.9	초등학교	57	5.7
여	519	51.1	중학교	82	8.1
혼인 여부(n=1,015)			고등학교	460	45.7
미혼	245	24.1	대학교	91	9.0
기혼	737	72.6	대학원	305	30.3
기타	33	3.3	박사	12	1.2
종교 (n=1,016)			직업(1,016)		
기독교	224	22.0	자영업	156	15.4
가톨릭	68	6.7	주부	256	25.2
불교	226	22.2	생산직	229	22.6
기타	498	49.0	사무직	227	22.4
			기타	147	14.5

결과 : 기술적 결과

가계 소득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계 소득	989	335.3943	155.6194	30	1100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적인 신뢰수준	1014	39.0927	6.91988	16	64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1)	1016	18.8435	2.99097	7	28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2)	1014	20.2465	4.84858	9	36

결과 : 기술적 결과

경조사기부, 순수기부, 종교기부

경조사기부	n	%
아니오	339	33.4
예	677	66.6

종교기부	n	%
아니오	755	74.3
예	261	25.7

순수기부	n	%
아니오	457	45.0
예	559	55.0

결과 : 기술적 결과

나눔사회화 및 나눔교육의 가치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눔 사회화	1015	13.4197	2.914157	9	18
나눔의 가치	1016	14.89665	2.345134	6	20

순수 자원봉사 참여

순수 자원봉사	비율	표준 오차
아니오	.8425197	.0114333
예	.1574803	.0114333

결과 : 기술적 결과

총기부금액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순수기부	1016	83.5935	382.6106	0	5306
종교기부 (현금+종교기관을 통한 기부)	1016	262.1368	1076.285	0	20000
경조사기부	1016	438.5433	680.1417	0	6000
순수+종교기관을 통한 기부	1016	109.2569	436.9659	0	5360
종교현금	1016	232.7726	1011.063	0	20000

결과 : 기술적 결과

기부 노력: 가계 소득 대비 비율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순수 기부 노력	1006	0.24549	1.066867	0	16.66667
종교 기부 노력	1012	0.7227	2.213686	0	20
경조사 기부 노력	1000	1.575356	3.041769	0	41.66667
순수+종교기관을 통한 기부 노력	1006	0.310773	1.122165	0	14.57143
현금 노력	1012	0.645922	2.067185	0	20

결과 : 순수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Tobit 분석

Insecure=e	변수	계수	표준 오차	t	P> t	[95% 신뢰구간]
성별	성별	-0.40788	0.5709	-0.71	0.475	-1.528245 0.712489
교육수준	교육수준	0.031995	0.259944	0.12	0.902	-0.4781332 0.542123
연령	연령	-0.1439	0.161223	-0.89	0.372	-0.4602913 0.172496
연령	연령 제곱값	0.001019	0.001814	0.56	0.575	-0.0025418 0.00458
	가계 소득	-0.00345	0.005009	-0.69	0.491	-0.0132798 0.006379
가계 소득	가계 소득 제곱값	4.04E-06	5.04E-06	0.8	0.422	-5.84E-06 1.39E-05
	가계 소득 제곱값	-0.10669	0.446929	-0.24	0.811	-0.9837646 0.770392
기부	순수 기부 노력	1.157687	0.655328	1.77	0.078	-0.1283655 2.443739
	경조사 기부 노력	0.471557	0.375234	1.26	0.209	-0.2648242 1.207937
나눔사회복 및 가치	사회복	0.36781	0.088176	4.17	0	0.1947682 0.540852
	가치 인식	0.112952	0.101665	1.11	0.267	-0.0865613 0.312466
종교	기독교	0.83989	0.70998	1.18	0.237	-0.5534148 2.233194
	기독교	1.868911	0.926337	2.02	0.044	0.0510146 3.686807
종교	불교	1.614432	0.613295	2.63	0.009	0.4108677 2.817996
	기독교	0.36781	0.088176	4.17	0	0.1947682 0.540852
사회적응 선택도	사회적응 선택도	-0.01694	0.035037	-0.48	0.629	-0.0856967 0.051821
거리 수용도	나눔대상 수용	0.13981	0.232439	0.6	0.548	-0.316341 0.59596
기부 참여	기부 참여 여부	0.930236	0.544223	1.71	0.088	-0.1377786 1.99825
직업	자영업	0.580416	0.961947	0.6	0.546	-1.307362 2.468193
	주부	-0.80517	1.016482	-0.79	0.428	-2.799976 1.189627
직업	생산직	0.642284	0.860413	0.75	0.456	-1.046239 2.330807
	사무직	0.601824	0.869399	0.69	0.489	-1.104333 2.307981
은연 여부	기은	0.789625	0.825713	0.96	0.339	-0.8308013 2.410051
종교 자원봉사 시간	종교 자원봉사 시간	6.515366	1.823924	3.57	0	2.935995 10.09474
	_cons	-8.67953	3.984664	-2.18	0.03	-16.49926 -0.8598
	/sigma	4.674765	0.336635			4.014133 5.335397

Obs. summary: 830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hsecrvoltime<=0
146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회귀
관측수 = 976
LR chi2(23) = 88.32
Prob > chi2 = 0.0000
로그 우도 = -661.39594
Pseudo R2 = 0.0626

결과 : 기술적 결과

순수 자원봉사 노력 : 자원봉사 시간(종교기관을 통한 경우 포함)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순수 자원봉사 시간	1016	7.51	38.24	0	540
순수+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시간	1016	8.21	39.49	0	540

종교 자원봉사 노력 :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교 자원봉사 시간	1016	0.7	8.39	0	200

결과 : 총순수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Tobit 분석

Insecure=e	변수	계수	표준 오차	t	P> t	[95% 신뢰구간]
성별	성별	-0.52462	0.541665	-0.97	0.333	-1.587611 0.538377
교육수준	교육수준	0.026568	0.245449	0.11	0.914	-0.4551144 0.508251
연령	연령	-0.1281	0.152627	-0.84	0.401	-0.4276271 0.171419
연령	연령 제곱값	0.000912	0.001717	0.53	0.596	-0.0024588 0.004282
	가계 소득	-0.00317	0.004732	-0.67	0.503	-0.0124561 0.006115
가계 소득	가계 소득 제곱값	3.79E-06	4.76E-06	0.8	0.426	-5.55E-06 1.31E-05
	종교 기부 노력	-0.01852	0.417931	-0.04	0.965	-0.8386913 0.801653
기부	순수 기부 노력	0.93726	0.623048	1.5	0.133	-0.2854447 2.159965
	경조사 기부 노력	0.407034	0.333266	1.15	0.25	-0.2864311 1.100499
나눔사회복 및 가치	사회복	0.346301	0.08285	4.18	0	0.1837121 0.50889
	가치 인식	0.114471	0.096183	1.19	0.234	-0.0742837 0.303226
종교	기독교	0.781162	0.672199	1.16	0.245	-0.5379988 2.100322
	기독교	1.863496	0.867533	2.15	0.032	0.1610015 3.565991
종교	불교	1.569938	0.579765	2.71	0.007	0.4321749 2.707701
	기독교	0.36781	0.088176	4.17	0	0.1947682 0.540852
사회적응 선택도	사회적응 선택도	-0.01336	0.032986	-0.4	0.686	-0.078093 0.051375
거리 수용도	나눔대상 수용	0.195636	0.218815	0.89	0.372	-0.2337789 0.625051
기부 참여	기부 참여 여부	0.876267	0.513069	1.71	0.088	-0.1306085 1.883142
직업	자영업	0.383378	0.907681	0.64	0.521	-1.197906 2.364662
	주부	-0.62471	0.959324	-0.65	0.515	-2.50734 1.257923
직업	생산직	0.604876	0.814227	0.74	0.458	-0.9930093 2.20276
	사무직	0.622542	0.822442	0.76	0.449	-0.9914649 2.236549
은연 여부	기은	0.723352	0.779965	0.93	0.354	-0.8072947 2.253998
종교 자원봉사 시간	종교 자원봉사 시간	10.53553	1.670821	6.31	0	7.256615 13.81444
	_cons	-8.54083	3.768381	-2.27	0.024	-15.93611 -1.14555
	/sigma	4.441629	0.31093			3.831443 5.051814

Obs. summary: 823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hsecrvoltime<=0
153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회귀
관측수 = 976
LR chi2(23) = 124.60
Prob > chi2 = 0.0000
로그 우도 = -672.32185
Pseudo R2 = 0.0848

결과 : 순수 기부 노력에 대한 Tobit 분석

순수 기부 노력		계수	표준 오차	t	P> t	[95% 신뢰구간]
기부 노력	경조사기부 노력	0.1175568	0.027423	4.29	0	0.0637412 0.171373
	종교 기부 노력	-0.0210328	0.032461	-0.65	0.517	-0.0847355 0.04267
자원봉사	순수 자원봉사	0.1152134	0.044999	2.56	0.011	0.0269048 0.203522
	사회복합 가치	0.0363938	0.00616	5.91	0	0.0243061 0.048482
나눔 사회화영 가치	가치 인식	0.0206388	0.007595	2.72	0.007	0.0057547 0.035563
	가독교	0.1363772	0.04975	2.74	0.006	0.0387454 0.234009
	가톨릭	0.1217923	0.070306	1.73	0.084	-0.0161811 0.259766
종교	불교	0.0569561	0.044281	1.29	0.199	-0.0299436 0.143856
	기독교	0.0006137	0.000374	1.64	0.101	-0.00012 0.001347
가계 소득	가계 소득	-5.96E-07	4.00E-07	-1.49	0.136	-1.38E-06 1.89E-07
	가계 소득 계급값	0.0055895	0.043173	0.13	0.897	-0.0791362 0.090315
성별	성별	0.0252923	0.012217	2.07	0.039	0.0013172 0.049267
연령	연령	-0.0002458	0.000135	-1.82	0.07	-0.0005114 1.97E-05
	연령 계급값	-0.0602773	0.125805	-0.48	0.632	-0.307164 0.186609
혼연 여부	미혼	0.0032944	0.109028	0.03	0.976	-0.210668 0.217257
	혼인	0.0176019	0.017648	1	0.319	-0.0170313 0.052235
사회적권 인식도	사회적권 인식도	0.0360873	0.016867	2.14	0.033	0.0029867 0.069188
직업	거리 수용도	0.0360095	0.070356	0.51	0.609	-0.102062 0.174081
	자영업	0.0000909	0.072453	0	0.999	-0.142095 0.142277
	생산직	-0.0915621	0.065263	-1.4	0.161	-0.2196389 0.036515
	사무직	-0.0026148	0.065589	-0.04	0.968	-0.1313308 0.126101
교육	교육	0.0219494	0.0186	1.18	0.238	-0.0145526 0.058452
	_cons	-1.855491	0.318922	-5.82	0	-2.481362 -1.22962
	/sigma	0.4568527	0.01498	30.51	0	0.427455 0.48625

Obs. summary: 464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only_sec <=0
510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회귀
관측 수 = 974
LR chi2(22) = 171.31
Prob > chi2 = 0.0000
로그 우도 = -577.06799
Pseudo R2 = 0.1292

결과 : 종교 기부 노력에 대한 Tobit 분석

종교 기부 노력		계수	표준 오차	t	P> t	[95% 신뢰구간]
기부 노력	경조사기부 노력	0.311176	0.074252	4.19	0	0.1654617 0.45689
	순수 기부 노력	-0.03051	0.132369	-0.23	0.818	-0.2902737 0.229256
종교	가독교	2.356598	0.15289	15.41	0	2.056562 2.656635
	가톨릭	2.128182	0.192963	11.03	0	1.749504 2.506859
	불교	1.339123	0.146625	9.13	0	1.051381 1.626865
가계 소득	가계 소득	-0.00137	0.001012	-1.35	0.177	-0.0033523 0.000618
	가계 소득 계급값	1.79E-06	1.05E-06	1.71	0.088	-2.68E-07 3.86E-06
성별	성별	0.191507	0.120548	1.59	0.112	-0.0450602 0.428074
연령	연령	0.020947	0.032845	0.64	0.524	-0.0435084 0.085402
	연령 계급값	-6.7E-05	0.000362	-0.19	0.852	-0.0007768 0.000642
혼연 여부	미혼	0.088544	0.337437	0.26	0.793	-0.573654 0.750743
	혼인	0.08011	0.278479	0.29	0.774	-0.4663858 0.626605
직업	자영업	0.318337	0.205971	1.55	0.123	-0.085867 0.72254
	주부	0.297329	0.204895	1.45	0.147	-0.1047629 0.699421
	생산직	0.263193	0.191595	1.37	0.17	-0.1128008 0.639186
	사무직	0.377534	0.196005	1.93	0.054	-0.0071121 0.762179
교육	교육	0.076855	0.052107	1.47	0.141	-0.0254027 0.179112
	_cons	-3.48594	0.829105	-4.2	0	-5.113004 -1.85888
	/sigma	1.048666	0.04813	21.79	0	0.9542131 1.143119

Obs. summary: 691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faith_tot <=0
288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회귀
관측 수 = 979
LR chi2(17) = 442.47
Prob > chi2 = 0.0000
로그 우도 = -631.93205
Pseudo R2 = 0.2593

결과 : 경조사기부 노력에 대한 Tobit 분석

경조사기부 노력		계수	표준 오차	t	P> t	[95% 신뢰구간]
기부 노력	종교 기부 노력	0.17927	0.055527	3.23	0.001	0.0703014 0.288238
	순수 기부 노력	0.249048	0.086505	2.88	0.004	0.0792866 0.418809
종교	가독교	-0.27389	0.085931	-3.19	0.001	-0.4425241 -0.10526
	가톨릭	0.015068	0.121354	0.12	0.901	-0.2230823 0.253218
	불교	0.076736	0.072833	1.05	0.292	-0.0661952 0.219666
가계 소득	가계 소득	-0.00147	0.000617	-2.38	0.018	-0.0026762 -0.00026
	가계 소득 계급값	9.28E-07	6.71E-07	1.38	0.167	-3.89E-07 2.25E-06
성별	성별	-0.15117	0.072763	-2.08	0.038	-0.2939582 -0.00838
연령	연령	0.076747	0.020329	3.78	0	0.0368531 0.116641
	연령 계급값	-0.00062	0.000223	-2.78	0.006	-0.001059 -0.00018
혼연 여부	미혼	0.129253	0.20591	0.63	0.53	-0.2748302 0.533337
	혼인	0.192845	0.175796	1.1	0.273	-0.1521426 0.537833
직업	자영업	0.362152	0.118059	3.07	0.002	0.1304684 0.593835
	주부	0.299753	0.121631	2.46	0.014	0.0610603 0.538445
	생산직	0.244917	0.107848	2.27	0.023	0.0332733 0.456561
	사무직	0.413638	0.1113	3.72	0	0.1952192 0.632057
교육	교육	0.03393	0.031129	1.09	0.276	-0.0271586 0.095019
	_cons	-1.59809	0.499423	-3.2	0.001	-2.378171 -0.618
	/sigma	0.825665	0.024562	33.63	0	0.7774643 0.873866

Obs. summary: 327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mannual_tot <=0
652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회귀
관측 수 = 979
LR chi2(17) = 228.58
Prob > chi2 = 0.0000
로그 우도 = -1062.4742
Pseudo R2 = 0.0971

결과 해석: 순수 자원봉사 노력

1. 순수 자원봉사 노력

유의미한 예측 요인

: 종교 자원봉사 시간(+), 나눔 사회화(+), 가톨릭(+), 불교(+), 순수 기부 참여(+), 순수 기부 노력(+)

2. 총 순수 자원봉사 노력: 종교적 순수 자원봉사 시간 포함

유의미한 예측 요인

: 종교 자원봉사 시간(+), 나눔 사회화(+), 가톨릭(+), 불교(+), 순수 기부 참여

종교 자원봉사 노력과 순수 자원봉사 노력, 종교 활동 여부와 순수 자원봉사 노력, 나눔 사회화와 순수 자원봉사 노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결과 해석 : 순수기부 노력

유의미한 예측 요인

: 경조사 기부 노력(+), 자원봉사(+), 나눔 사회화(+), 가치(+), 기독교(+), 연령(+), 연령 제곱값(-), 나눔 대상에 대한 거리 수용도(+)

주목할만한 비주요 예측 인자

: 종교 기부 노력(-)
신과 이웃에 대한 종교인의 책임감이 종교 기부에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경조사 기부 노력과 순수 기부 노력 사이에 상호 쌍방향적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임.

결과 해석 : 종교기부 노력

유의미한 예측 요인

: 경조사 기부 노력(+), 기독교(+), 가톨릭(+), 불교(+)

주목할만한 예측 요인

: 경조사 기부 노력(+)

경조사 기부 노력 및 순수 기부 노력과 달리, 경조사 기부 노력과 종교 기부 노력 간의 관계는 상호 쌍방향적 관계가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음. 앞서 경조사 기부 노력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활동 참여가 종교단체 회원들간에 경조사 기부를 주고 받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줌.

결과 해석 : 경조사기부 노력

유의미한 예측 요인

: 종교 기부 노력(+), 순수 기부 노력(+), 기독교(+), 가계 소득(-), 연령(+), 연령 제곱값(-), 모든 직업군(+)

주목할만한 예측 요인

: 종교 기부 노력(+), 순수 기부 노력(+), 가계 소득(-), 연령(+), 연령 제곱값

순수 기부 노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조사 기부 노력과 순수 기부 노력 사이에 쌍방향적 상호 영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

종교활동 참여는 종교단체 회원들간에 경조사 기부를 제고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음.

결론 : 세 가지 유형의 기부

순수기부, 종교기부, 경조사기부

1. 이 세 가지 기부 유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는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각 기부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을 조사하면서 다른 기부 유형 간의 상호관계(또는 방향)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횡단적 데이터보다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기부노력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항은 기부사회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기부관련 우리사회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결과임.

☐ 결론 : 순수 자원봉사 노력

순수 자원봉사 시간: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포함

1. 순수 자원봉사의 지속 기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2. 종교 자원봉사 시간에 초점을 맞춰 순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자원봉사 노력에 관한 위 연구 주제에 대해 횡단적 데이터보다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자원봉사노력에서도 역시 핵심 예측요인은 나눔 사회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자원봉사관련 우리사회의 과제를 확인시켜 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

미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멜리사 브라운

호주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김 매 든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요시오 마츠가나

네덜란드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테오 슈이츠

영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리차드 해리슨

미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USA





미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USA

멜리사 브라운 | Melissa S. Brown
Associate Director of Research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멜리사 브라운은 미국의 연간 기부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50년 이상의 역사와 연구의 전문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Giving USA의 책임 편집자이며, 인디애나대학교 기부연구센터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의 연구 담당 부소장이다. 그녀는 1991년부터 인디애나대학교 기부연구센터에서 센터의 모금 및 개발, 연구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기부연구센터 내 모금학교(Fund Raising School)에서 모금을 위한 제안서 작성 강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Giving USA 2001~2007 등 기부와 모금에 관련한 다수가 있다. 그녀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Giving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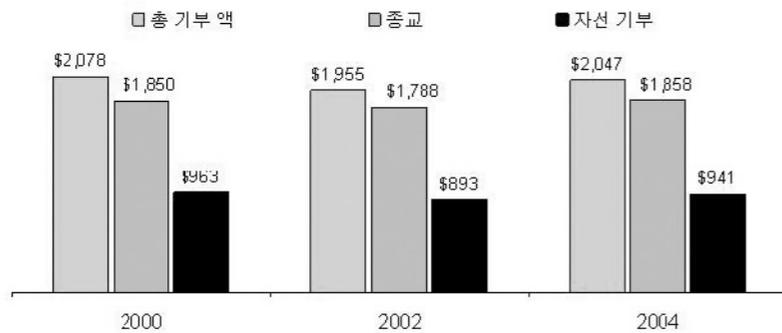
멜리사 브라운
인디애나 대학교 기부문화연구센터
(The Center on Philanthropy)

개인 기부 동향

- 20세기 이전에는 비공식적 기부가 주를 이뤘고, 주로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
- 산업혁명과 함께 점차 기부가 공식적이 되고 제도화되었다.
 - 막대한 부의 창출 - 록펠러, 카네기
 - 민간 재단의 설립
 - 지역재단 운동의 시작
- 1973년에는 전체의 88%가 기구기 기부했다.
- 9/11 이후 몇 주 안에 미국인의 58%가 자원봉사나 기부에 참여했다.

2000-2004 년도 개인 기부

가계 기부 평균 금액 (물가 상승률 반영)



출처: COPPS, COP

1967-2007년 개인 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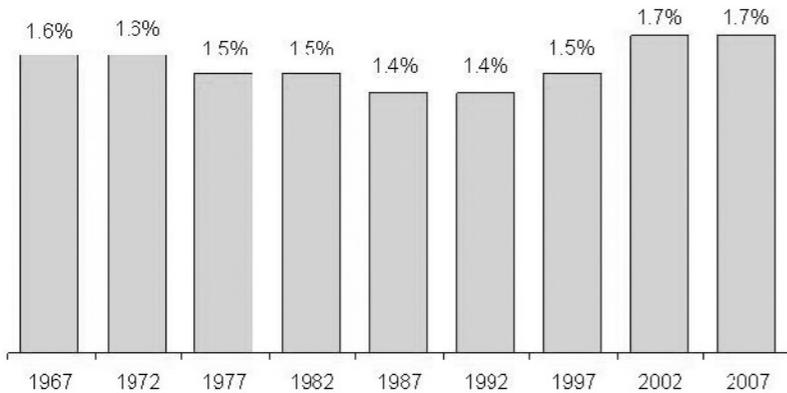
단위: 10억불



출처: Giving US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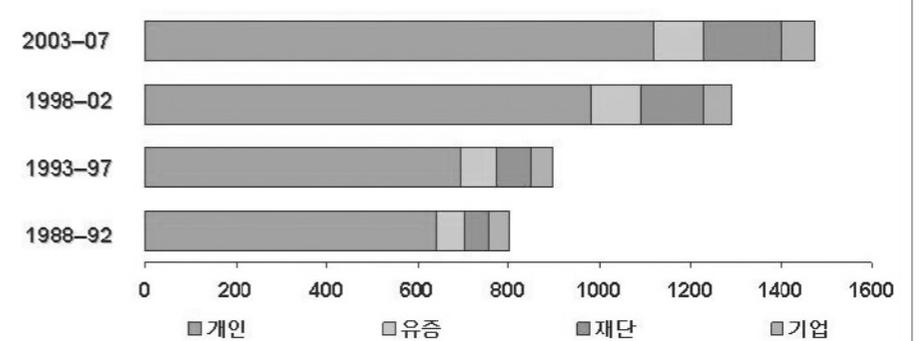
1967-2007년도 개인 기부

GDP 대비 백분율



출처: Giving US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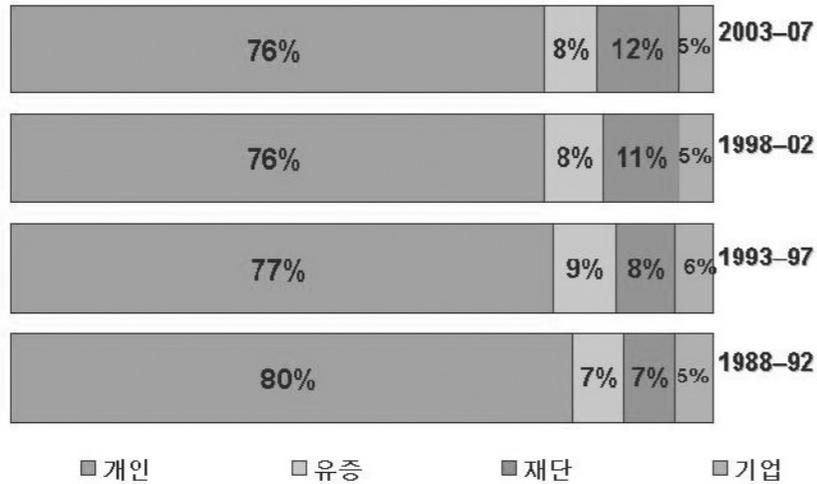
기부자 유형별 총기부액, 5년 추적 동향 조사, 1988-92년에서 2003-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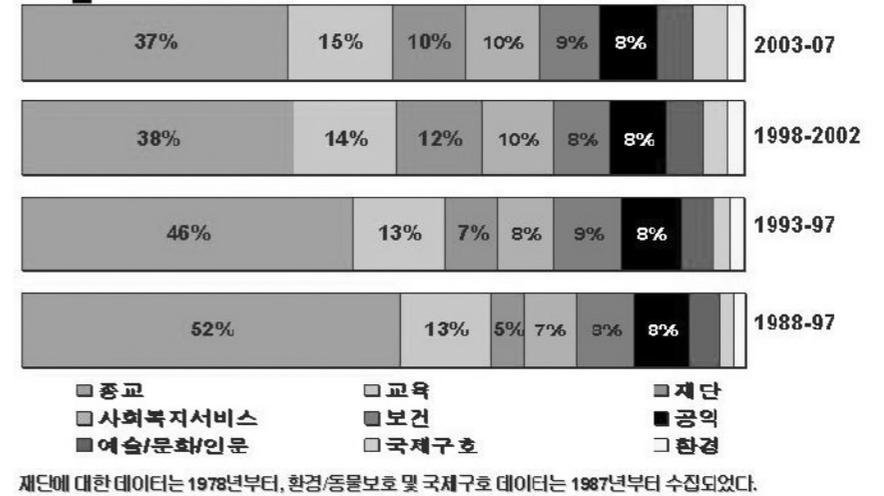
단위: 10억불, 물가상승률 반영

Giving USA는 CPI를 사용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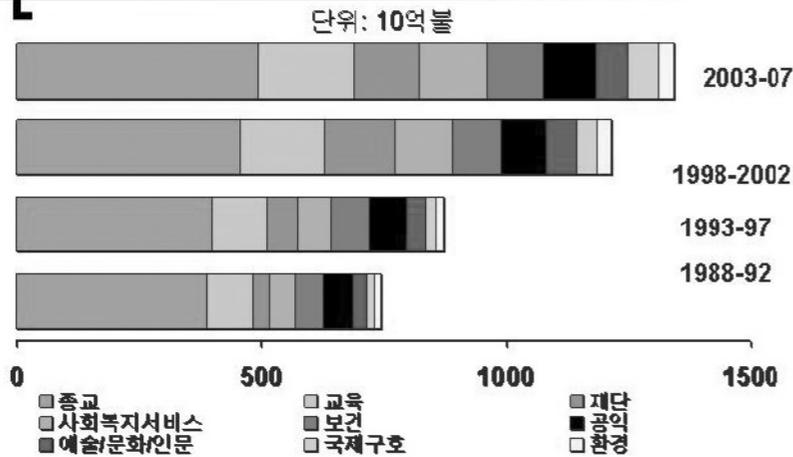
[기부자 유형별 총 기부금 비율, 5년 추적 동향 조사, 1988-92년에서 2003-07년]



[수혜자 유형별로 본 총 기부금 비율]



[수혜자 유형별로 본 기부, 5년 추적 동향 조사, 1988-92년에서 2003-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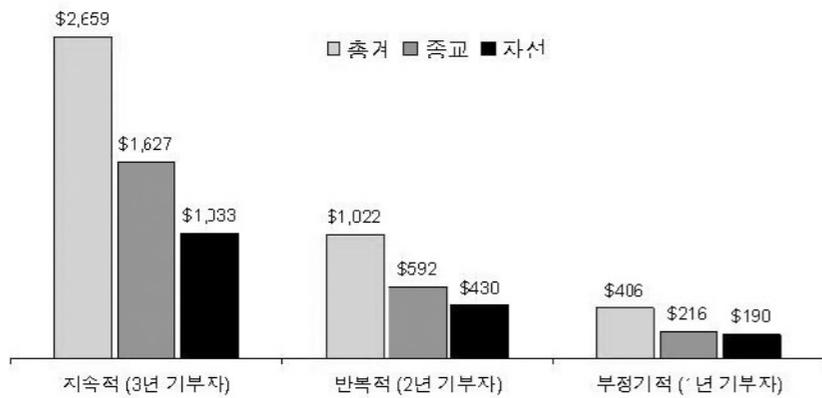


출처: Giving USA

[기부 동기]

- 연구에서 나타난 기부 동기는 다음과 같다.
 - 이타심 및 자기만족
 - 공감
 - 동정심
 - 불쌍해서/죄책감
 - 사회정의
 - 사회적인 위신과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생각
- 부유층의 가장 큰 기부동기 3가지
 - 인간의 필수적 욕구 충족
 - 사회 환원
 - 상호의존의 원리

[기부의 정기성 및 가계 평균 기부액]



출처: COPPS, COP

[가구 기부의 관련 요인]

- 소득 ↑ 기부 ↑
- 교육 수준 ↑ 기부 ↑
- 기업이 만든 기부자 지정 기금
- 모금전문가
- 세제(세금없이 유증을 남길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
- 자선기관에 대한 기타 지원

[기부 관련 요인 - 모든 기부자 유형에 해당]

- 자선기관에 대한 기타 지원
 - 정부는 자선단체를 등록한다. 단체는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즉, 연간 수입의 33%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자선기관의 수입은 대부분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일부 예외)
 - 연방법에 의거, 단체의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
 - 개인 또는 기업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 각 주정부는 사기 모금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모금 활동을 등록하고, "요청전화 수신거부자 목록 (Do Not Call list)"을 운영하고, 재산세나 판매세의 면세(또는 부과) 내상을 관리한다.

[세금과 기부]

- 세법 501c4 ~ 501c25항: 자선기관 외 기관들
 - 사회복지기관, 퇴역군인단체, 노조, 협동조합 등
- 501c3항: 자선기관
 - 종교기관을 포함하여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관
- 501c로 등록된 보는 난제는 면세 내상이나.
- 501c3항의 기관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소득세 및 재산세,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 501c의 기타 항에 규정된 기관들에 대한 기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기부 비용이 1달러 감소하면 기부금은 약 1.5달러 증가한다(Peloza & Steel, 2005).

[미국의 특징]

- 재단의 수가 많다
 - 2005년 현재, 재단의 자산 규모는 \$5,510억에 달한다.
 - 2005년 현재, 71,000개의 재단이 활동 중
- 부유층 기부자의 수가 많다
 - 2007년에 접수된 최고액 기부금은 조지 소로스가 낸 \$475백만
 - 거액기부자 명단인 '슬레이트 60'에 따르면, 상위 기부자의 최저 기부액은 \$3천만
- 유산기부의 비율이 높다
 - 2007년의 경우, 총 기부금의 7.6%

[미국의 특징]

- 계획 기부
 - 기부자가 수혜기관뿐 아니라 기부자 자신에게 돌아올 잠재적 이득을 최대화하고 기부의 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재정 목표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부.
 - 평생단순기부(Lifetime outright giving)- 기부자가 기부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경우
 - 평생이윤분할기부(Lifetime split-interest gifts)- 기부자가 해당 자산에서 얻는 총 이득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며, 이때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다.
 - 유증 및 상속자이윤분할기부(Split-interest gifts for survivors)- 기부자 사망 직후 또는 사망한 지 몇 년 후에 기부를 받은 자선기관이 해당 기부금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미국 내 기부 관련 현안]

- 2007년 11월 20일자로 연방선거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비영리단체가 이슈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다.
- 2007년 가을에는 25명의 하원의원이 참가하는 새로운 코커스(caucus)가 결성되어 자선기관과 재단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Pelozo, J. and Steel, P. 2005. 자선기부의 가격 탄력성: 메타 분석(The Price Elasticities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vol.24, no.2. p.260-272

호주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Australia





호주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Australia

김 매든 | Kym Madden
Senior Research Fellow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김 매든은 호주의 기부현황 보고서인 Giving Australia Project의 책임 연구원이었으며, 현재 호주 퀸즈랜드공과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경영대학 내 호주 기부 및 비영리 연구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의 수석 연구원이다. 그녀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와 강의, 실무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호주 기부 및 비영리 연구센터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부, 기부자와 단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녀는 호주 정부는 물론 Lifeline을 비롯한 다수의 호주 비영리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호주의 기부 문화

김 매든 박사
퀸즈랜드 공과대학교, 호주 기부 및 비영리 연구센터

1. 미래의 비전
2. 현재 동향
3. 모멘텀
4. 기부 구성 요소
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불확실성

내부 요인

- 기금의 불안정성
- 제한적인 역량

환경적 요인

- 기부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압력
- 인구 고령화, 다양성 증가, 서비스 수요 증가
- 소액의 일회성 기부가 일반적인 기부 관행



호주 기부문화에 대한 비전

- 계획 기부자의 나라
- 부유층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나라



현재 동향

호주의 기부율은 **GDP의 0.68%**

2004년 기준, \$110억(호주 달러)



출처: Giving Australia 연구

- 개인: 2004년 2월-2005년 1월
- 기업: 2003 - 2004 회계연도
- 초나미 구호기금 제외

개인

\$77억 (호주 달러)
\$20억은 자선캠블링/행사 수익

호주인의 87%는 최소 1회 이상 기부한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소액 기부

기업

\$33억
다음 사항 포함: 현금, 현물, 스폰서, 협력사업

호주 기업의 67%는 최소 1회 이상 기부한다.

일반적으로 소액 기부이며, 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증

- 얼마나 하는가? 데이터 부재(유증이 실제 행사되기 전에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 비영리단체들은 유증이 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 (약 10%가 가장 중요한 기금원이라고 응답)
- 그러나 생전기부(inter vivos giving)와 비교할 때 낮은 편
 -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6년 현재 모든 자산의 5%에 불과
 - 총 자산 가치의 1%
 - 7.5%가 유언에 자선단체 포함시킴
 - 58%만이 유언 작성
- 2008년도 연구: 마음은 열려 있으나 확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인의 기부 동향

- 기부액:
 - 연 평균 \$424 - 중위 기부값 \$100
- 대부분 비계획 기부:
 - 16%만이 계획 기부라고 응답
 - 50%는 일회성 기부
 - 31%는 일회성과 계획 기부의 혼합이라고 응답
- 대부분 비정기적 기부:
 - 48%는 동일 비영리단체에 반복 기부
 - 51%는 일회성
- 격차가 큼:
 - 계획 기부 평균 - 연간 \$238
 - 일회성 기부 평균 - \$59



Giving Australia 2005

누가 기부하는가?

- 나이
 - 중년층의 기부참여율이 높다
 - 65세 이상의 평균 기부액이 가장 크다
- 성별
 - 여성의 기부참여율이 더 높다(여성 90% vs. 남성84%)
 - 남성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남성 \$477 vs. 여성 \$377)
- 소득
 - 고소득층의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액이 더 많다.
 - 예) \$52,000 이상 소득자는 91%(87%)가 기부하고 평균 기부금은 연간 \$769(\$424)에 달한다.
 - 그러나 기부 역량을 고려하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Giving Australia 2005

선호하는 기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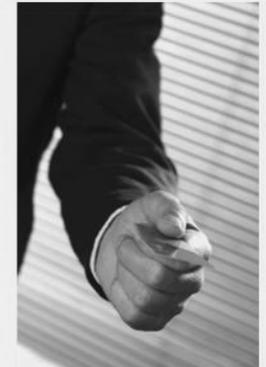
지역 및 사회복지 단체

가장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다

- 개인 기부 \$8 당 \$1
- 기업 기부 \$3 당 \$1
- 자원봉사 4시간 중 1시간

보건 및 의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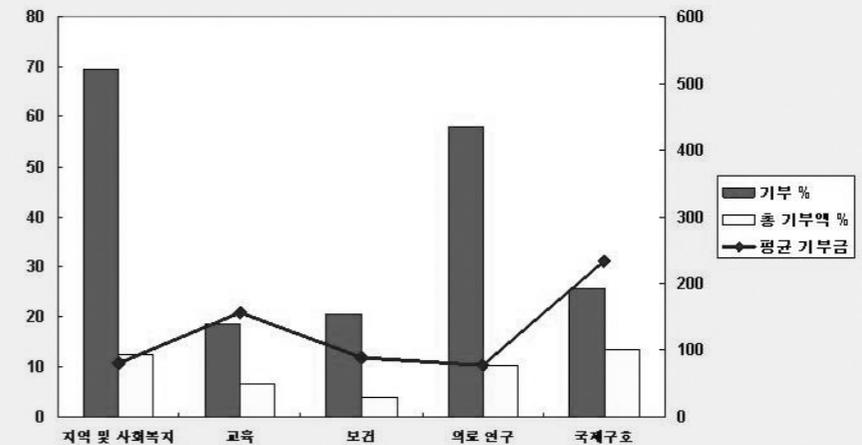
이 분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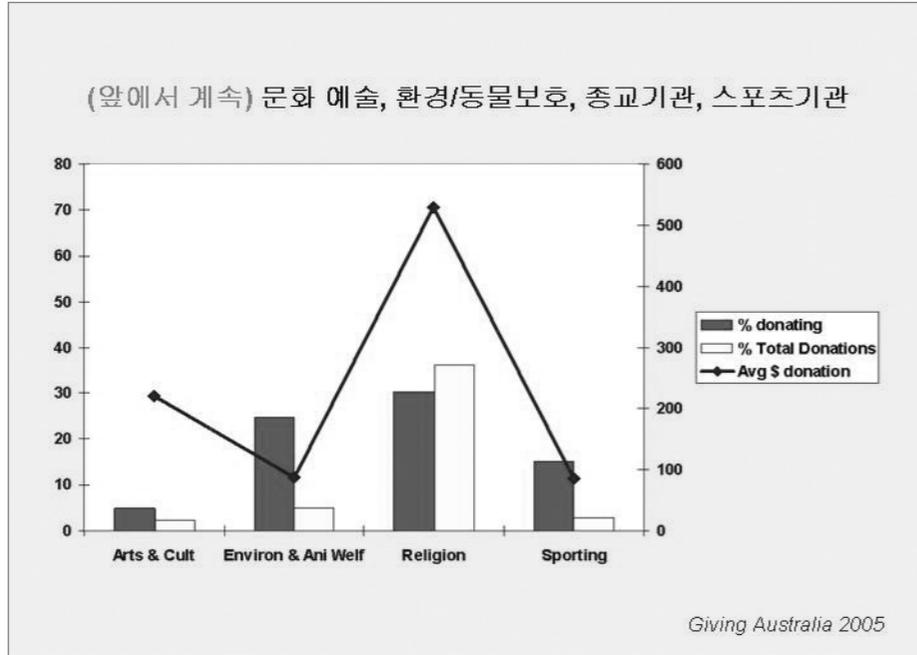
Giving Australia 2005

선호하는 기부 대상 - 개인

지역 &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 연구, 국제구호



Giving Australia 2005



호주의 종교적 기부

- 기부자 수는 비교적 적으나 평균 기부금이 높다
- 수혜기관과 연관되어 있을수록 많이 기부한다
- 호주의 경우 이러한 연관 기부 (affiliation giving)의 가장 큰 수혜자는 종교기관이다
-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관 기부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Giving Australia 2005

수혜자별로 본 연관 기부(affiliated giving)

	연관 형태(%)	비연관 기부자의 평균 기부액(\$)	연관 기부자의 평균 기부액(\$)	연관 기부자의 총 기부금 비율(%)
지역 또는 사회복지	24.0	82	96	26.9
교육	73.1	54	131	87.0
보건 서비스	48.1	65	88	56.1
의료 연구	30.4	77	94	34.3
국제구호 및 개발 기구	18.5	252	360	26.9
문화예술 단체	64.1	87	140	73.1
환경 또는 동물보호단체	15.1	64	143	29.0
종교 단체	69.8	277	575	82.7
스포츠 클럽	53.8	42	77	68.3
총계	34.1	114	214	49.2

Giving Australia 2005

자원봉사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 2004년도의 경우, 836백만 시간
- 성인 1인당 평균 = 연간 132시간
- 연간 자원봉사 시간 중앙값: 44시간

•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

• 성별

- 여성들이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전체 자원봉사자의 60%



Giving Australia 2005; AB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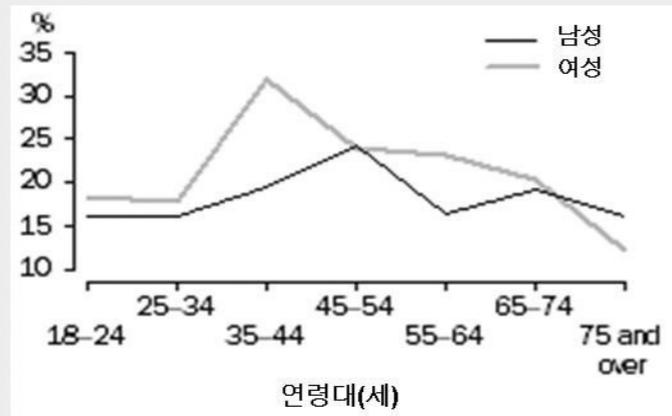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 (앞에서 계속)

- 소득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비율이 일정
 -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시간 감소
- 교육 수준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율은 증가하나 시간은 감소
- 나이
 - 중년층이 가장 자주 자원봉사를 하나 전체 시간은 적음
 - 노년층: 역량은 높으나 비율은 감소



Giving Australia 2005, AB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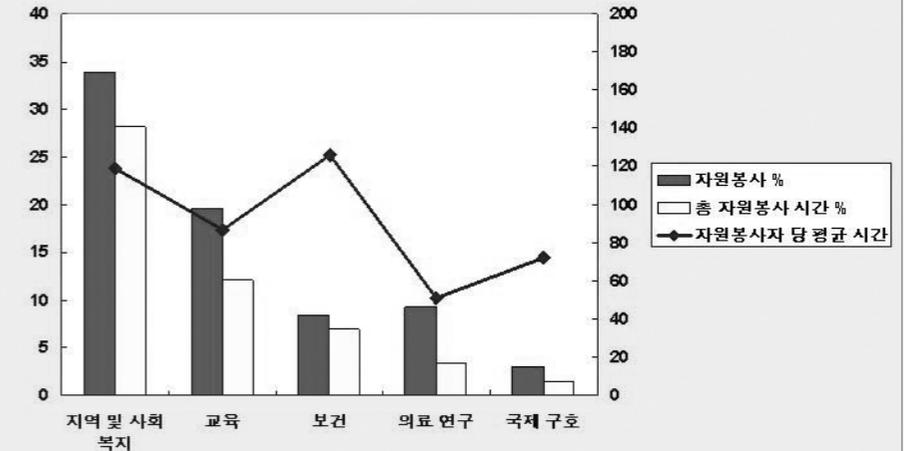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호주인의 비율 -2006년도 나이 및 성별 조사



출처: ABS 2006 자원봉사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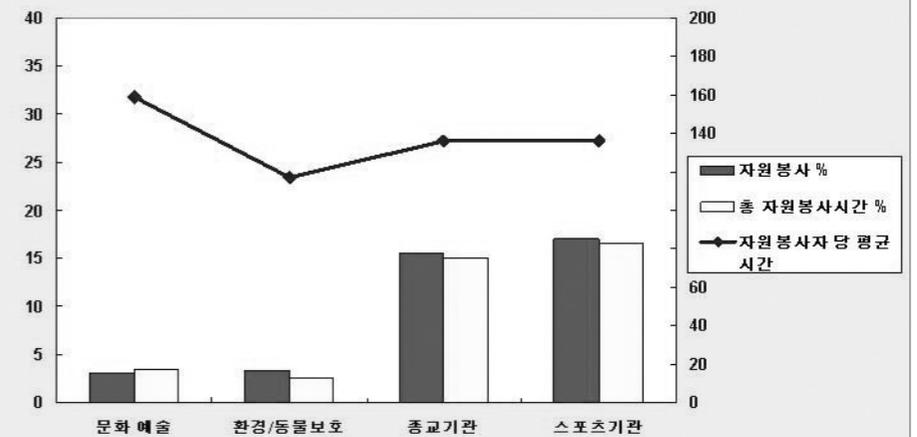
선호하는 자원봉사 기관

지역 및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 연구, 국제구호



Giving Australia 2005

(앞에서 계속) 문화 예술, 환경/동물보호, 종교기관, 스포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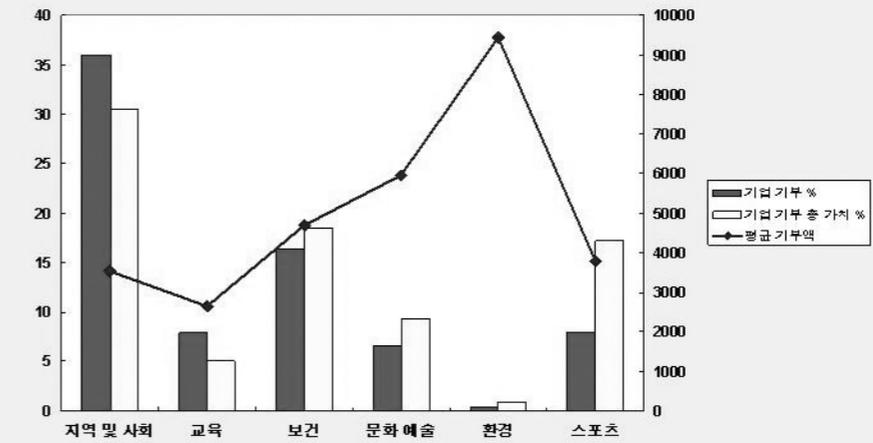


민간재단에 의한 배분

- 2007년, 471.7백만불이 민간재단(PPF)에 기부됨
2006년보다 74% 증가
- 2007년, 민간재단은 117백만불 배분
2006년보다 58% 증가
- 문화 및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을 선호함

기업 기부의 선호 대상

지역 및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 연구, 국제구호



Giving Australia 2005

호주의 기업 기부

- 기업의 2/3가 기부
- 주로 현금:
현물(\$5억)
서비스(\$5억)
현금(\$22억)....

현금 기부 (58%)
스폰서 (25%)
협력사업 (17%)



Giving Australia 2005

수혜자별로 본 기부와 자원봉사 - 2004년

	개인 기부 (총 기부액 %)	개인 자원봉사 (총 시간 %)	기업 기부 (총 기부액 %)
지역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12.8	28.2	30.5
교육	6.6	12.2	5.0
보건(의료 연구 포함)	14.2	10.3	18.5
국제구호	13.3	1.4	n/a
문화예술협회	2.3	3.4	9.3
환경 또는 동물보호단체	4.8	2.6	0.9
종교기관	36.1	15.0	n/a
스포츠 및 여가 클럽	3.7	19.7	17.7
기타	6.2	7.2	18.1
총계	100	100	100
총 가치	\$57억	836백만 시간	\$3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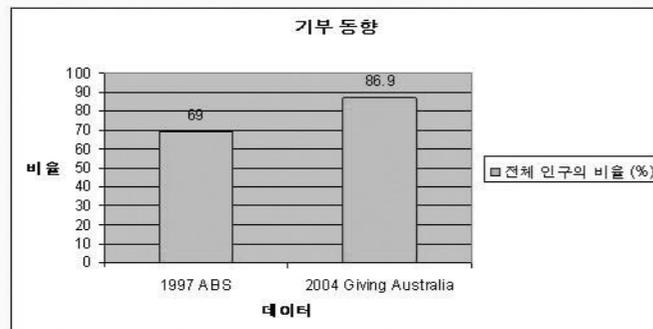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본 기부동향



1. 기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2. 총 기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
3. 부유층의 기부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
4. 재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5. 기업 기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6. 자원봉사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 x
7. 소액 기부가 대부분이다 x
8. 요청을 받을 때만 수동적으로 기부한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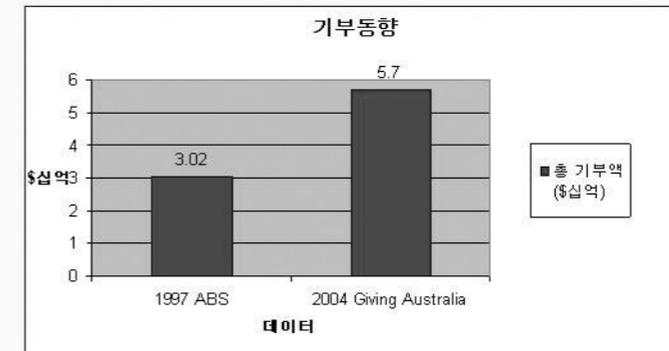
T1: 기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18% 증가
- 현재는 거의 8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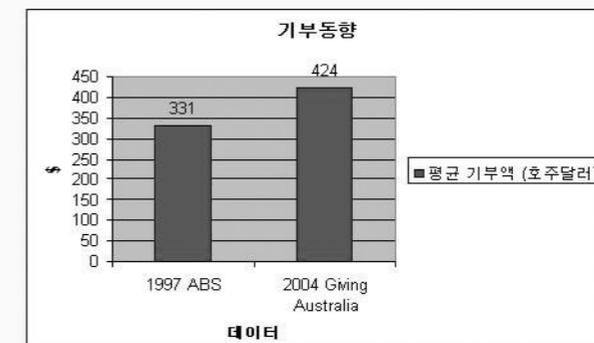
T2: 개인 기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총 기부액이 88% 증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58% 증가



또한... 평균 기부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331에서 \$424로 25% 이상 증가



T3: 부유층의 기부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 호주 부유층의 다수는 과세소득 \$10만 - \$50만 사이인데, 이들은 소득의 **0.45%**만을 기부한다 (이보다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0.33%)
- 과세소득 \$1백만 이상인 그룹은 소득의 **0.98%**를 기부하나, 여전히 개인고액자산가(HNW)의 기부 동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과세소득 \$10만-1백만 사이의 그룹에서 10명 중 4명은 어떠한 세금공제성 기부도 하지 않는다

(McGregor-Lowndes & Newton 2007; Madden & Scaife 2008)



T4: 재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2001년 이후 기존 재단에 더해 769개의 민간 재단(PPF)이 새로 설립됨
- 민간재단의 총 가치는 **\$15억**
- 호주 국세청과의 협의에 따라 향후 배분액이 증가할 예정

(McGregor-Lowndes and Newton 2008)



T5: 기업 기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동향이 감지된다.
 -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기부를 이용한다
 - 명성 유지, 브랜드 구축, 유능한 인재 유치, 도덕성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고려한다
 - '파트너십'과 다차원적인 지원이 증가한다
 - 직원 자원봉사와 매칭 기부 프로그램이 증가한다
 - 대기업이 주도한다



T6: 자원봉사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정성분석 연구에 따르면,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인 참여율 증가
2004년에 전체 성인의 41%가 참여, 2년 만에 7% 증가
-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감소
- 일회성(Bounce-in, bounce-out) 자원봉사가 증가하는 추세
- 기업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증가



T7: 대체로 소액 기부이다

- 고액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호주는 다른 나라들처럼 빈곤하지 않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가 돌봐주고 있다(또는 그래야 한다).'
 - '기부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다'
- 우리는 부자가 아니다
 -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부자는 아니다'
 -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 '돈은 새로운 것이다'
- 우리는 자선기관과 무관하다
 - 낮은 연계성
 - 스팸 전화 증가
 - '우리 가족이 우선이다'



T8: 요구를 받아야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매해 16%만이 기부를 계획한다

- 지출예산에 기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생각해보지 않았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나는 기부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

- 장기간의 번영
- 인구 증가, 다인종 사회, 고령화
- 정부의 역할 변화: 상호 책임성,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한계 설정
-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 은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 근로 패턴의 변화: 여가 시간이 거의 없다. 최근의 경기 둔화로 퇴직 시기를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
- 세대의 변화: 기부자들이 기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심받기를 원한다.

문화적 측면

태도

- 호주인들은 돈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다른 계층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이다.
- 위기상황/재난시에는 기꺼이 기부를 한다.
-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동기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 기부를 '의무'가 아니라 상당히 개인적인 결정사안으로 간주한다.
- 빈곤층에는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세금으로 사회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타

- 고액 기부자가 많지 않다.
- 기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 종교 활동 참여율이 낮다.
- 노년층은 대체로 경제공황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 베이비붐 세대들은 '유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많이 베풀고 싶어한다.
- 자신의 가족을 우선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 기부자들의 특징

- 고액 기부자
 - 열정이 있다
 - 자신이 자선기부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느낀다
 - 자신의 기부 역량을 인지하고 있다
 - 개인적인 가치와 기부를 동일시한다
- 중간액 기부자
 - 단체/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부
 - 자기 정체성
 -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존경심
 - 소통의 질에 대한 관심
- 소액 기부자
 -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자선기부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
 - 자선기관들에 대한 우려

호주의 민간 신탁 및 재단

- 조직적 변화의 필요성 절감
-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하려는 노력... 파트너십을 유지하되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 기금을 제공하고자 함
- 전략 및 결과 중심적
- 혁신과 새로운 사고 지향
- 오래된 기관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부를 늘리기 위한 전략



세금: 주된 동력

- 모든 이들에게 기부의 인센티브 제공
 - 세금 공제 등
 - 호주 비영리단체에 기부되는 돈 4달러 중 1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신청된다
 - 고소득자는 세금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 기부에 대한 기초틀을 제공
- 기부를 측정하는 수단

2001년도 호주 정부의 정책

‘기업 및 개인 기부를 보다 장려하기 위하여’

- 핵심: PPF라고 불리는 민간 및 기업 재단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제공
 - 5년간 기부 평균
 - \$5,000 이상의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면
 - \$5,000 이하의 주식 기부에 대한 감면
 - 소액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예: 기금마련 만찬)
 - (월급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사내 기부에 대한 감면
 - 자연보호구역
 - 문화적 기부 프로그램(Cultural Gifts Program)에 대한 기부는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
- (5년간 \$230백만)

기타 변화에 필요한 전략

개별 비영리단체

- 기부자의 참여 촉진
- 기부자와 기관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부 요청
- 개인적인 접촉 독려
- 계획 기부 독려
- 모금 업무의 효율화

비영리부분

- 강력한 리더십
- 협력 증대
- 전문성 강화 지원
-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개선

변화를 위한 전략

사회적 차원

1. 법, 규제, 세제 개선
2. 기부 관련 자원에 대한 인식, 교육, 상호작용, 접근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부 인프라 구축 (예: 기빙 서클)
3. 기부에 관한 문화적 태도, 가치, 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 캠페인 실시
4. 단체들이 직면한 문제, 기부 목표 등 기부 관련 연구 및 활동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 개발

결론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ABS. (2006).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Australia 2005-2006 (cat no 6523.0)*.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 (2007). *Voluntary Work Survey, Australia (cat. no. 4441.0)*.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 (2008). *ABS 4102.0 - Australian Social Trends, 2008*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 Baker, C. (2007). How Victorians leave their money - patterns of transmission and giving.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Bonyhady, B. (2008). *The Future of Australian Philanthropy: New Uncertainties and Opportunities*
- Paper presented at the Philanthropy Australia National Conference, Sydney, October.
- Giving Australia. (2005). *Giving Australia: Research on Philanthropy in Australia* (No. FaCS2086.0510). Canberra: Prime Minister's 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s, Department of Family & Community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www.fahscia.gov.au
- Lyons, M., & Passey, A. (2005). *Australians Giving and Volunteering 2004*.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 Madden, K., & Scaife, W. (2008). *Good Times and Philanthropy: Giving by Australia's Affluent*. Brisbane: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Madden, K., Scaife, W., & Crissman, K. (2006). How and why small to medium size enterprises (SMEs) engage with their communities: an Australi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1(1), 49-60.
- McGregor-Lowndes, M., & Newton, C. J. (2008). *An Examination of Tax Deductible Donations Made by Individual Australian Taxpayers*. Brisban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Volunteering Australia. (2004). *Submission on the Productivity Commission's commissioned study 'Economic Implications of an Ageing Australia'*.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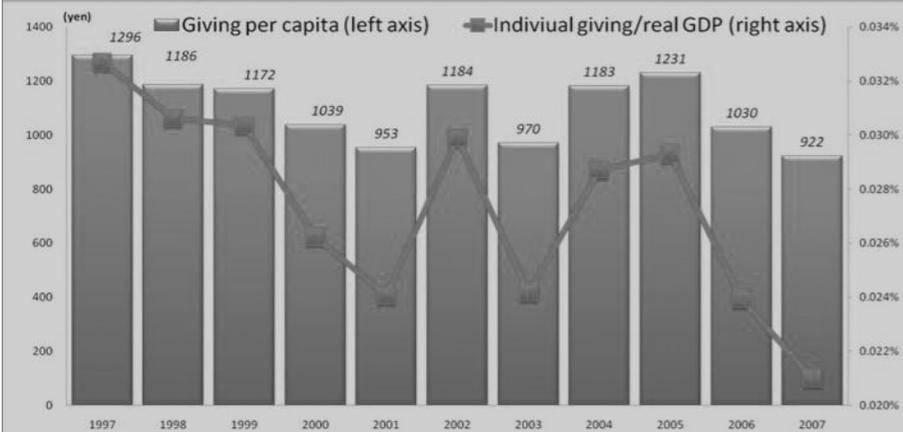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Japan

요시호 마츠나가 | Yoshiho Matsunaga
Associate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Executive Director
The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요시호 마츠나가는 일본 오사카 상업대학 경영학부 교수이며 일본 비영리연구학회의 상임이사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비영리조직 연구, 응용 계량 경제학 및 공공정책이며, 2005년부터 일본 NPO 연구학회의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관련한 여러 연구 단체의 이사 및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일본의 국책연구기관인 NIRA(National Institute of Research Advancemen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오사카대학교에서 국제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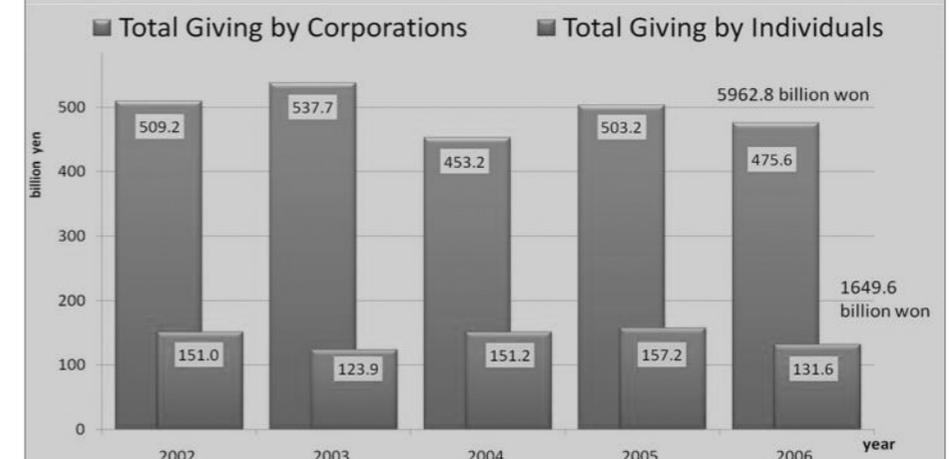
2007년, 일본인들은 922엔(11,558원) 이하를 기부한다



출처(인구):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조사부
(실질 GDP):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연구소
(가구 수): 일본 주민기본대장

3

개인보다 기업의 기부 가능성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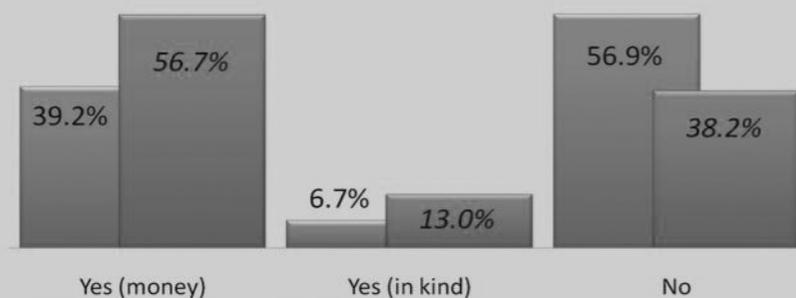
출처(기업 기부): 지역사무서

5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보다 기부 가능성이 더 높다!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

■ single-person households (n=877)
■ Housholds of more than two living (n=4418)



출처: UFJ 연구소 및 OSIPP 비영리연구정보센터(2004)
"2004 일본의 기부 및 자원활동 현황"

4

개인은 종교기관, 기업은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기부를 선호한다.



ICNP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Philan.inter. & volunt. Prom.: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출처: Okuyama, N (2007) "일본의 기부 동향(Overall picture of giving in Japan)", in The Japanese Nonprofit Almanac, Yamauchi, N, Tanaka, T, and Kawai, K (eds.), pp.11-20.

기부 동기 - 일상적 습관

Why did you give last year? [multiple ans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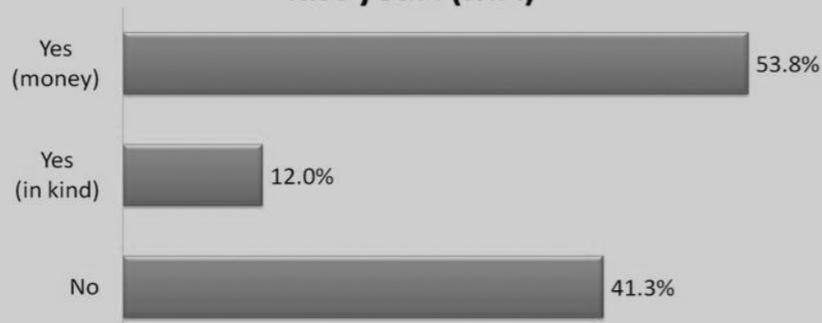
Giving is my routine work	45.2%
Their mission was empathetic	34.9%
I was asked	31.7%
They seems to be trustworthy	14.9%
I wanted to help others	14.8%

Source : The Central Community Chest of Japan's National Office (2006)

7

66%가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MA)



Sourc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8

일본의 기부자 비율이 낮은 이유 - 3가지 추정 사유-

[1]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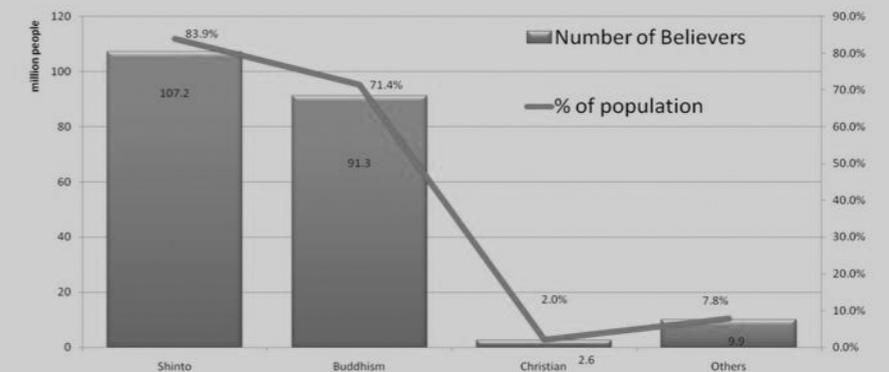
[2] 소득 재분배는 개인이 아닌 정부의 일이라는 생각!

[3]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적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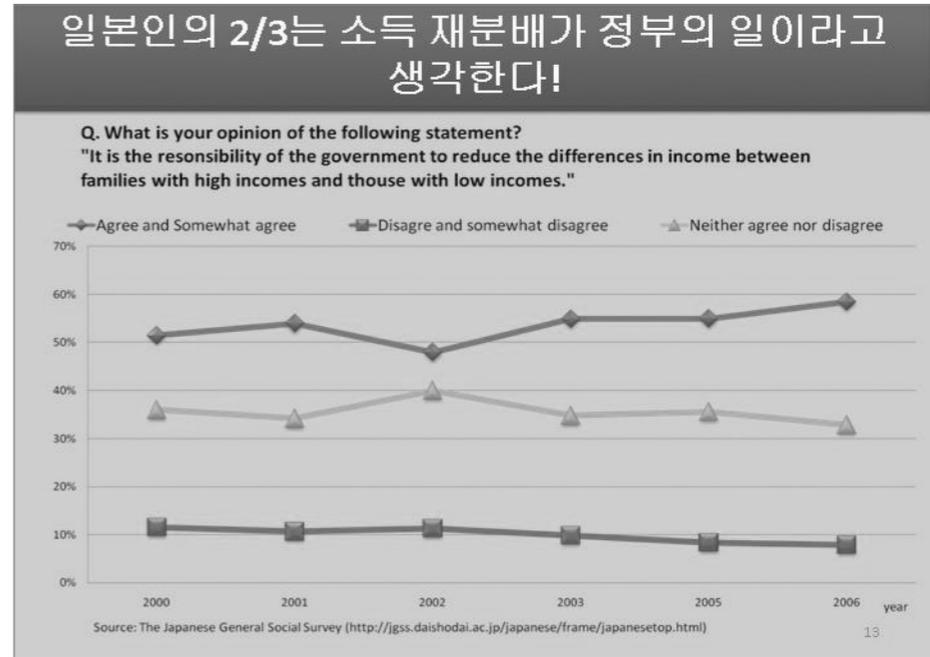
기독교인이 전체 일본 인구의 2%에 불과

Most Christian think that redistribution is our job!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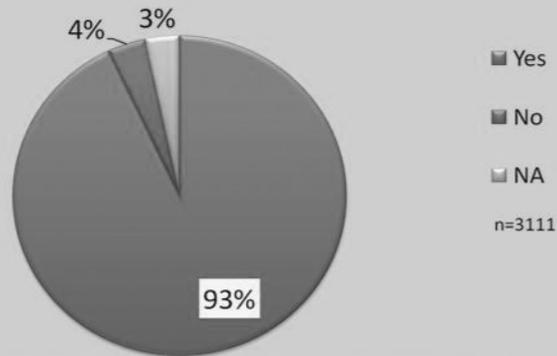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매우 적다

세금 공제율=
최소값(급여의 40%, 기부금액)
-5000엔

- 이와 같은 세금 정책은 납세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대부분의 자선기부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소액 모금이다. (세금혜택없음)
- 미국과 달리 "기부값 ≠ (1-한계세율)"

일본인의 3.7%만이 소득 공제를 신청한다!

Q. Did you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 charitable donations?



Source: Th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15

일본인의 기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기부와 자원봉사간의 동시방정식 모형

$$\begin{cases} GIVE^* = \gamma_1 VOLR^* + \beta_1' X_1 + \varepsilon_1, \\ VOLR^* = \beta_2' X_2 + \varepsilon_2, \end{cases}$$

$$[\varepsilon_1, \varepsilon_2] \sim \text{bivariate normal}[0,0,1,1, \rho], -1 < \rho < 1$$

where $VOLR = 1$ if $VOLR^* > 0$, 0 otherwise

$GIVE = 1$ if $GIVE^* > 0$, 0 otherwise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위 계량경제학적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전체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영어). <http://tukuoka.cool.ne.jp/yoshiho/GIVEVOLR.pdf>

17

빈곤층보다 부자들의 기부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



Source: Th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16

데이터: JGSS 2005

- (a) Sample Area : Nationwide
- (b) Sample population : men and women 20-89 years of age living in Japan
- (c) Sample size : 4,500
- (d) Sampling method : Two-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stratified by regional block and population size
- (e) Number of survey points : 307
- (f) Number of samples at each survey point : 15
- (g) Number of respondents contacted: 4,500
- (h) Number of valid responses: 2,023
- (i) Number of no responses or invalid responses: 2,477
- (j) Response rate: 50.5%

이 데이터의 출처는 JGSS (일본종합사회조사) 2005이다. JGSS는 GSS를 모 델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연구소(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다. 참고로, 한국의 종합사회조사인 KGSS(한국종합사회조사)도 있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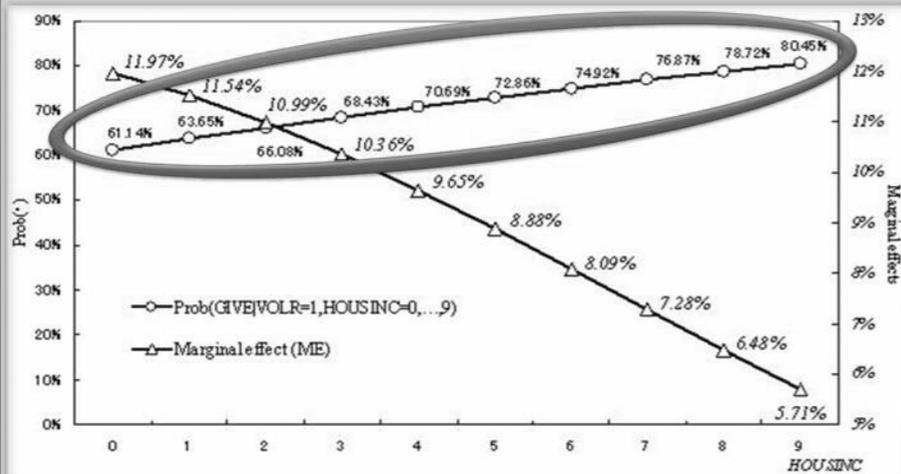
사람들의 기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2-

☑ 종교인의 기부 가능성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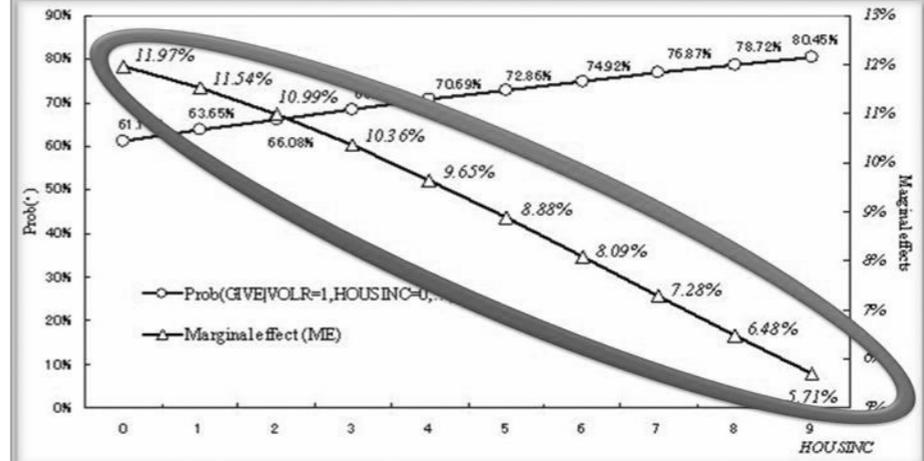
☑ 아동 교육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부 가능성이 더 낮다.

☑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부 가능성이 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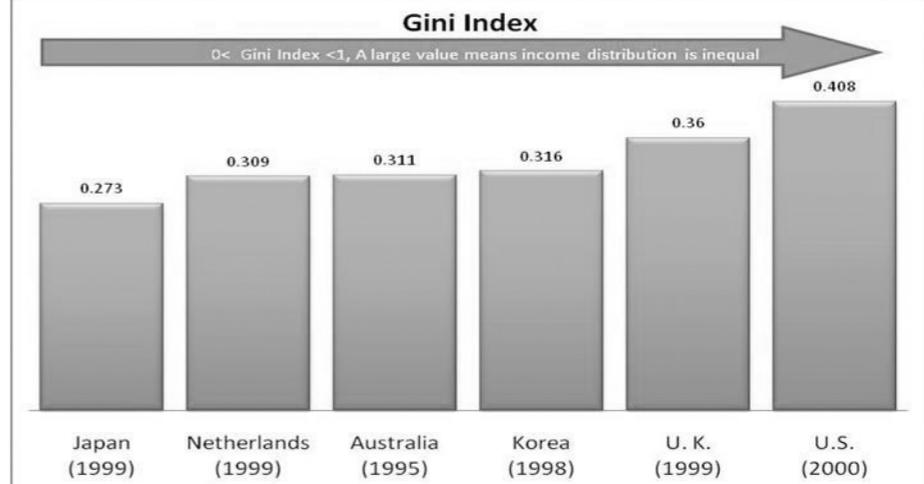
☑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기부 가능성이 더 높다.



☑ 부유한 자원봉사자보다 가난한 자원봉사자가 기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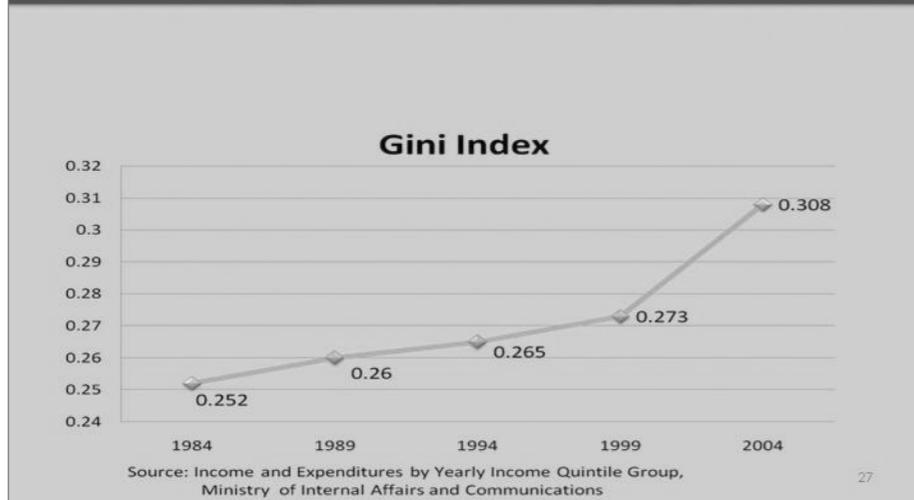


일본의 지니 지수(Gini Index)는 매우 낮다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출처: 2007/2008 UNDP 인간개발지수
일본 내무통신성의 연소득 5분위수 집단에 의한 소득 및 지출 비교

일본의 지니 지수(Gini index)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the Netherlands

결론

☑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정부의 세제 정책보다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기부를 통해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원봉사자가 기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면, 일본 정부는 현행 세제를 개혁하여 국민들의 자선 기부와 자원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비영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덜란드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the Netherlands

테오 슈이츠 | Theo Schuyt
 Professor of Philanthropic Studies
 VU University, Amsterdam

테오 슈이츠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의 기부학과 교수이다.
 그는 1993년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에서 네덜란드의
 기부 현황에 관한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네덜란드인의 자선적 기부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인
 Geven in Nederland를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의 연구 영역은 네덜란드에서 그치지 않고
 벨기에,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으로도 열려 있어서, 유럽의 기부 연구 조사 프로젝트인
 Giving Europe Project를 맡아 이끌고 있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기부문화
 테오 슈이츠 교수
 VU 대학교, 암스테르담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2008년 12월 3일

VU University amsterdam
 De Boelelaan 1081
 1081 HV Amsterdam
 The Netherlands

FSW/기부학과
 www.giving.nl
 gin@fsw.vu.nl

목차

1. 네덜란드의 가계기부 동향
2. 수혜 단체
3. 기부 동기
4. 기부 문화: 책임감과 프로테스탄트 윤리
5. 자선활동 척도
6. 네덜란드의 기부 총계
7. 기부 관련 현안

December 3, 2008

2



2005년 가계 기부 총계: 18억 유로

백만 유로	2005	2003	2001	1999	1997	1995
가계	1,854	1,899	1,788	1,414	1,121	1,419

2005년, GDP의 약 0.35%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5년 기부금 수혜 영역

백만 유로	현금 및 현물	%
종교	704	38
보건	234	13
국제구호	439	24
환경/자연/동물	158	9
교육/연구	33	2
문화	31	2
스포츠/여가	29	2
공익 및 사회익 이익	166	9
기타	61	3
총계	1,854	100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가구당 평균 기부액

- 2005년도 가구당 평균 기부액은 € 310
-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기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기부 동기

베커스와 워킹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부 동기가 있다.

1. 필요성의 인식
2. 기부 요청을 받음
3. 비용과 혜택
4. 이타주의
5. 명성
6. 심리적 만족감
7. 가치
8. 효과

(베커스 및 워킹 2007)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기부 동기

2007년도 네덜란드 기부문화 (GIN) 설문조사 결과: 사회구조적 특징이 가계 기부에 영향을 끼친다.

1. 종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종교인
2. 고등교육 수혜자
3. 고소득자
4. 고령자
5. 소도시 거주자
6. 자녀 부양자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자선활동 척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사회적, 생태학적 복지와 관련하여 개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시간 또는 돈을 기부함으로써 그것을 위해 행동할) 준비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네덜란드의 기부 문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책임감

자선기부의 목적은 사회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3가지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사회적 기능
 - 사회화: 교육, 복지 서비스, 공익, 국제 구호
- 세대간 기능
 - 보건: 보건 및 의료 연구
 - 문화: 예술/문화/인문, 종교, 스포츠
- 생태적 기능
 - 환경, 야생농식물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자선활동 척도

응답 항목: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전적으로 동의한다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자선활동 척도

1.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 나와 무관한 대의를 지지하기는 힘들다.
3.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
4. 지구 온난화 문제는 과장된 것이다.
5. 세계는 지금 책임감 있는 시민을 요구한다.

December 3, 2008

11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자선활동 척도

6. 내일 일은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된다.
7. 자선 및 공익 활동은 시민과 기업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8.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이다.
9.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0. 나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자선적 태도가 결여됨을 의미한다.

December 3, 2008

12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네덜란드의 기부 총계

기부자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개인 / 가계
- 유증
- 재단
- 기업
- 기부 복권

December 3, 2008

13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5년 주요 기부자 영역

가계(현금 및 현물)	1,854 백만	42%
유증	182 백만	4%
재단: 모금 재단	159 백만	4%
기금 재단	272 백만	6%
기업(기부 및 스폰서)	1,513 백만	35%
기부 복권	396 백만	9%
총계	4,376 백만	100%

December 3, 2008

14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5년 기부금 수혜대상

	백만 유로	%
종교	773	18
국제 구호	742	17
스포츠 및 여가	686	16
공익/사회적 이익	522	12
보건	477	11
환경, 자연, 동물	356	8
문화	326	7
교육 및 연구	277	6
기타	220	5



현안

- 자선 영역의 성장
- 전문성
- 다민족사회에서의 기부
- 사회봉사 클럽

December 3, 2008

17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GDP 비율로 본 기부

	2005	2003	2001	1999	1997	1995
	백만 유로					
GDP	506,000	454,000	429,000	372,000	322,300	288,000
추정 기부 총액	4,376	4,924	3,615	3,422	2,163	2,279
GDP 비율(%)로 본 기부	0.9%	1.1%	0.8%	0.9%	0.7%	0.8%

December 3, 2008

16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현안

- 기부와 복지 국가
- 전(前) 복지국가
- 복지 국가의 패러다임
- 기부와 권력
- 경로 의존성
- 영국의 콤팩트(Compact)

December 3, 2008

1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영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the UK





영국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in the UK

리차드 해리슨 | Richard Harrison
Director of Research and Insight
Charities Aid Foundation

리차드 해리슨은 영국 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이하 CAF)의 연구 및 기획 책임자이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 기부에 관한 각 나라의 연구조사 결과와 핵심 정보들을 제공한다.

CAF에서는 2006년 전 세계 기부현황 비교 보고서인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을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1991년부터 연구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정성 연구 및 정량 연구 기법의 전문가이며

CAF에서 활동하기 이전 10년 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리서치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영국의 기부문화

리차드 해리슨, CAF
2008년 12월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오늘의 의제

- 1) 영국의 기부문화
- 2) 주요 통계
- 3) 미래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1) 문화

- ■ ■ 역사
- ■ ■ 기부 문화
- ■ ■ 인식
- ■ ■ 동향
- ■ ■ 기부 동기

CAF

■■■ charities aid foundation

영국 기부 문화의 역사

- 16세기 이전
 -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이 참여
- 1601: 자선행위법 제정
- 19세기
 - 산업혁명
 - '도덕적 의무감'
 - 런던에만 이미 700개의 자선단체 존재
- 20-21세기
 - 통조림에서 인터넷으로








→


영국의 기부 문화: 우리는 관대한 사회라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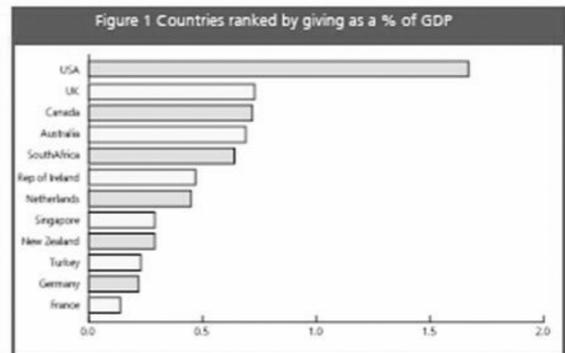


Figure 1 Countries ranked by giving as a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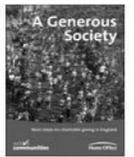
USA	1.7
UK	0.8
Canada	0.7
Australia	0.7
South Africa	0.6
Rep of Ireland	0.5
Netherlands	0.5
Singapore	0.4
New Zealand	0.4
Turkey	0.3
Germany	0.3
France	0.2

CAF

■■■ charities aid foundation

영국의 기부 문화: '새로운' 기부자들의 등장

- 자랑스러운 역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
 - 15년간의 경제 성장
 - 새로운 자선사업가들 / 자선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
 - 산업가들의 시대 반영
 - 디지털 기회
 - 사회적 네트워킹
 - 온라인의 활용
 - 현금 의존도 감소
 - '환경' 문제와의 시너지: '새로운' 기부자(KPI, 효율성)

CabinetOffice

CAF

■■■ charities aid foundation

영국의 기부 문화: 자선기관들의 진화

- 자선기관
 - 160,000개
 - £250억 이상의 수익
 - 서비스 제공으로 가속화
 - 50/50 수입
 - 공익성
- 자선기관 외의 기관들도 다수 존재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이익기업, 여가시설, 주택조합, 다문화/다인종 단체 등

□ 정부 □ 비정부/사익영역

CAF

자선기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며,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Charities

2008 Mean Scores

Doctors	7.5
Police	7.0
Charities	6.6
Social Services	5.9
Ordinary man/woman in the street	5.5
Banks	5.5
Private companies	4.9
Your local Council	4.8
MPs	4.1
Government Ministers	3.9
Newspapers	3.9

Base: All respondents - 2008 (1,008) Source: Ipsos MORI

CAF

영국인의 50%가 기부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이 보다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Outsourcing CSR mainly outside of interest	10%
Interest in outsourcing CSR	12%
Larger charities partner ships, better fit	14%
Simply admin of CI programme	22%
Obtain more clarity to	28%
CI impact on profitability	29%
Measure impact of CI	39%
We would like to see more focus on supporting local charities	47%
We see CI as an area of increasing importance for us	50%
Our CI objectives are aligned with our business objectives	51%
CI importance increasing as a whole	53%
CI positive impact on charity capabilities	54%
CI Programme impacts loyalty of employees	57%

CAF

기부 동기

...감정적 측면 개입

- 이타주의 (도덕적으로 옳은 일)
- 믿음 (종교적 의무감)
- 원가를 올려준다는 생각 (나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대의를 지원)
- 개인적인 만족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
- 가족 중심 (가족의 전통/유산으로 남겨주자 함)
- 비즈니스 중심

CAF

기부 동기

“우린 정말 운이 좋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AF 기부자-

“기부를 하는 만족감이 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생각도 들고, 만족감이 크다.”
-CAF 기부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데, 내가 애써 모은 돈을 국세청에서 다 가져가길 원치 않는다. 사실 국세청엔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 내가 기부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AF 기부자-

“나는 재정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어디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도 많이 생각한다. 빈곤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CAF 기부자-

“나는 장기적이거나 전략적인 기부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기부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생활에 별로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CAF 기부자-

■■■ charities aid foundation ■■■ **CAF**

2) 주요 통계

■■■ 금액
■■■ 정기성
■■■ GDP 대비 비율
■■■ 수혜 대상

■■■ charities aid foundation ■■■ **CAF**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대중은 연간 약 £100억을 기부한다

Figure 1. Estimated total annual amount donated, 2004/05 – 2006/07

Year	Adjusted for inflation	Not adjusted for inflation
2004/05	8.7	8.2
2005/06	9.7	9.4
2006/07	9.5	9.5

■■■ charities aid foundation ■■■ **CAF**

여성 기부자의 수가 더 많으나, 고액 기부자는 여전히 대개 남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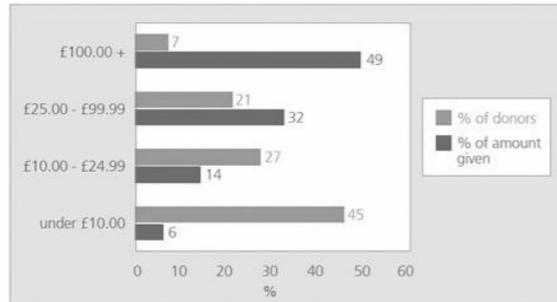
Table 1. Changing giving patterns, by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group

	Proportion giving to charity, %		
	2004/05	2005/06	2006/07
Gender ¹¹			
Men	52	53	48
Women	62	60	59
Age Group			
16 – 24	44	43	41
25 – 44	58	62	56
45 – 64	57	60	59
65 +	51	53	52

■■■ charities aid foundation ■■■ **CAF**

기부자의 28%가 총 기부금의 80%를 낸다

Figure 2: Share of donor population and total amount given in past four weeks, by gift size 20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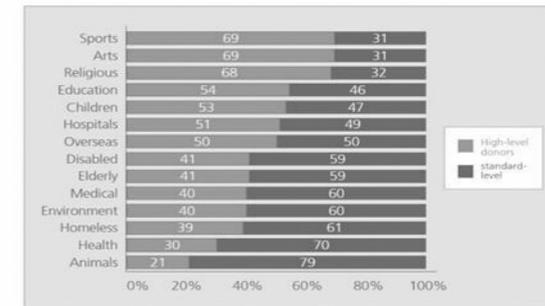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부유층의 기부 대상은 다르다

Figure 9: Share of total amount given to different causes in 2005/06 and 2006/07, by high-level donors and standard-level donors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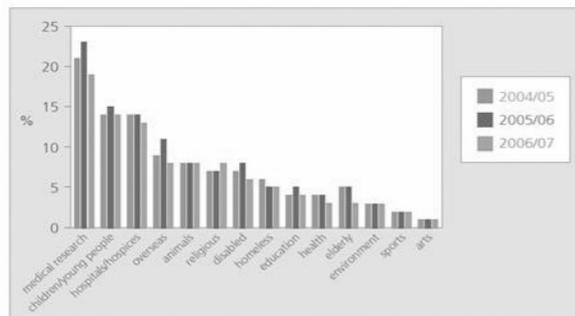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누가 받는가? 의료 연구, 아동, 병원, 해외 원조

Figure 7: Percentage giving by cause, 2004/05 - 2006/07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3) 미래

경기침체와 세금 사회적 전사(Social Warrior)의 등장?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미래: 새로운 유형의 기부

1. 자선기관: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방법
 - 리스크가 있는 자본 및 준자본(quasi-equity)
2. 기부자: 보다 전략적, 보다 참여적으로
3. 현 서비스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공략
 - 정부 자원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
4. 사회적 투자자(social investor)의 성장
5. 사회적 효과, 책임성, 투명성에 집중

미래: 그리고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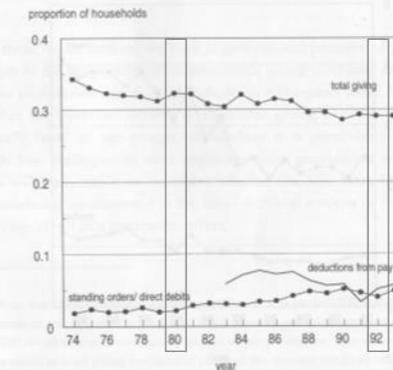
- 고액 납세자
 - 그리고 새 정부
- 상속세
 - 효과적인 변화
- 유증
 - 낙관론
 - 베이비붐 세대들은 생전 유증(lifetime legacies)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비관론
 -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지도 ...



지난 경기침체 기간 중에는 기부에 큰 영향이 없었다

Figure 3.1. Proportion of households giving to charity, 1974 to 1993-94



점음: 언제나 낙관할 수 있는 이유

	총계	나이				
		18-24	25-34	35-44	45-54	55-64
기부자						
카드 사용의 2%를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47%	63%	56%	45%	48%	36%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를 쉽게 도와주는 새로운 사용자 중심 웹사이트	38%	62%	46%	37%	35%	28%
자신이 선택한 자선기관으로 이용이 돌아가는 온라인 은행 계좌	38%	54%	46%	38%	38%	27%
문자 메시지로 기부할 수 있는 기능	22%	58%	35%	23%	15%	7%
텔레뱅킹이 가능한 온라인 은행 계좌	20%	30%	30%	21%	17%	13%
유선 서비스	19%	38%	20%	20%	18%	12%
개인 선택 기금	13%	29%	16%	14%	12%	6%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토론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3

부록

부록 1
2008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부록 2
Giving Index 설문지
부록 3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_ Chul Hee Kang
부록 4
Giving USA _ Melissa S. Brown
부록 5
Giving in Australia _ Kym Madden
부록 6
Giving Japan _ Yoshiho Matsunaga
부록 7
Giving in the Netherlands _ Theo Schuyt
부록 8
Giving in the UK _ Richard Harrison

2008 유한김벌리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2008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제 1 장. 조사개요	147
1. 조사의 목적	147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147
3. 표본추출방법	148
4. 응답자 특성표	149
5. 통계표 보는 법	151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52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59
1. 자원봉사활동	160
1) 2007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2)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3) 2007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4) 2007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여부	
5)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6) 2007년 자원봉사활동 방법	
2. 기부	169
1) 2007년 기부 참여	
1-1. 2007년 기부처	
1-2. 2007년 기부 금액	
1-3. 2007년 정기적 기부 여부	
1-4.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인지 경로	
1-5.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	
2) 기부의 내적 동기	
3) 기부의 외적 요인	
4) 가장 큰 기부 회피 이유	
5)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향	
6)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7)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8) 기부 금품 회망 사용 분야
 9) 기부 금품의 회망 사용 단위

3. 유산 기부 194
 1) 유산기부 의향

4. 나눔 교육 195
 1) 학생 시절 나눔 교육 / 실천 경험 여부
 2) 나눔교육 책임

5. 인터넷 온라인 기부 197
 1)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여부
 2)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
 3)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
 4)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

6. 기부문화 201
 1) 우리 사회 기부문화 평가:
 수년전 대비 우리 사회 / 본인 기부 증가
 2)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 [부록] 조사 통계표

◎ [부록] 조사 설문지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모색 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 1,016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방법	• 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추출법 -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 - 응답자 선정 → '3절. 표본추출방법' 에서 별도 설명
조사기간	• 2008년 6월 16일(월) ~ 7월 20일(일)
조사기관	• (주)리서치 앤 리서치 (R&R: 대표 노규형)

3. 표본추출방법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

◎지역별 층화

전국을 7개 광역시와 8개 도(제주도 제외)로 나누고, 도는 다시 시, 읍, 면으로 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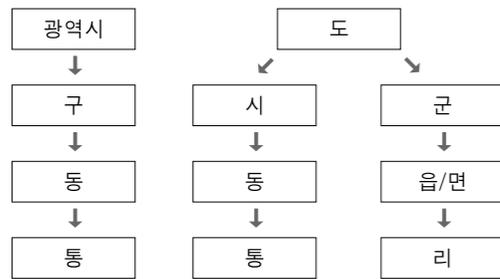
◎인구수 비례 할당

층화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 지역 당 조사지점(sampling point)의 수 계산
(조사지점당 10명 조사 원칙).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지점인 통/리를 무작위로 선정

→ 이러한 과정은 R&R Sampler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



◎직업별 할당

- 2007년 12월 인구통계, 2006년 3/4 분기 고용동향분석(노동부)를 참고하여 직업별 비례에 맞게 조사 진행.
- 이는 재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업주부 등 일부 직업군의 과다 추출을 방지하기 위함임.

직업	%
농림어업	5
자영업	15
블루칼라	20
화이트칼라	20
전업주부	25
학생	5
무직/기타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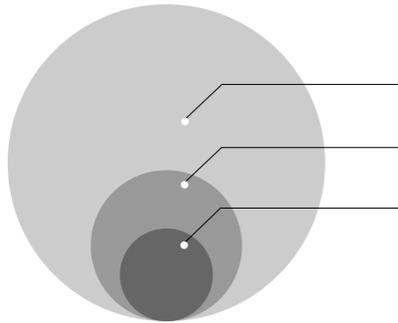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최종 응답자는 조사지점에서 성별·연령대별 인구비례 층화할당을 통해 선정.

4. 응답자 특성표

전 체		사례수	%
		1,016	100.0%
성 별	남자	497	48.9%
	여자	519	51.1%
연 령	20대	211	20.8%
	30대	233	22.9%
	40대	232	22.8%
	50대 이상	340	33.5%
학 령	중졸 이하	139	13.8%
	고졸	460	45.7%
	대재 이상	408	40.5%
직 업	농/임/어업	51	5.0%
	자영업	156	15.4%
	블루칼라	201	19.8%
	화이트칼라	202	19.9%
	주부	256	25.2%
	학생	54	5.3%
	무직/ 기타	96	9.4%
거 주 지	서울	220	21.7%
	인천/경기	255	25.1%
	부산/울산/경남	98	9.6%
	대구/경북	135	13.3%
	광주/전라	109	10.7%
	대전/충청	165	16.2%
	강원	34	3.3%
개 인 소 득	49만원 이하	12	1.9%
	50~99만원	44	6.9%
	100~199만원	240	37.5%
	200만원 이상	344	53.8%
가 구 소 득	99만원 이하	22	2.2%
	100~199만원	96	9.7%
	200~299만원	243	24.6%
	300만원 이상	628	63.5%
가 구 원 수	1명	42	4.1%
	2명	125	12.3%
	3명	210	20.7%
	4명	501	49.3%
	5명 이상	138	13.6%
경 제 활 동 인 구	1명	465	46.8%
	2명	414	41.7%
	3명	84	8.5%
	4명	25	2.5%
	5명 이상	5	0.5%
거 주 지 구 모	대도시	481	47.3%
	중소도시	344	33.9%
	군지역	191	18.8%
결 혼 상 태	미혼	245	24.1%
	기혼	737	72.6%
	이혼/사별	33	3.3%
종 교	기독교	224	22.2%
	천주교	68	6.7%
	불교	226	22.4%
	무교	491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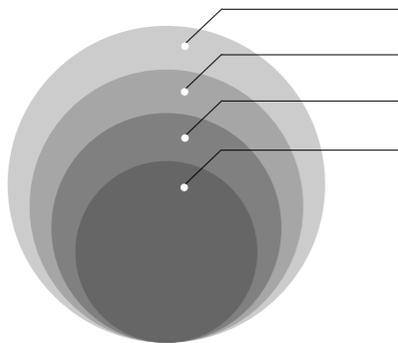
※ 자원봉사처 구분에 따른 자원봉사자 구성



- 전체 응답자 : 1016샘플
- 포괄(순수+종교위한) 자원봉사자 : 202샘플
- 순수 자원봉사자 : 160샘플

본 연구에서는 순수 자원봉사자(N=160)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포괄 자원봉사자 및 전체 응답자의 수치도 비교 분석함.

※ 기부처 구분에 따른 기부자 구성



- 전체 응답자 : 1016샘플
- 포괄(순수+경조사+헌금/보시) 기부자 : 849샘플
-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 811샘플
- 순수 기부자 : 559샘플

본 연구에서는 경조사와 헌금/보시를 제외한 순수 기부자(N=559)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경조사 포함 기부자 또는 포괄 기부자 및 전체 응답자의 수치도 비교 분석함.

5. 통계표 보는 법

◎ 유의성 검사 프로그램 활용

□ 집단 간 차이를 테이블 상에 제시 → 테이블 활용의 극대화 추구

표 2 | A&S 사용 관리성, 즉 사용결과 등의 관리성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례수	단독도 (%)	만족도 (%)	필수불만	불만족스런	보통	만족스런	매우만족
			(%)	점	점	점	점	점
전체	[500]	61.88	52.5	2.2	14.5	30.8	33.7	13.8
순수 자원봉사자	[202]	61.13	48.0	3.0	10.5	38.5	35.0	13.0
포괄 자원봉사자	[100]	61.50	52.0	4.0	14.0	30.0	35.0	15.0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100]	61.50	53.0	2.0	14.0	31.0	42.0	11.0
순수 기부자	[100]	60.75	53.0	1.0	20.0	25.0	41.0	12.0
헌금/보시만 기부자	[100]	65.25	61.0	0	18.0	21.0	43.0	18.0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295]	62.42	53.4	1.7	14.9	30.1	35.9	14.5
순수 기부자	[304]	61.35	51.5	2.5	14.1	31.6	33.5	13.2
1.0 이하	[89]	73.03	74.2	1.1	6.7	18.0	47.2	27.0
2.0 이하	[345]	62.25	51.6	1.4	12.2	34.8	39.1	12.5
3.0 이하	[107]	58.13	45.8	3.7	19.6	30.8	31.8	14.0
4.0 이상	[59]	45.53	37.3	5.1	30.5	27.1	35.6	1.7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300]	60.25	50.0	3.0	14.3	32.3	33.0	12.0
순수 기부자	[300]	60.50	55.0	1.0	14.7	29.3	33.3	15.7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43]	57.55	51.2	7.0	16.3	25.6	41.9	3.3
순수 기부자	[178]	60.39	51.1	3.4	18.0	27.5	35.0	15.2
헌금/보시만 기부자	[87]	63.79	51.7	0	13.8	34.5	34.5	17.2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38]	64.47	55.3	0	13.2	31.6	39.5	15.8
순수 기부자	[193]	62.94	54.8	1.5	12.6	31.2	42.2	12.5
헌금/보시만 기부자	[35]	60.25	46.2	0	10.3	43.6	41.0	5.1
경조사 포함 순수 기부자	[16]	64.06	56.3	6.3	12.5	25.0	31.3	25.0

□ 데이터 테이블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상대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소홀함이 있음. 그 주된 이유는 제시된 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 뿐만 아니라 산술적 차이마저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F&FJ 개발한 유의성 검사 프로그램은 각각의 비율(%) 자료와 평균치(Mean), 표본수 등을 이용, 나머지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Output에 표기함

해석방법
 ▲ / ▼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 / ↓ : 0.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조사결과 요약

1. 2007년 자원봉사활동

- ◎ 순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15.8%에 불과한 반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1%로 높게 나타남.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19.9%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3년 16.8%에서 2005년 24.7%로 7.9%p 증가하였으나, 2007년 15.8%로 2005년 대비 8.9%p 하락하였음.
-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중복응답에서, '자선단체' (36.9%) 및 '공공기관/지역사회' (29.4%)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12.5%, '교육기관' 10.6%, '환경보호' 9.4%, '이웃'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의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2005년까지 40시간 전후였고, 2007년 52.1시간으로 2005년 대비 13.3시간 증가하였음.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2003년 7.4시간에서 2005년 9.6시간으로 2.2시간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엔 8.2시간으로 2005년에 비해 1.4시간 감소하였음.
-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처별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이 78.8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자선단체 49.5시간, 교육기관 44.0시간, 공공기관/지역사회 43.1시간,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35.6시간, 지인(가족 제외) 18.8시간, 환경보호 17.9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에 대해 '정기적'이라는 응답이 39.5%(매주: 9.4% + 매달: 16.3% + 매분기: 13.8%)로 나타난 반면,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음. 무응답은 3.6%였음. 2007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은 2005년 대비 6.9%p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처를 인지하는 경로에 대해, '시설/단체의 직접홍보' (25.6%) 및 '지인' (2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모임' 16.3%, '직장' 8.8%, '종교단체' 8.1%, '가족' 5.6%, '대중매체' 5.0%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6.3%였음.
-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처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방법에 대해, '단순노력봉사' (85.6%)를 가장 많이 꼽았음. '전문노력봉사'는 4.4%에 불과하였으며, '두 방식 모두'라는 응답은 1.3%였음. 무응답은 8.8%였음.

2. 2007년 기부

- ◎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하여 순수기부자는 전체의 55.0%로 나타나, 2005년 조사에 비해 13.6%p 낮아졌음. 한편, 경조사와 현금보시까지 포함한 포괄기부는 83.5%였음.
- ◎ 순수 기부자(N=559)의 기부처(중복응답)는 '자선단체'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랑자' 19.7%,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16.5%, '가족 외 지인' 9.5%, '해외구호' 9.3%, '공공기관/지역사회' 6.8% 등의 순이었음. 한편, 경조사비 기부자 및 현금/보시 기부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부자(N=849) 기준으로 본다면, '경조사비'는 79.7%였으며, '현금/보시'는 30.7%였음.

- ◎ 2007년 경조사비 기부 참여율(N=1,016)은 66.7%로 2005년에 비해 7.5%p 감소하였음. 종교기부 참여율의 경우 25.7%로 2005년에 비해 4.0%p 감소하였음.
- ◎ 2007년도 순수 기부액 평균은 19.9만원(N=559)으로 나타남. 이를 국민 전체(N=1016)의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9만원임. 순수 기부액을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5년에 비해 9.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기부액은 3.9만원 증가하였음. 경조사를 포함한 평균 기부액은 68.6만원(N=811), 현금/보시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의 평균은 93.4만원(N=849)임.
- ◎ 순수, 경조사, 현금/보시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기부 금액은 현금/보시가 90.6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경조사비 65.8만원, 가족 외 지인 48.1만원,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32.4만원, 정치단체 24.8만원, 해외구호 13.9만원, 교육기관 12.7만원, 환경보호 12.4만원, 자선단체 8.4만원, 의료기관 6.3만원, 공공기관/지역사회 6.1만원, 문화예술 5.5만원, 부랑자 2.3만원, 기타 13.9만원으로 나타났음.
- ◎ 종교현금, 경조사비를 제외한 순수 자선기부 의향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2.13%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 ◎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은 자선단체가 30.29%,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6.88%, 지인 22.96% 등 3개 기부처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구호 6.50%, 정치단체 3.13%, 부랑자 2.29%, 공공기관 2.10%, 교육기관 1.37%, 환경보호 0.67%, 의료기관 0.23%, 문화예술 0.20%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경조사비와 현금/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 중에서 순수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였음.
- ◎ 경조사비와 현금/보시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5년 대비 경조사비는 13.4만원이 증가하였고, 현금/보시는 39.9만원이 증가하였음.
- ◎ 순수 기부자(N=559)들은 정기적 기부 여부에 대해 '정기적'이라는 응답이 16.6%(매주: 0.5% + 매달: 12.2% + 매분기: 3.9%)인 반면,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80.4%로 나타남. 무응답은 3.0%였음. 연도별로 볼 때 2003년 이후 정기적 기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처를 인지한 경로에 대해, '대중매체'라는 응답(27.9%)과 '시설의 직접홍보'라는 응답(25.2%)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가족' 9.5%, '지인' 9.3%, '종교단체' 6.6%, '개인적 모임' 4.7%, '직장' 3.0%, '인터넷' 0.9%의 순이었음. 모르겠다는 응답도 12.9%였음.
-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기부처의 기부 방법에 대해,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ARS 전화' 22.2%, '지로 납부' 16.3%, 'CMS 자동이체' 6.3%, '온라인' 3.6%, '급여공제' 1.3%, '쌀기부' 0.2%의 순이었고, 무응답은 7.5%였음.
-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기부의 내적 동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26.8%,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이 24.7%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심' 20.8%, '개인적 행복감' 15.9%, '종교적 신념' 10.7%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0.2%, 없음/무응답은 0.9%였음. 2005년 대비, '동정심'은 13.9%p 낮아진 반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는 6.4%p 높아졌음.
-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기부의 외적 요인에 대해, '요청받는 경우'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23.4%, '주변에서 하기 때문' 17.4%, '경제적 여유' 8.9%, '세제 혜택' 2.5%의 순이었음.
- ◎ 기부 경험이 없는 국민 중(N=207) 가장 큰 기부 회피 이유에 대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미래의 자신의 상황 모름' 22.2%, '기부대상 불신' 14.5%, '직접요청이 없음' 12.1%, '기부가 책임 아님' 7.7%, '방법 모름' 2.9%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0.5%였음.
- ◎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6.3%로 '없다'는 응답 29.1%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음. 무응답은 4.5%였음. 한편, 순수 기부자(N=559) 중에서는 기부 의향이 85.2%로서 18.9%p 더 높게 나타남.
- ◎ 연도별 기부 의향의 경우 2005년 '있다'는 응답이 75.4%인 것에 비해 9.1%p 낮아졌음.

◎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 문항 중, '기부요청처의 신뢰성'의 100점 환산 점수는 75.4점, '기부대상/분야'는 75.1점, '기부금선택 용이성'은 75.0점으로, '사회적 개선효과' 68.3점과 '기부방법의 간편성' 68.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국민들의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문항 중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의 100점 환산 점수가 77.0점, '지원대상 및 분야'는 74.5점, '사회적 개선효과'는 72.2점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지도' 65.7점,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 65.5점, '기부자에 대한 혜택' 57.4점의 순이었음.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은 2003, 2005년에도 가장 많이 고려된 요소였음.

◎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중복응답)에 대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의료분야' 38.2%, '지역사회 발전 지원' 32.8%, '교육/연구활동' 18.7%, '환경/동물보호' 14.9%, '해외구호' 9.5%, '문화예술'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들에게 복지 분야에 한정하여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를 질문한 결과 '아동복지'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노인복지' 21.8%, '빈곤가구 지원' 18.4%, '장애인복지' 17.9%, '청소년복지' 5.9%, '여성복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단위에 대해 '거주지역사회 문제'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국내사회 문제' 29.5%, '연고있는 공동체 문제' 11.0%, '국제사회 문제'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0.2%였음.

3. 2007년 유산 기부

◎ 유산기부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19.2%로, '없다'는 응답 67.6%에 비해 낮았음.

◎ 2005년에 비해서 유산 기부 의향을 적극 표시한 사람은 줄어들고, 무응답이 5.5%에서 13.2%로 7.7%p 늘어났음.

◎ 전체 유산 중 기부 가능 정도에 대해 평균적으로 전체 재산의 28.8%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4. 2007년 나눔 교육

◎ 학생 시절 나눔교육 실천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국민들(N=896)은 학생시절 나눔교육 실천 경험 여부 중 '개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물질로 도운적이 있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부모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 66.0%, '학교 및 단체 등에서 나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63.1%, '부모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행위를 본 적이 있다' 57.9%, '학교를 통한 의무적 봉사활동/기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5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나눔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 '나눔교육이 부모/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의 100점 환산 점수가 70.2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눔교육은 학교의 책임' 68.4점, '나눔실천 강조는 언론의 책임' 67.6점, '나눔실천 강조는 공동체 책임' 66.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인터넷 온라인 기부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6%, '없다'는 응답은 97.4%로 아직까지 인터넷 온라인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이 있는 국민들(N=26)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에 대해 '절차/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5.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소액기부 가능' 34.6%, '다양한 결제수단' 19.2%, '기부내역 투명성' 3.8%, '폭넓은 기부처' 3.8%의 순이었음. 무응답은 3.8%였음.

◎ 인터넷 경험 후 변화가 하나라도 있는 국민들(N=21)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에 대해 '더 많이 기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9.0%, '더 자주 기부하게 되었다'

는 응답은 38.1%, '향후 계속 기부' 라는 응답은 100.0%로 나타났다.

-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이 없는 국민들(N=990)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회가 없음' 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인터넷 기부처 불신' 25.4%, '기존방식 익숙' 17.3%, '개인정보 유출 위협'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기부 문화

- ◎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평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특히 '수 년 전 대비 우리 사회 기부가 활성화되었다' 는 평가가 100점 환산 점수 6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 년 전 대비 본인 기부가 증가하였다' 는 응답은 51.3점 정도였음.
- ◎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나눔교육 활성화' 라는 응답(25.2%) 및 '모범적 기부 증대' 라는 응답(23.4%)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NPO의 투명성' 19.6%, '제도적 지원 강화' 16.1%, '기부방법 다양화' 9.4%, 'NPO 기부노력' 3.1% '기부 마인드 제고' 3.1%의 순이었음. 무응답은 0.2%였음.(NPO : 비영리기구)
- ◎ 국민들의 각 시설/기관/단체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100점 환산 점수로 자선단체의 신뢰도가 70.0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 교육기관 60.1점, 사회복지 59.5점, 시민단체 57.9점, 의료기관 56.4점, 문화예술단체 52.3점, 종교기관 52.1점, 언론기관 49.0점, 사법기관 46.6점, 지방정부 43.6점 등의 순이었음.
- ◎ 각 시설/기관/단체의 신뢰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8개 단체 중에서는 자선단체,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단체, 언론기관은 정체되어 있고, 종교기관은 오히려 하락하였음.
- ◎ 하위 8개 단체 중에서는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였고,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소폭 상승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뢰도는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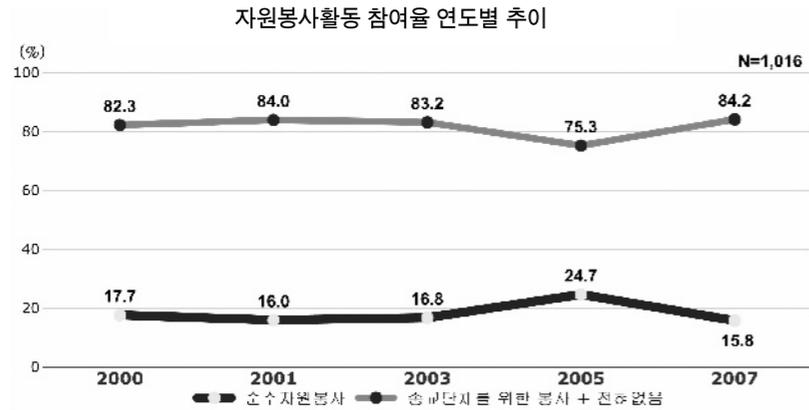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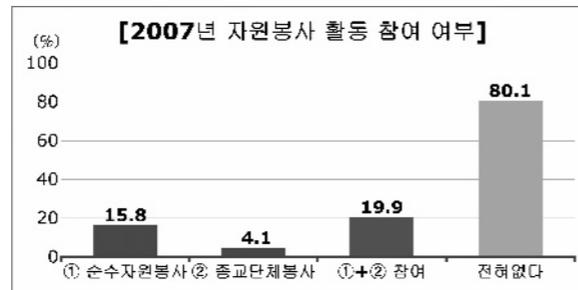
1. 자원봉사활동

1) 2007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순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15.8%에 불과한 반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1%로 높게 나타남.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19.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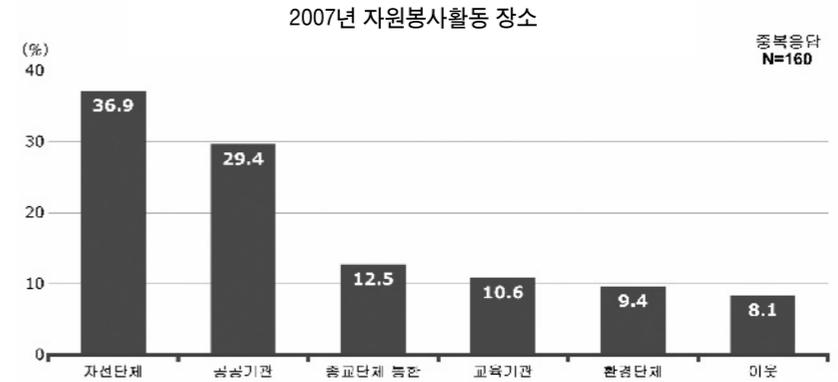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3년 16.8%에서 2005년 24.7%로 7.9%p 증가하였으나, 2007년 15.8%로 2005년 대비 8.9%p 하락하였음.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대(20.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19.6%), 경제활동 인구 2명 가구(1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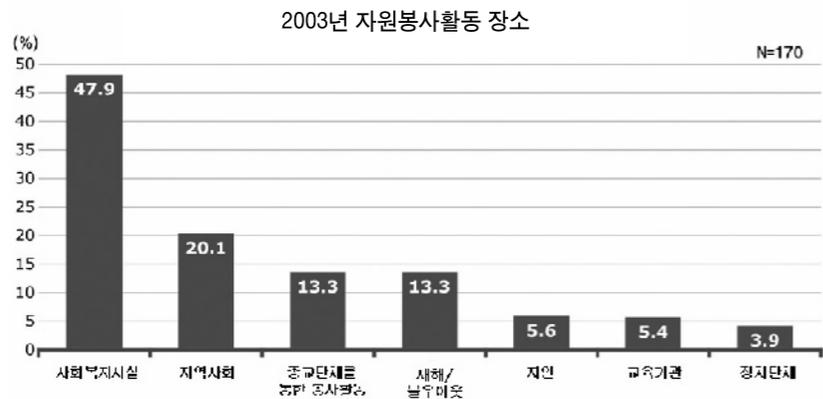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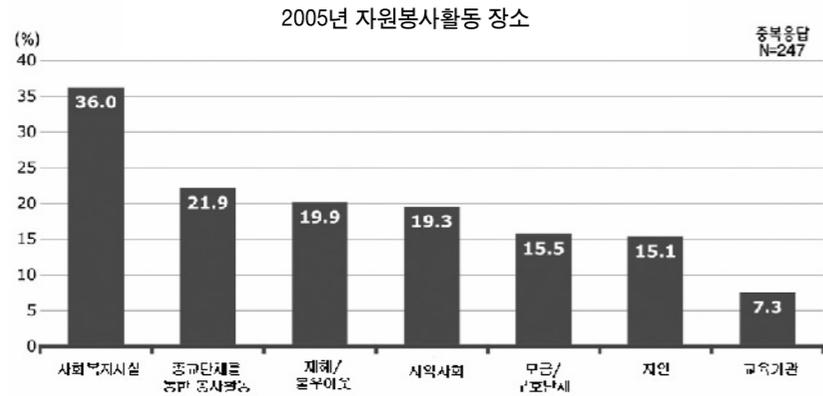
2)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시요. (중복응답)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중복응답에서, '자선단체' (36.9%) 및 '공공기관/지역사회' (29.4%)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12.5%, '교육기관' 10.6%, '환경보호' 9.4%, '이웃'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 활동처	%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30.2	문화/예술 단체	4.0
자선단체	29.2	의료기관	3.5
공공기관/지역사회	23.3	부랑자	2.5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9.9	해외구호	2.0
교육기관	8.4	정치단체	2.0
환경보호	7.4	기타	4.5
이웃	6.4	※ 표 안은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N=202)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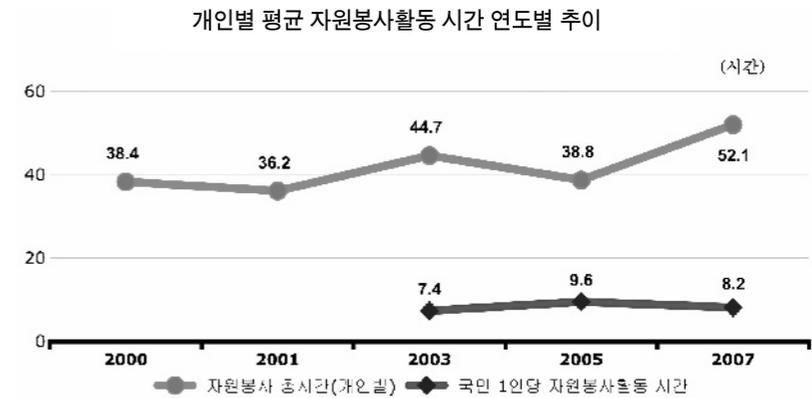
◎ 2005년 자원봉사활동 장소는 사회복지 시설이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교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21.9%, 재해/불우이웃 19.9% 등으로 나타났음.

◎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단수응답)는 사회복지시설이 4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20.1%,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13.3%, 재해/불우이웃 13.3% 등으로 나타났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에서 수정(문항 보기)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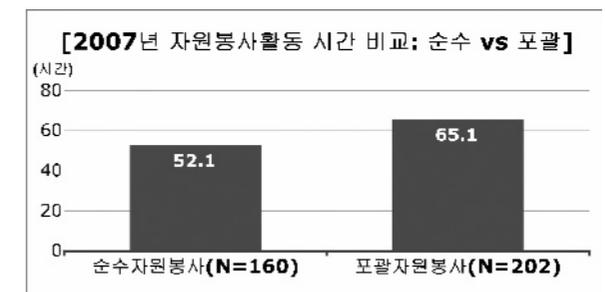
3) 2007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문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모두 말씀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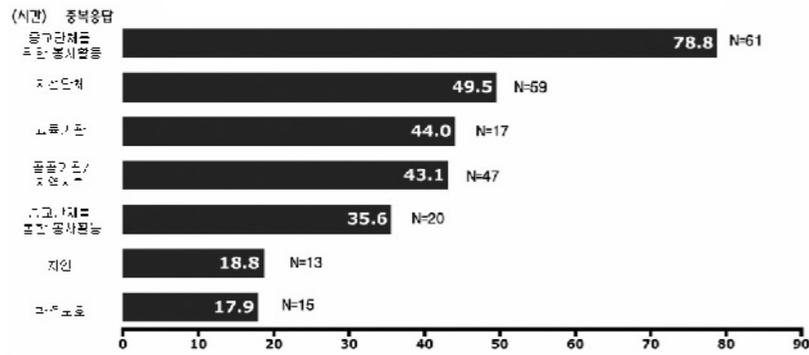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의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2005년까지 40시간 전후였고, 2007년 52.1시간으로 2005년 대비 13.3시간 증가하였음.

◎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2003년 7.4시간에서 2005년 9.6시간으로 2.2시간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엔 8.2시간으로 2005년에 비해 1.4시간 감소하였음.



2007년 자원봉사활동처별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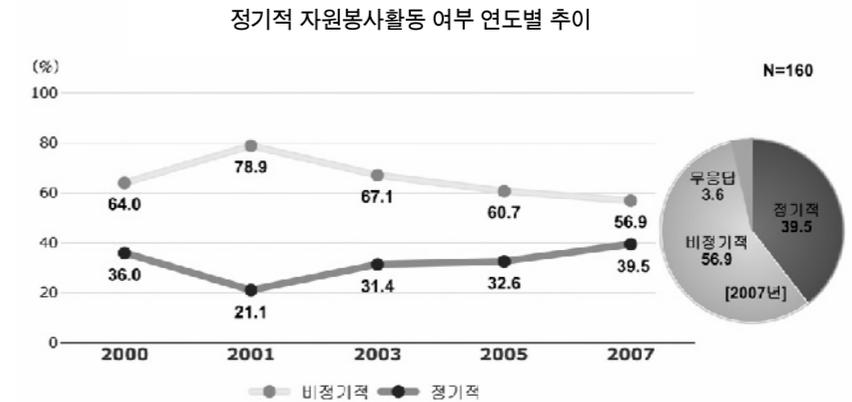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N=202)의 활동처별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이 78.8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자선단체 49.5시간, 교육기관 44.0시간, 공공기관/지역사회 43.1시간,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35.6시간, 지인(가족 제외) 18.8시간, 환경보호 17.9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사례수가 10미만인 활동처 중 의료기관을 위한 봉사활동은 112.9시간이었음.

자원봉사 활동처	시간	N	자원봉사 활동처	시간	N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78.8	61	의료기관	112.9	7
자선단체	49.5	59	정치단체	26.8	4
교육기관	44.0	17	문화/예술 단체	13.4	8
공공기관/지역사회	43.1	47	해외구호	8.5	4
종교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35.6	20	부랑자	3.2	5
지인	18.8	13	기타	41.0	7
환경보호	17.9	15			

4) 2007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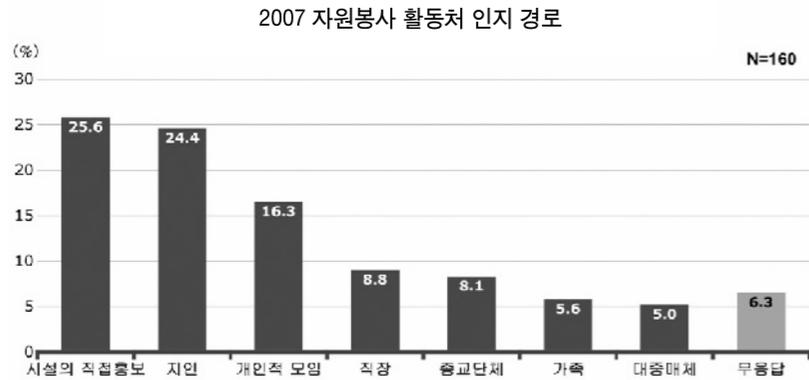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에 대해 '정기적'이라는 응답이 39.5%(매주: 9.4% + 매달: 16.3% + 매분기: 13.8%)로 나타난 반면,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음. 무응답은 3.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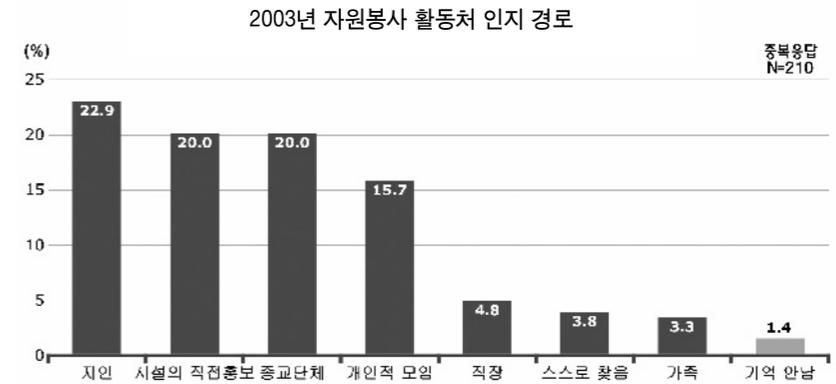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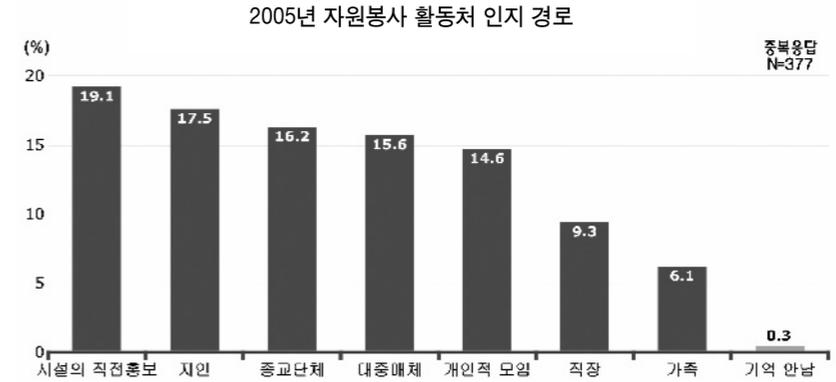
◎ 2007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은 2005년 대비 6.9%p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5) 2007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문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처를 인지하는 경로에 대해, '시설/단체의 직접홍보' (25.6%) 및 '지인' (2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모임' 16.3%, '직장' 8.8%, '종교단체' 8.1%, '가족' 5.6%, '대중매체' 5.0%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6.3%였음.



◎ 2005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중복응답)는 시설의 직접홍보 19.1%, 지인 17.5%, 종교단체 16.2%, 대중매체 15.6%, 개인적 모임 14.6% 등이었음.

◎ 2003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중복응답)는 지인 22.9%, 시설의 직접홍보 20.0%, 종교단체 20.0%, 개인적 모임 15.7% 등이었음.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중 시설의 직접홍보 방식은, 2003년의 경우 지인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낮았으나 2005년, 2007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에서 수정(중복응답→단수응답)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

6) 2007년 자원봉사활동 방법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활동'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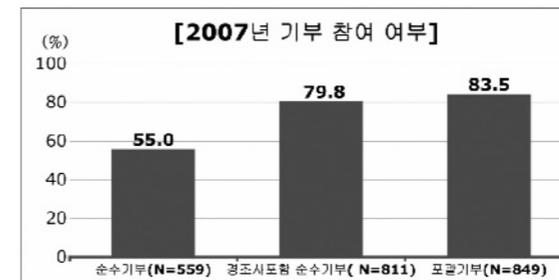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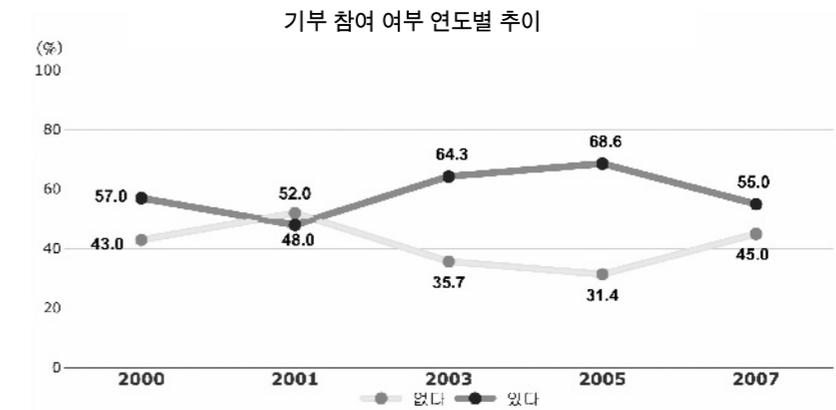


◎ 순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N=160)는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처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방법에 대해, '단순노력봉사' (85.6%)를 가장 많이 꼽았음. '전문노력봉사'는 4.4%에 불과하였으며, '두 방식 모두'라는 응답은 1.3%였음. 무응답은 8.8%였음.

2. 기부

1) 2007년 기부 참여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 '기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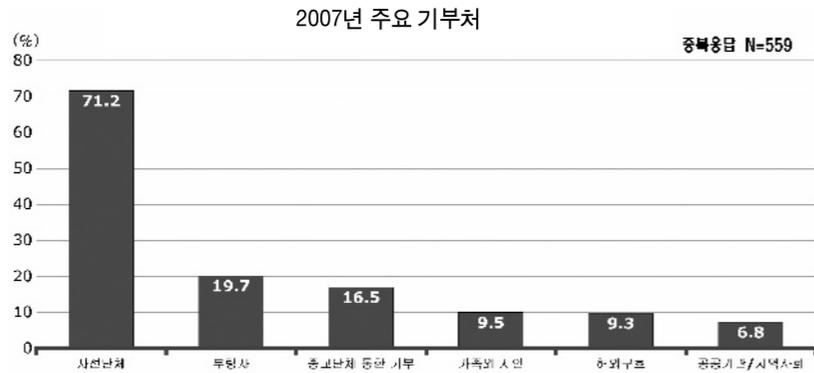
◎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하여 순수기부자는 전체의 55.0%로 나타나, 2005년 조사에 비해 13.6%p 낮아졌음.
 ◎ 한편, 경조사와 현금보시만을 기부한 응답자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부(N=849)는 83.5%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순수기부는 40대(65.1%), 자영업자(63.5%), 인천/경기(63.9%) 및 서울(63.6%)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59.9%), 기독교(65.2%) 및 불교(61.5%) 신자, 기혼자(59.8%), 월 개인소득 200만원이상(62.2%), 월 가구소득 300만원이상(6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1. 2007년 주요 기부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기부 활동' 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중복응답)



◎ 순수 기부자(N=559)의 기부처(중복응답)는 '자선단체' 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부랑자' 19.7%,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16.5%, '가족 외 지인' 9.5%, '해외구호' 9.3%, '공공기관/지역사회' 6.8%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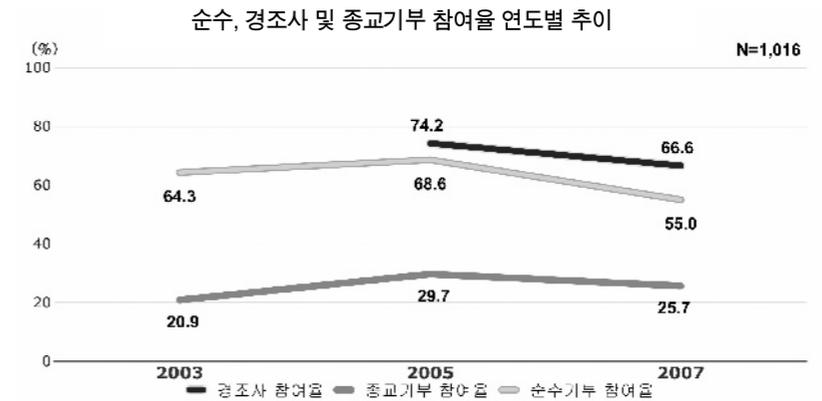
◎ 한편, 경조사비 기부자 및 현금/보시 기부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부자(N=849) 기준으로 본다면, '경조사비' 는 79.7%였으며, '현금/보시' 는 30.7%였음. 나머지 순수 기부의 기부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됨.

기부처	%	기부처	%
경조사비	79.7	공공기관/지역사회	4.5
자선단체	46.9	정치단체	1.6
현금/보시	30.7	교육기관	1.4
부랑자	13.0	환경보호	0.7
종교단체 통한 기부	10.8	의료기관	0.5
가족 외 지인	6.2	문화예술	0.5
해외구호	6.1	기타	3.2

※ 표는 포괄 기부자(N=849) BAS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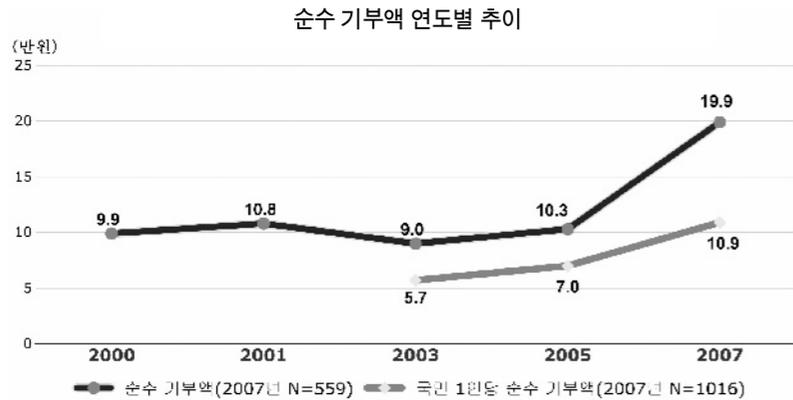
▷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은 40대(55.8%), 인천/경기(59.6%) 및 서울(59.5%) 거주자, 기혼자(49.5%), 월 개인소득이 높을수록(200만원이상: 52.8%),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300만원이상: 5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07년 경조사비 기부 참여율(N=1,016)은 66.7%로 2005년에 비해 7.5%p 감소하였음. 종교기부 참여율의 경우 25.7%로 2005년에 비해 4.0%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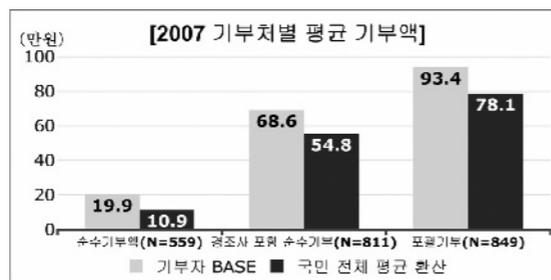
1-2. 2007년 기부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말씀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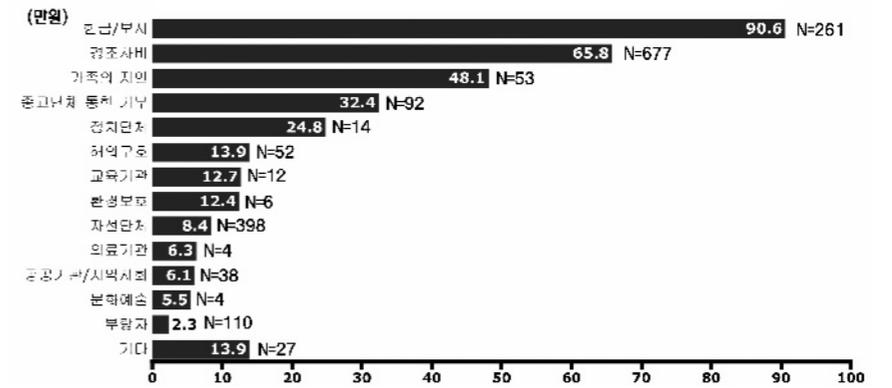


◎ 2007년도 순수 기부액 평균은 19.9만원(N=559)으로 나타남. 이를 국민 전체(N=1016)의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9만원임. 순수 기부액을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5년에 비해 9.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기부액은 3.9만원 증가하였음.

경조사를 포함한 평균 기부액은 68.6만원(N=811), 현금/보시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의 평균은 93.4만원(N=84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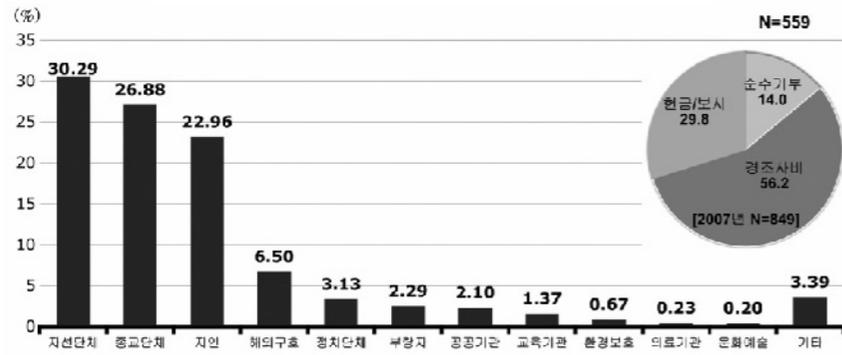
2007년 기부처별 기부 금액



◎ 순수, 경조사, 현금/보시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기부 금액은 현금/보시가 90.6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경조사비 65.8만원, 가족 외 지인 48.1만원,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32.4만원, 정치단체 24.8만원, 해외구호 13.9만원, 교육기관 12.7만원, 환경보존 12.4만원, 자선단체 8.4만원, 의료기관 6.3만원, 공공기관/지역사회 6.1만원, 문화예술 5.5만원, 부랑자 2.3만원, 기타 13.9만원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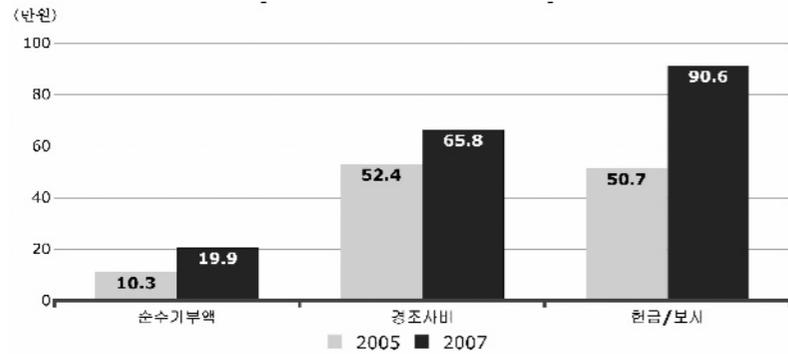
◎ 종교현금, 경조사비를 제외한 순수 자선기부 의향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2.13%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



순수 기부금액의 기부처별 비중은 자선단체가 30.29%,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6.88%, 지인 22.96% 등 3개 기부처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구호 6.50%, 정치단체 3.13%, 부랑자 2.29%, 공공기관 2.10%, 교육기관 1.37%, 환경보호 0.67%, 의료기관 0.23%, 문화예술 0.20%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경조사비와 현금/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액 중에서 순수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였음.

기부처별 평균 기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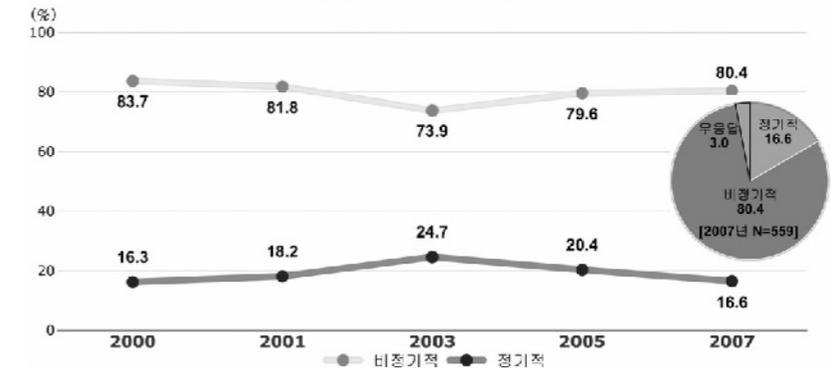


경조사비와 현금/보시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5년 대비 경조사비는 13.4만원이 증가하였고, 현금/보시는 39.9만원이 증가하였음.

1-3. 2007년 정기적 기부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이 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활동을 말하며, 경조사비, 종교적 현금/보시 등은 제외합니다)

정기적 기부 여부 연도별 추이



순수 기부자(N=559)들은 정기적 기부 여부에 대해 '정기적'이라는 응답이 16.6%(매주: 0.5% + 매달: 12.2% + 매분기: 3.9%)인 반면,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80.4%로 나타남. 무응답은 3.0%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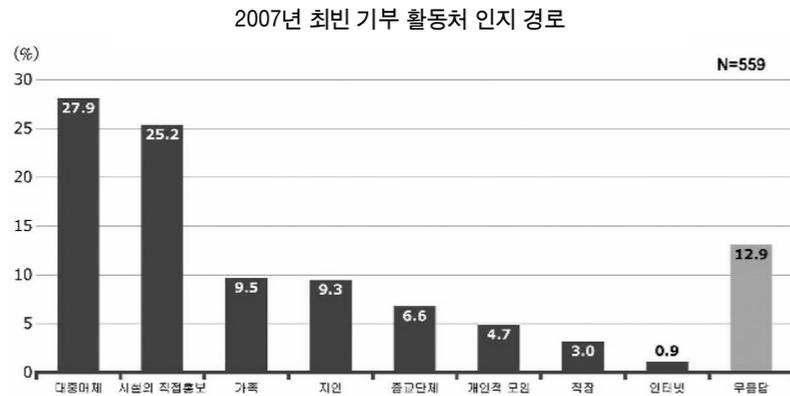
연도별로 볼 때 2003년 이후 정기적 기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정기적'이라는 응답은 남성(20.4%), 블루칼라(23.4%), 인천/경기 거주자(22.7%), 월 개인소득 200만원이상(2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4.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인지 경로

문 경조사비, 종교헌금/보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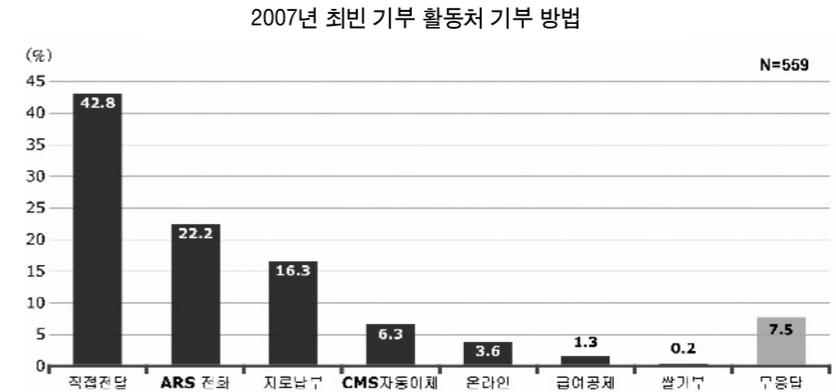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처를 인지한 경로에 대해, '대중매체' 라는 응답(27.9%)과 '시설의 직접홍보' 라는 응답(25.2%)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가족' 9.5%, '지인' 9.3%, '종교단체' 6.6%, '개인적 모임' 4.7%, '직장' 3.0%, '인터넷' 0.9%의 순이었음. 모르겠다는 응답도 12.9%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대중매체' 라는 응답은 인천/경기(35.0%) 및 대구/경북(41.5%) 거주자, 중소도시(35.2%) 등에서 높았고,
- ▷ '시설/단체의 직접홍보' 라는 응답은 중졸이하(39.7%), 부산/울산/경남(35.1%)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5. 2007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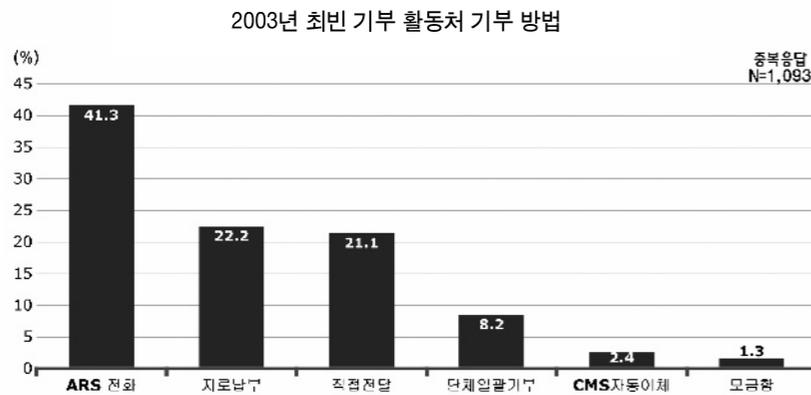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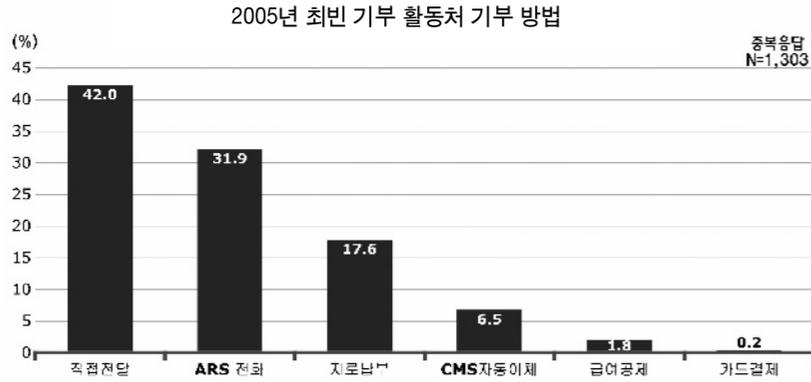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 하셨습니까?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기부처의 기부 방법에 대해,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ARS 전화' 22.2%, '지로 납부' 16.3%, 'CMS 자동이체' 6.3%, '온라인' 3.6%, '급여공제' 1.3%, '쌀기부' 0.2%의 순이었음. 무응답은 7.5%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63.6%) 거주자, 군지역(61.5%), 월 개인 소득 50-99만원(62.5%) 등에서 높았고,
- ▷ 'ARS 전화' 라는 응답은 인천/경기(31.3%) 및 대구/경북(36.9%) 거주자, 중소도시(30.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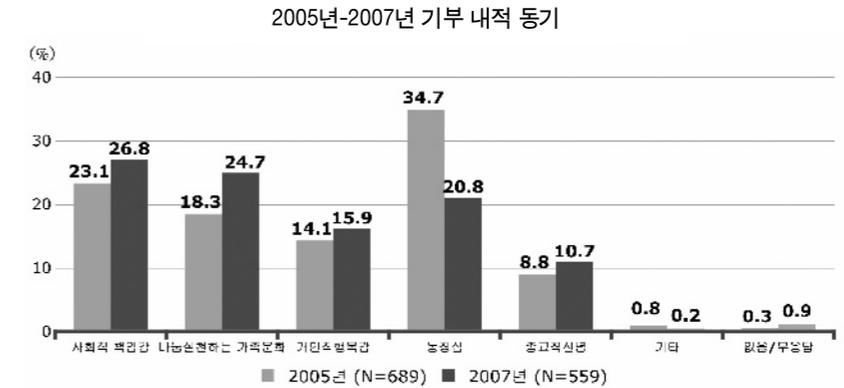
◎ 2005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은 직접전달이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RS 전화 31.9%, 지로납부 17.6% 등의 순이었음.

◎ 2003년 최빈 기부 활동처 기부 방법은 ARS 전화가 41.3%로 가장 많았고, 지로납부 22.2%, 직접전달 21.1% 등이었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에서 수정(중복응답→단수응답)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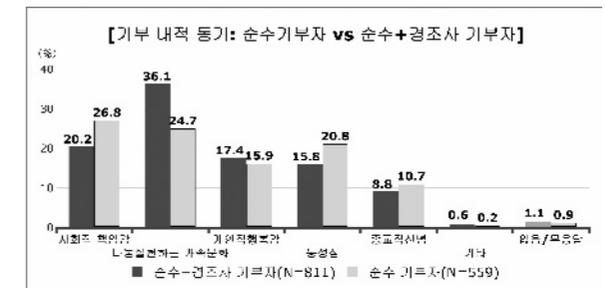
2)기부의 내적 동기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는 가장 큰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기부의 내적 동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26.8%,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이 24.7%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심' 20.8%, '개인적 행복감' 15.9%, '종교적 신념' 10.7%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0.2%, 없음/무응답은 0.9%였음.

◎ 2005년 대비, '동정심'은 13.9%p 낮아진 반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는 6.4%p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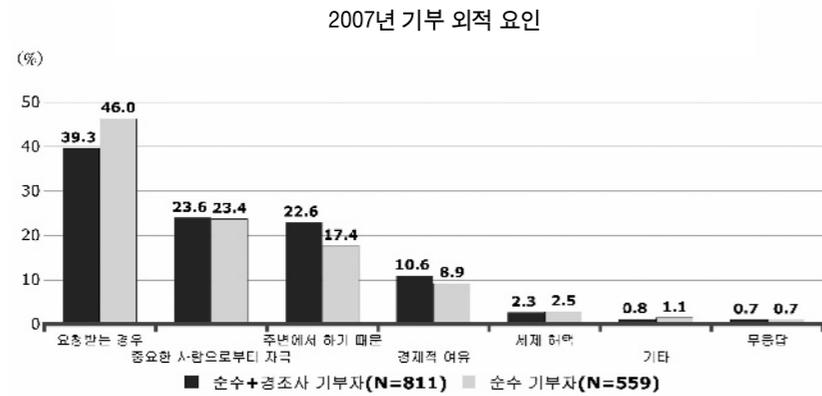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은 블루칼라(36.9%), 서울(32.9%), 인천/경기(32.5%) 거주자 등에서 높았으며.

▷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은 고졸(28.6%), 부산/울산/경남(40.3%) 거주자 등에서 높았음.

3)기부의 외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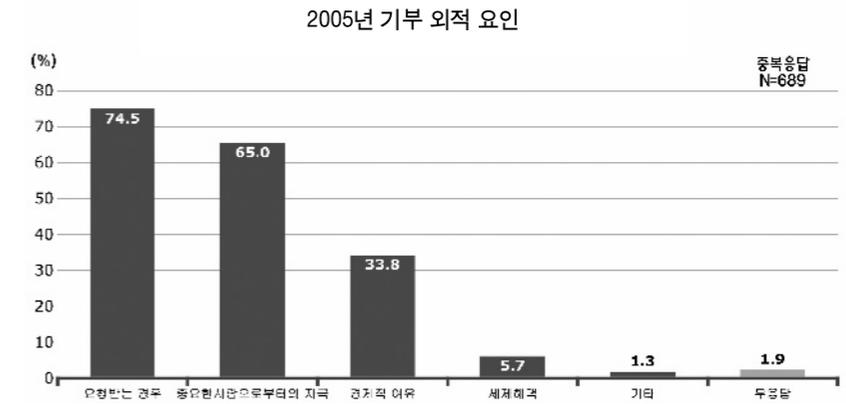
문 위의 '기부하는 내적 동기' 외에 다음 중 귀하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 순수 기부자(N=559)들은 기부의 외적 요인에 대해, '요청받는 경우' 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23.4%, '주변에서 하기 때문' 17.4%, '경제적 여유' 8.9%, '세제 혜택' 2.5%의 순이었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요청받는 경우' 라는 응답은 대구/경북(63.1%), 대도시(49.7%), 불교(53.2%) 등에서 특히 높았고,
- ▷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이라는 응답은 19-29세(28.0%), 기독교(29.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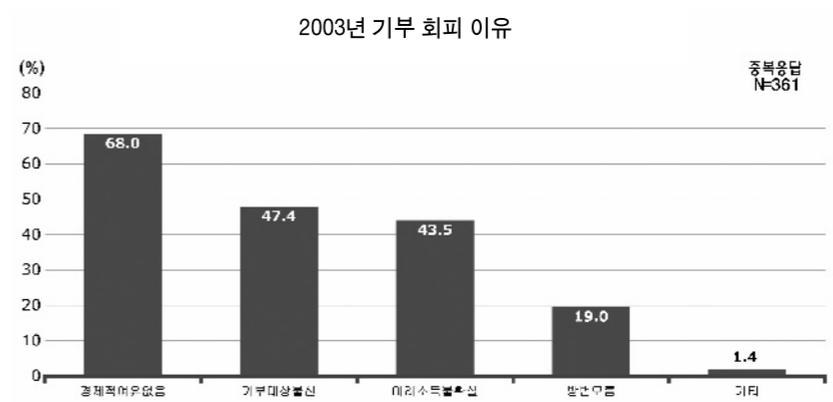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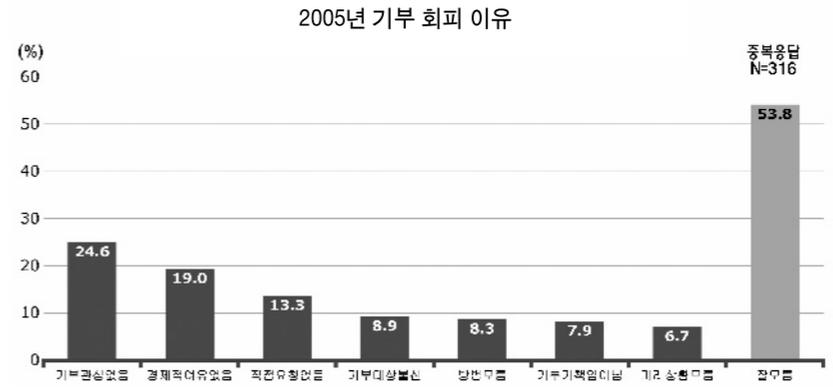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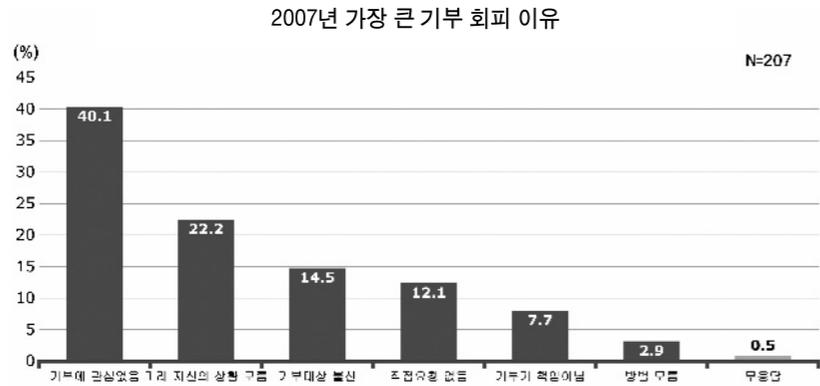


◎ 2005년 기부 외적 요인(중복응답)은 '요청받는 경우' 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이라는 응답이 65.0%, '경제적 여유' 라는 응답이 33.8% 등이었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설문의 경우 기부의 내부 동기, 외부 요인이 복합되어 있고, 2006년의 설문은 중복응답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비교가 힘들.

4) 가장 큰 기부 회피 이유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부 경험이 없는 국민들(N=207)은 가장 큰 기부 회피 이유에 대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미래의 자신의 상황 모름' 22.2%, '기부대상 불신' 14.5%, '직접요청이 없음' 12.1%, '기부가 책임 아님' 7.7%, '방법 모름' 2.9%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0.5%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 ▷ '미래의 자신의 상황 모름' 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33.3%), 가정주부(36.4%), 기혼자(28.3%), 경제활동 인구 1명 가구(2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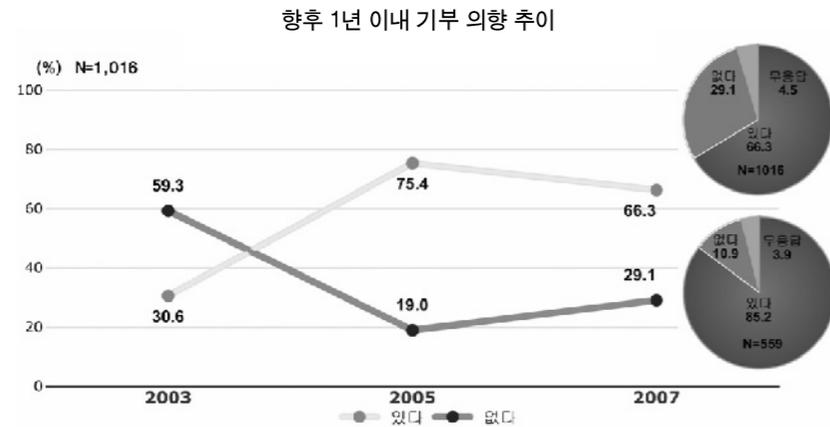
◎ 2005년의 기부 회피 이유는(중복응답) '잘 모름' 이라는 응답이 53.8%인 가운데,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24.6%, '경제적 여유 없음' 19.0%, '직접 요청이 없음'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03년의 기부 회피 이유는(중복응답) '경제적 여유 없음' 이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부대상 불신' 47.4%, '미래 소득 불확실' 43.5%, '방법 모름' 19.0% 등으로 나타났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에서 수정(중복응답→단수응답)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

5.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향

문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6.3%로 '없다'는 응답 29.1%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음. 무응답은 4.5%였음. 한편, 순수 기부자(N=559) 중에서는 기부 의향이 85.2%로서 18.9%p 더 높게 나타남.

◎ 연도별 기부 의향의 경우 2005년 '있다'는 응답이 75.4%인 것에 비해 9.1%p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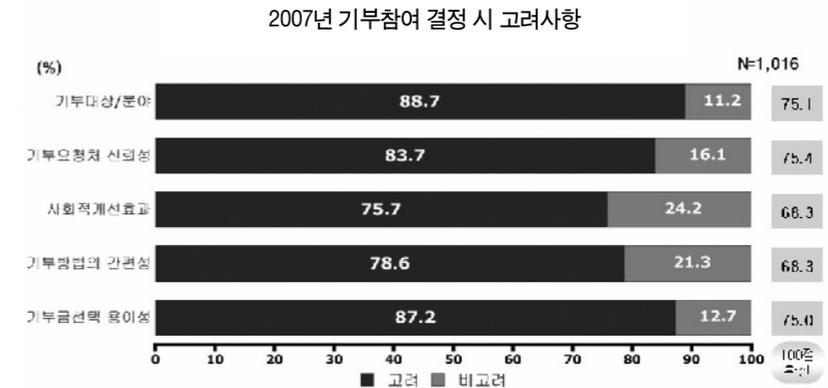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있다'는 응답은 40대(73.3%), 화이트칼라(76.2%), 부산/울산/경남(80.6%) 거주자, 기독교(78.1%), 불교(80.1%), 기혼자(69.7%) 등에서 높았고,

▷ '없다'는 응답은 19-29세(35.1%),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 38.1%), 광주/전라(49.6%) 거주자, 중소도시(33.1%), 무교(39.5%),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63.6%), 가구원수 1명 가구(4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6)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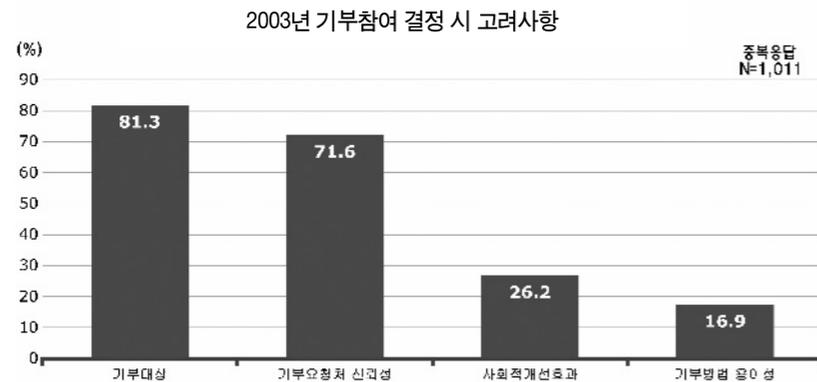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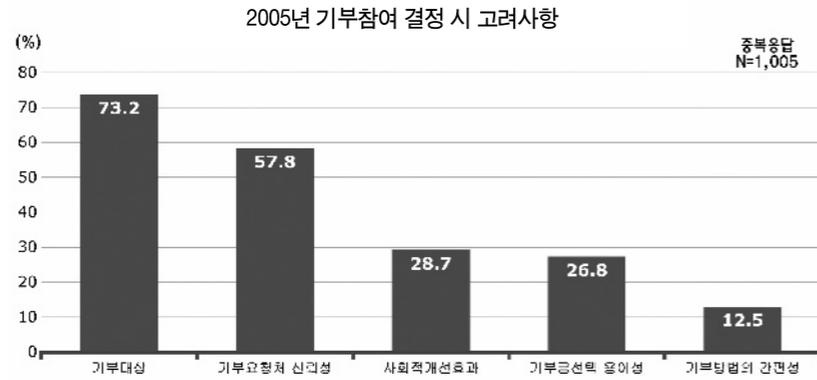
◎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 문항 중, '기부요청처의 신뢰성'의 100점 환산 점수는 75.4점, '기부대상/분야'는 75.1점, '기부금선택 용이성'은 75.0점으로, '사회적 개선효과' 68.3점과 '기부방법의 간편성' 68.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기부대상과 분야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8.7%(매우: 23.9% + 대체로: 64.8%)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1.2%(전혀: 1.2% + 그다지: 10.0%)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기부 요청처의 신뢰성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3.7%(매우: 34.9% + 대체로: 48.7%)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6.1%(전혀: 1.3% + 그다지: 14.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사회적 개선효과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5.7%(매우: 22.8% + 대체로: 52.9%)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4.2%(전혀: 1.3% + 그다지: 22.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기부 방법의 간편성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8.6%(매우: 16.6% + 대체로: 62.0%)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1.3%(전혀: 1.0% + 그다지: 20.3%)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경제 상황에 맞는 기부 액수 선택 용이성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7.2%(매우: 26.0% + 대체로: 61.2%)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2.7%(전혀: 0.8% + 그다지: 11.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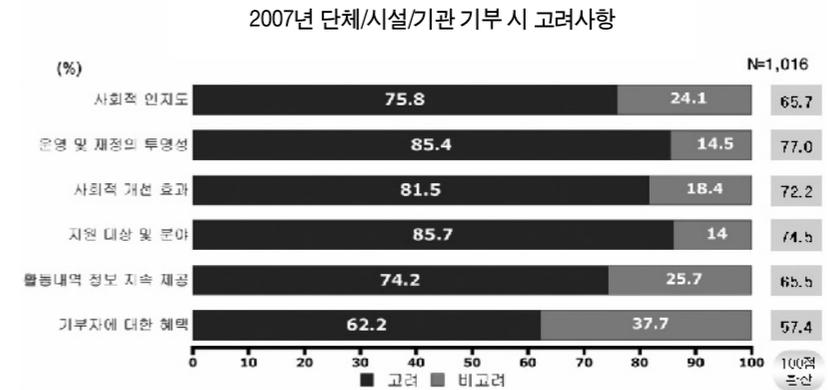
◎ 2005년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중복응답)은 '기부대상'이라는 응답이 7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부요청처 신뢰성' 57.8%, '사회적 개선효과' 28.7%, '기부금 선택 용이성' 26.8%, '기부방법의 간편성' 12.5% 등이었음. '잘모름'은 0.4%였음.

◎ 2003년 기부참여 결정시 고려사항(중복응답)은 '기부대상'이라는 응답이 8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부요청처 신뢰성' 71.6%, '사회적 개선효과' 26.2%, '기부 방법 용이성' 16.9% 등이었음. '잘모름'은 0.5%였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에서 수정(중복응답→단수응답)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

7)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가 아닌,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 국민들의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문항 중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의 100점 환산 점수가 77.0점, '지원대상 및 분야'는 74.5점, '사회적 개선효과'는 72.2점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지도' 65.7점,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 65.5점, '기부자에 대한 혜택' 57.4점의 순이었음.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은 2003, 2005년에도 가장 많이 고려된 요소였음.

사회적 인지도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5.8%(매우: 13.6% + 대체로: 62.2%)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4.1%(전혀: 2.6% + 그다지: 21.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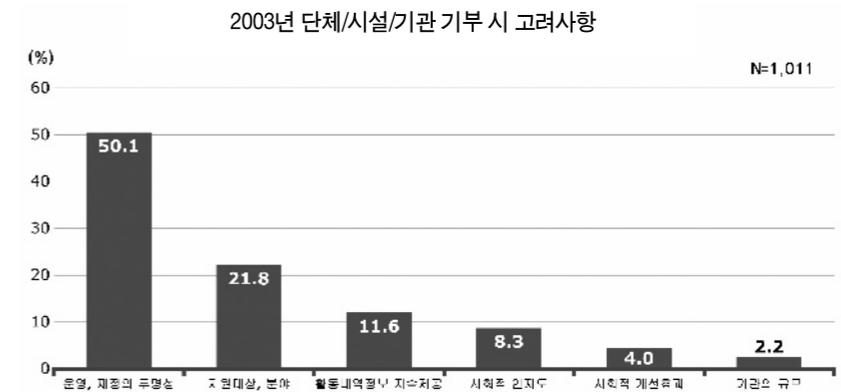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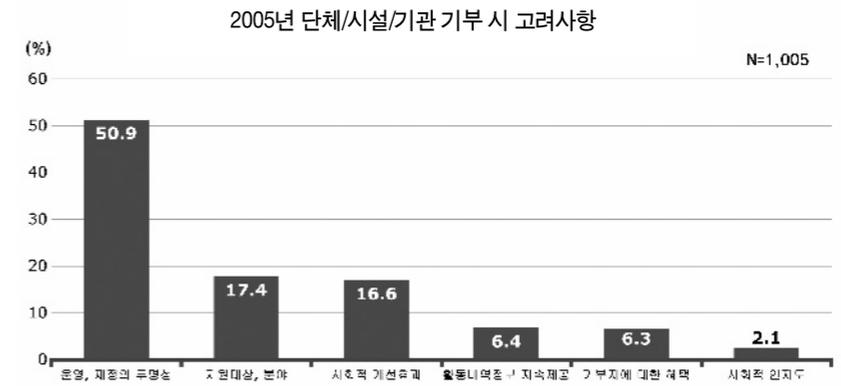
운영 및 재정 투명성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5.4%(매우: 37.6% + 대체로: 47.8%)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4.5%(전혀: 0.7% + 그다지: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사회적 개선효과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1.5%(매우: 26.7% + 대체로: 54.8%)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8.4%(전혀: 1.2% + 그다지: 17.2%)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지원 대상 및 분야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85.7%(매우: 26.1% + 대체로: 59.6%)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14.0%(전혀: 0.3% + 그다지: 1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74.2%(매우: 15.6% + 대체로: 58.7%)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25.7%(전혀: 2.1% + 그다지: 23.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기부자에 대한 혜택의 경우 '고려한다'는 응답이 62.2%(매우: 12.1% + 대체로: 50.1%)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37.7%(전혀: 7.1% + 그다지: 3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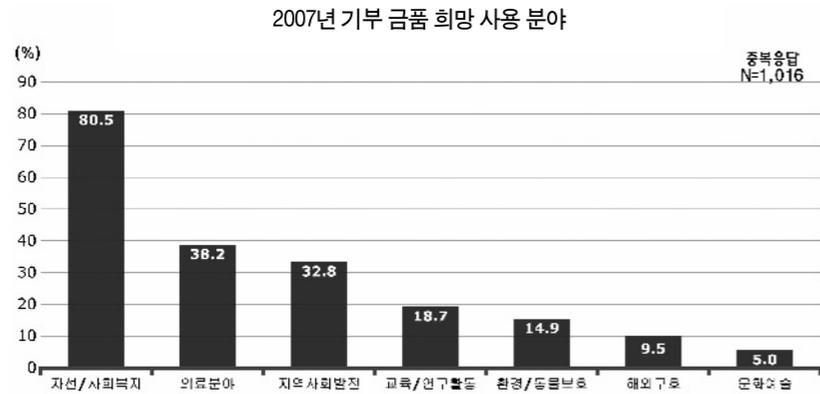
◎ 2005년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은 '운영,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지원대상, 분야' 17.4%, '사회적 개선효과' 16.6% 등의 순이었음.

◎ 2003년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은 '운영,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지원대상, 분야' 21.8%, '활동내역 정보 지속 제공' 11.6% 등의 순이었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2004년, 2006년의 설문이 택일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직접비교가 힘들.

8) 기부 금품 희망 사용 분야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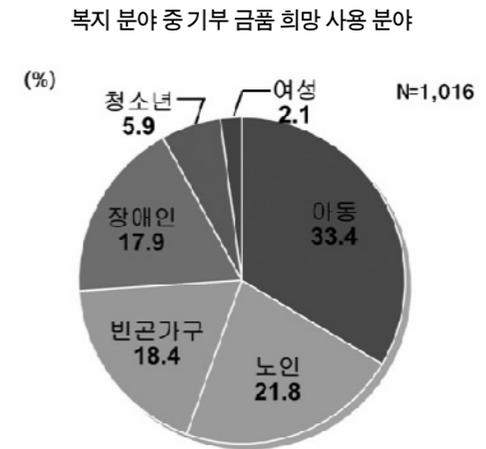
◎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중복응답)에 대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의료분야' 38.2%, '지역사회 발전 지원' 32.8%, '교육/연구활동' 18.7%, '환경/동물보호' 14.9%, '해외구호' 9.5%, '문화예술' 5.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라는 응답은 대구/경북(90.8%) 거주자, 대도시(83.4%) 등에서 높았고,
- ▷ '의료분야' 라는 응답은 중졸이하(50.4%), 대구/경북(54.1%) 거주자, 중소도시(43.6%) 등에서 높았으며,
- ▷ '지역사회 발전 지원' 이라는 응답은 자영업(42.3%), 대전/충청(41.8%) 및 부산/울산/경남(40.6%) 거주자, 군지역(42.4%), 불교(39.4%), 기혼자(34.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복지 분야 중 기부 금품 희망 사용 분야

문 이번엔 복지분야에 한정하여 여쭙보겠습니다.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복지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1가지 분야를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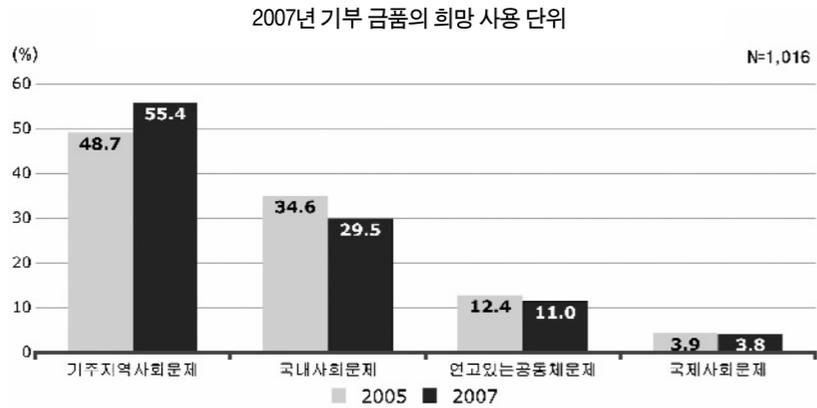
◎ 국민들에게 복지 분야에 한정하여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를 질문한 결과 '아동 복지' 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노인복지' 21.8%, '빈곤가구 지원' 18.4%, '장애인복지' 17.9%, '청소년복지' 5.9%, '여성복지' 2.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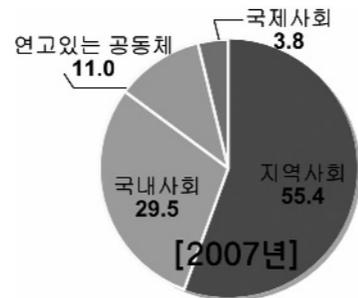
- ▷ '아동복지' 라는 응답은 여성(37.2%),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38.0%), 대구/경북(46.8%) 및 강원(52.9%) 거주자 등에서 높았고,
- ▷ '노인복지' 라는 응답은 남성(24.9%),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 30.9%),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 32.4%), 불교(27.0%), 기혼자(23.7%), 월 가구소득 100-199만원(3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9)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단위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 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 기부 금품의 희망 사용 단위에 대해 ‘거주지역사회 문제’ 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국내사회 문제’ 29.5%, ‘연고있는 공동체 문제’ 11.0%, ‘국제사회 문제’ 3.8%의 순으로 나타났음. 무응답은 0.2% 였음.



◎ 2005년도와 비교하여 ‘거주지역사회 문제’ 라는 응답이 48.7%에서 55.4%로 6.7%p 높아졌고, ‘국내사회 문제’ 라는 응답은 34.6%에서 29.5%로 5.1%p 감소하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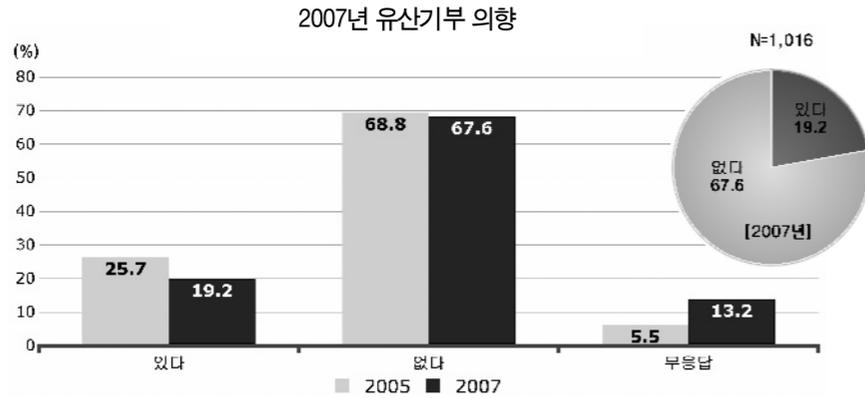
▷ ‘거주지역 사회문제’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 60.0%), 학력이 낮을수록(68.3%), 농/임/어업 종사자(80.4%), 대전/충청(76.5%) 및 대구/경북(73.4%) 거주자, 군지역(75.9%), 불교(67.7%), 월 개인소득 100-199만원(61.3%), 경제활동인구 4명 가구(72.0%) 등에서 높았고,

▷ ‘국내 사회문제’ 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36.0%),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33.3%), 학생(44.4%), 수도권 거주자(서울:35.5%, 인천/경기: 41.6%), 중소도시(36.6%), 기독교(35.7%), 월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33.4%)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32.6%), 가구원수 1인 가구(3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3. 유산기부

1) 유산기부 의향

문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 유산기부 의향에 대해 '있다' 는 응답이 19.2%로, '없다' 는 응답 67.6%에 비해 낮았음.
- 2005년에 비해서 유산 기부 의향을 적극 표시한 사람은 줄어들고, 무응답이 5.5%에서 13.2%로 7.7%p 늘어났음.
- 전체 유산 중 기부 가능 정도에 대해 평균적으로 전체 재산의 28.8%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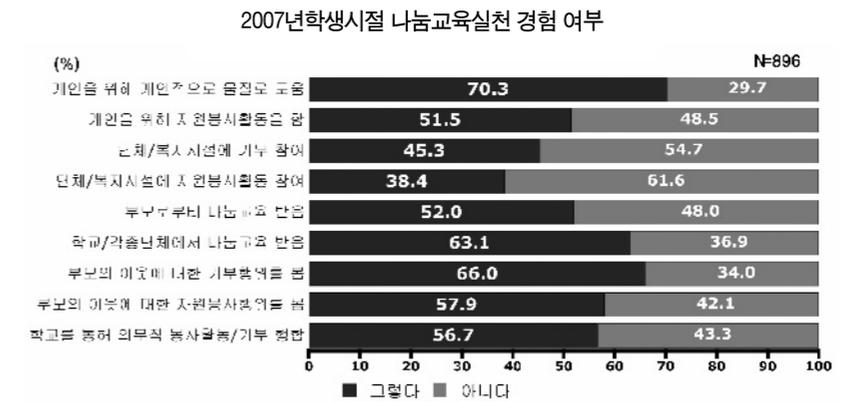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있다' 는 응답은 19-29세(24.2%),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27.7%), 학생(31.5%), 서울(25.5%) 및 대전/충청(27.6%) 거주자, 기독교(31.7%) 등에서 높았고,
- ▷ '없다' 는 응답은 50대 이상(73.8%),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 82.7%), 농/임/어업 종사자(84.3%), 광주/전라(80.0%), 대구/경북(80.7%), 부산/울산/경남(74.5%) 거주자, 군지역(74.9%), 무교(72.1%), 기혼자(69.5%), 월 가구소득 100-199만원(7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4. 나눔교육

1) 학생 시절 나눔 교육/실천 여부

문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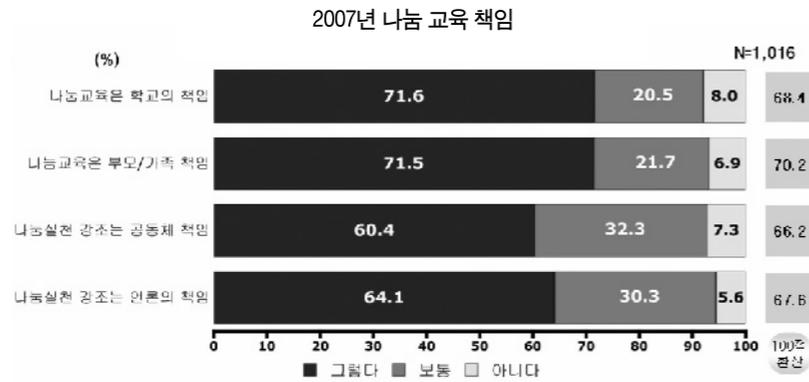
- 학생 시절 나눔교육 실천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국민들(N=896)은 학생시절 나눔교육 실천 경험 여부 중 '개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물질로 도운 적이 있다' 는 응답이 70.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부모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를 본 적이 있다' 는 응답 66.0%, '학교 및 단체 등에서 나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는 응답 63.1%, '부모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행위를 본 적이 있다' 57.9%, '학교를 통한 의무적 봉사활동/기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5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물질로 도운 적이 있다' 는 경우는 서울(77.2%), 대도시(74.9%), 기혼자(72.3%) 가구원수 1명 가구(67.6%) 등에서 높았고,
- ▷ '부모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를 본 적이 있다' 는 경우는 대구/경북(75.2%), 대도시(72.4%), 가구원수 2명 가구(6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2) 나눔 교육 책임

문 다음의 나눔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 나눔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 '나눔교육이 부모/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의 100점 환산 점수가 70.2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눔교육은 학교의 책임' 68.4점, '나눔실천 강조는 언론의 책임' 67.6점, '나눔실천 강조는 공동체 책임' 66.2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나눔 교육이 학교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71.6%, '아니다'는 응답은 8.0%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음.

나눔 교육이 가족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71.5%, '아니다'는 응답은 6.9%로 학교책임이라는 주장과 거의 비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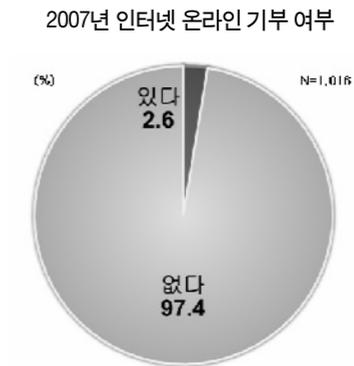
나눔 교육이 공동체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60.4%, '아니다'는 응답은 7.3%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음.

나눔 교육이 언론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64.1%, '아니다'는 응답은 5.6%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음.

5. 인터넷 온라인 기부

1)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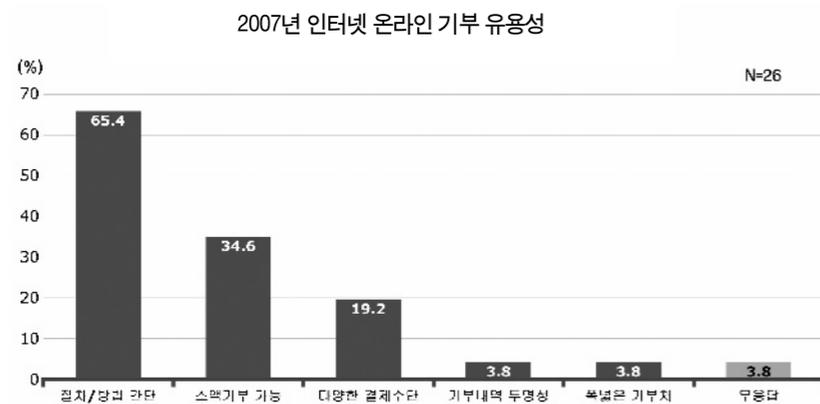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6%, '없다'는 응답은 97.4%로 아직까지 인터넷 온라인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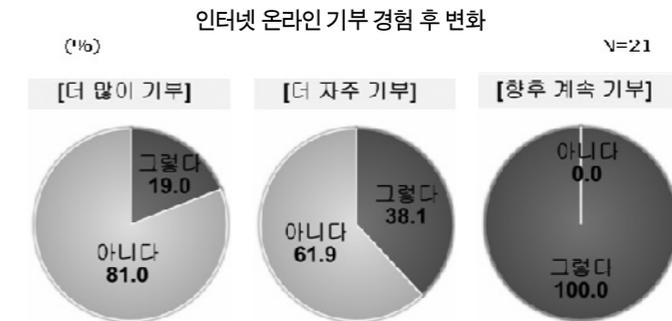
문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은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이 있는 국민들(N=26)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에 대해 '절차/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5.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소액기부 가능' 34.6%, '다양한 결제수단' 19.2%, '기부내역 투명성' 3.8%, '폭넓은 기부처' 3.8%의 순이었음. 무응답은 3.8%였음.

3)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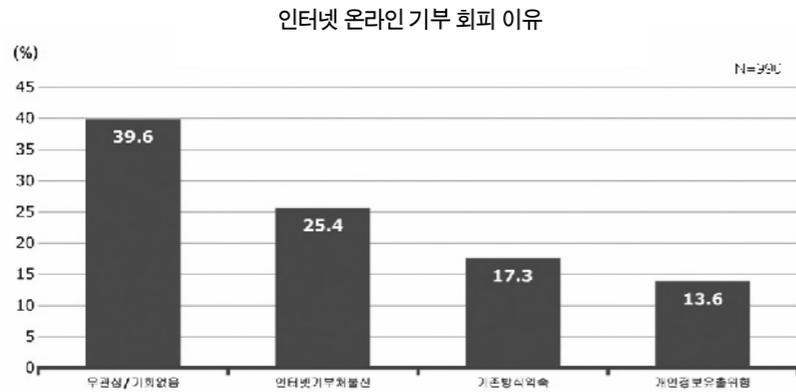
문 인터넷 온라인 기부와 관련된 다음 문항들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경험 후 변화가 하나라도 있는 국민들(N=21)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 후 변화에 대해 '더 많이 기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9.0%, '더 자주 기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38.1%, '향후 계속 기부'라는 응답은 100.0%로 나타났음.

4)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

문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터넷 온라인 기부 경험이 없는 국민들(N=990)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 회피 이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회가 없음' 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인터넷 기부처 불신' 25.4%, '기존방식 익숙' 17.3%, '개인정보 유출 위험' 13.6%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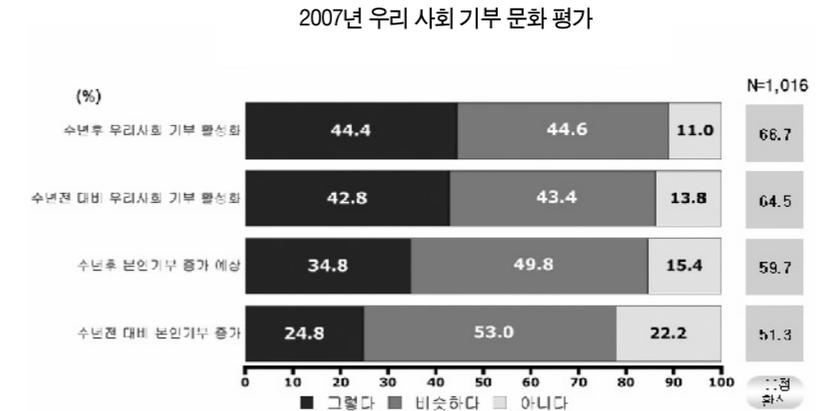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무관심하거나 기회가 없음' 이라는 응답은 중졸이하(47.5%), 부산/울산/경남 (48.8%) 거주자, 월 개인소득 50-99만원(58.1%) 가구원수 1명 가구(46.3%), 인터넷 사용량 1시간 미만(39.7%) 및 1시간 초과(36.6%) 등에서 높았고,
- ▷ '인터넷 기부처 불신' 이라는 응답은 19-29세(31.0%), 강원(48.4%) 거주자, 가구원수 2명 가구(26.2%), 인터넷 사용량 1시간 초과(3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6. 기부 문화

1)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평가

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평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특히 '수년 전 대비 우리 사회 기부가 활성화되었다' 는 평가가 100점 환산 점수 64.5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수년 전 대비 본인 기부가 증가하였다' 는 응답은 51.3점 정도였음.

수년 후 우리사회 기부가 활성화 예상의 경우는 '그렇다' 는 응답이 44.4%로 '아니다' 는 응답 11.0%에 비해 높았고, '비슷하다' 는 응답 44.6%와 비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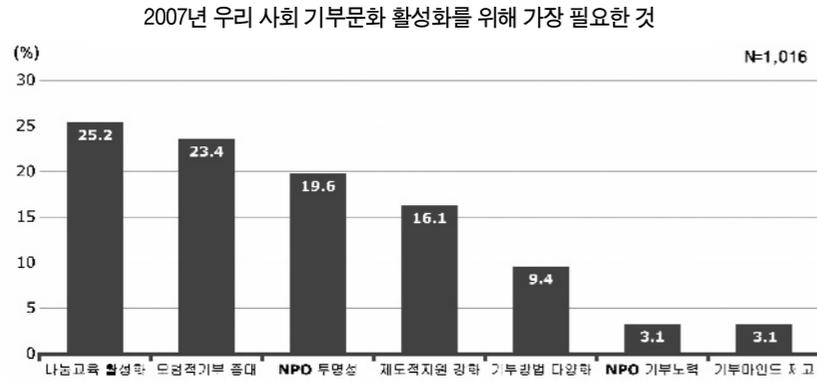
수년 전 대비 우리사회 기부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응답이 42.8%로 '아니다' 는 응답 13.8%에 비해 높았고, '비슷하다' 는 응답 43.4%와 비슷했음.

수년 후 본인기부 증가 예상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응답이 34.8%로 '아니다' 는 응답 15.4%에 비해 높았지만 '비슷하다' 는 응답 49.8%에 비해서는 낮았음.

수년 전 대비 본인기부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응답이 24.8%로, '아니다' 는 응답 22.2%에 비해 높았지만, '비슷하다' 는 응답 53.0%에 비해서는 낮았음.

2)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문 귀하는 우리사회 기부문화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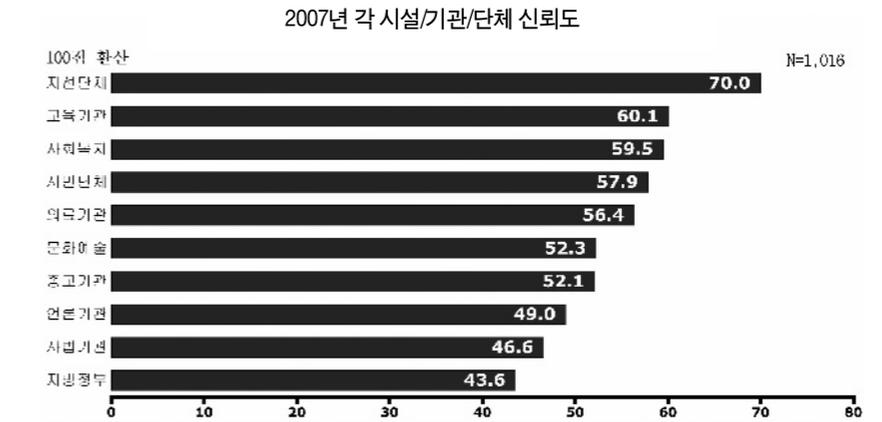
◎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나눔교육 활성화'라는 응답(25.2%) 및 '모범적 기부 증대'라는 응답(23.4%)이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NPO의 투명성' 19.6%, '제도적 지원 강화' 16.1%, '기부방법 다양화' 9.4%, 'NPO 기부노력' 3.1% '기부 마인드 제고' 3.1%의 순이었음. 무응답은 0.2%였음. (NPO : 비영리기구)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나눔교육 활성화'라는 응답은 서울(35.9%), 가구원수 2명 가구(24.8%) 등에서 높았고,
- ▷ '모범적 기부 증대'라는 응답은 고졸(27.4%), 블루칼라(29.4%), 부산/울산/경남(29.7%) 거주자, 대도시(26.4%), 가구원수 1명 가구(31.0%), 경제활동 인구 4명 가구(32.0%) 등에서 높았으며,
- ▷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신뢰도 상승'이라는 응답은 인천/경기(24.3%) 거주자, 중소도시(25.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3)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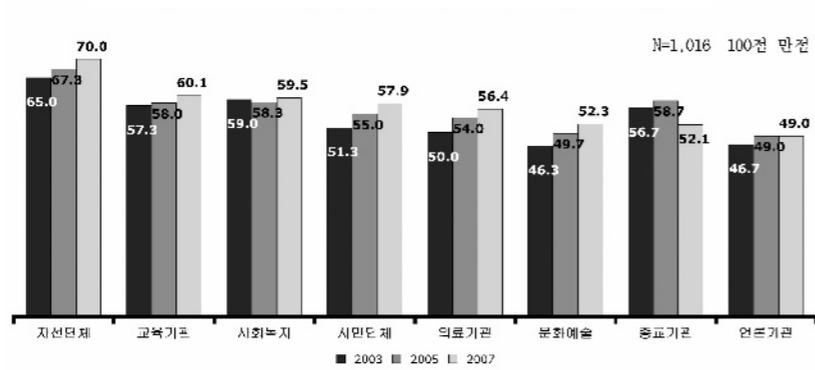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 국민들의 각 시설/기관/단체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100점 환산 점수로 자선단체의 신뢰도가 70.0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 교육기관 60.1점, 사회복지 59.5점, 시민단체 57.9점, 의료기관 56.4점, 문화예술단체 52.3점, 종교기관 52.1점, 언론기관 49.0점, 사법기관 46.6점, 지방정부 43.6점 등의 순이었음.

시설/기관/단체	100점 환산	시설/기관/단체	100점 환산
자선단체	70.0	사법기관	46.6
교육기관	60.1	지방정부	43.6
사회복지단체	59.5	중소기업	42.4
시민단체	57.9	노동조합	42.2
의료기관	56.4	중앙정부	41.4
문화예술단체	52.3	대기업	37.6
종교기관	52.1	이익단체	33.0
언론기관	49.0	정당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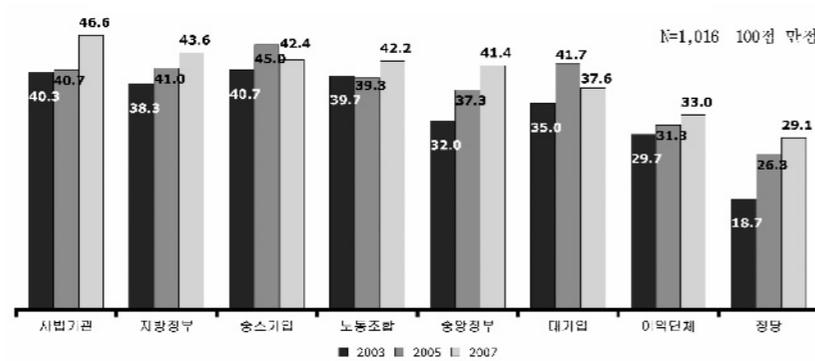
2007년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 상위 8개



◎ 각 시설/기관/단체의 신뢰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8개 단체 중에서는 자선단체,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단체, 언론기관은 정체되어 있고, 종교기관은 오히려 하락하였음.

Giving Index 설문지

2007년 각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 하위 8개



◎ 하위 8개 단체 중에서는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였고,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소폭 상승하였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뢰도는 하락하였음.



R&R-

ID

--	--	--	--

기부(寄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의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공익 기부(寄附)문화의 확산과 정착, 공익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의 의뢰로 국민들의 '기부'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1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시어,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BID

--	--	--	--

아름다운 재단	리서치 앤 리서치
이사장 박상중	대표 노규형
주소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
전화 (02)766-1004	전화 (02)3484-3089
담당 홍주은 기부문화연구소 간사	담당 김봉신 사회조사본부 선임연구원

※ 면접원 주의사항 : 아래사항은 설문을 종료한 후 마지막에 작성할 것!

응답자 정보		면접원 정보	
성명	_____	면접일자	2008년 ____월 ____일
주소	_____	이름	_____
전화번호	() ____-_____	면접원 번호(ID)	_____
휴대폰	() 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

SQ1. 거주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인천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거주지 규모

-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시지역의 읍면포함) ③ 군지역

SQ3. 성 별

- ① 남성 ② 여성

SQ4. 귀하의 올해 연령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S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 ③ 블루칼라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자, 선반, 목공 등 숙련공 등)
- ⑤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④ 화이트칼라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이상 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연구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⑤ 전업주부 ⑩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 ⑥ 학생 ⑪ 학생
- ⑦ 무직/기타 ⑫ 무직
- ⑬ 기타(적을 것: _____)
- ⑨⑨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먼저, '자원봉사(自願奉仕 : Volunteering)' 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활동, 공부방 활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모금 캠페인이나 국제 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종교단체 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포함되지 않지만, 종교단체를 통한 여타 사회단체(아동시설, 양로원 등)의 봉사활동은 포함됩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설명문1》을 응답자에게 보여주고, 읽게한 후 《보기카드 1》을 주고 보게 할 것!

- 1.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로
- ② 단지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만 있다 → 4페이지 ①-1)만 질문 후, 5페이지 문2로 이동
- ③ 전혀 없다 → 5페이지 문2로

◎ [문1-1에서 문1-2까지는 4page에 있는 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보기카드 1제시]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4페이지 응답표

1-2. [보기카드 1제시]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4페이지 응답표

1-3. [보기카드 1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이 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활동을 말합니다)

- ① 있다(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곳이 있다) → 문1-3-1)로 이동
- ② 없다(모든 자원봉사를 기회가 닿는 때 일회적으로 하곤 한다)
- ⑨⑨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1-3-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지요?

- ① 매 주 ② 매 달 ③ 매 분기 ⑨⑨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1-4.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단수]

- 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인터넷을 통해
- ③ 가족, 친척 등을 통해 ④ 친구, 선배 등 지인을 통해
- ⑤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방문, 우편, 전화 등)
- ⑥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⑦ 종교단체를 통해
- ⑧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⑨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1-5.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활동' 하셨습니까?

- ①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단순노력봉사(예. 설거지, 목욕봉사, 서류정리, 태안 환경봉사 등)
- ②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전문노력봉사(예. 번역봉사, 법률서비스 제공, 자문 위원회 활동 등)
- ③ 두 방법 모두 ⑨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문1. '자원봉사' 활동처 보기	문1-1) 활동여부	문1-2) 자원봉사 시간
①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①-1의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제외)		
①-1)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교사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		
② 자선단체(재해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구호단체 등)를 위한 자원봉사		
③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 자원봉사 등)		
④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⑤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⑥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자원봉사		
⑦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⑧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⑨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⑩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⑪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⑫ 기타(적을 것:)		
합 계		총 _____ 시간

※ 면접원 지시사항 : 각 자원봉사 시간을 더한 값을 합계 총 시간에 기입할 것.

다음으로 '기부(寄附 : Donation)' 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부' 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재산)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결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단, 교회/성당/절 등에 종교적인 기관에 내는 순수헌금 및 보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설명문 2》을 응답자에게 보여주고, 읽게한 후 《보기카드 2》을 주고 보게 할 것!

2.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 '기부' 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결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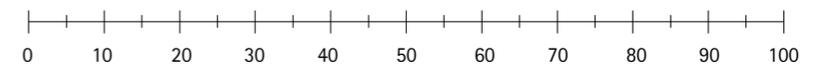
- ① 있다 → 문2-1로
- ② 단지 종교단체 헌금/보시만 있다 → 6페이지 ①-1)만 질문 후, 7페이지 문5로 이동
- ③ 전혀 없다 → 7페이지 문5로

◎ [문2-1에서 문2-2까지는 6page에 있는 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2-1. [보기카드 2 제시]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기부 활동' 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6페이지 응답표

2-2. [보기카드 2 제시] 작년 한 해 동안(2007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말씀 해주십시오). → 금액단위(천원) 주의! 6페이지 응답표

2-2-1. (현 시점에서) 귀하는 종교헌금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자선기부로, 귀하 소득의 몇 % 까지 기부하시겠습니까? (_____ %)



3.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는 가장 큰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기부한다
- ②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부한다
- ③ 동정심 때문에 기부한다
- ④ 개인적인 행복감 때문에 기부한다
- ⑤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 기부한다
- ⑥ (불러주지 말 것!) 기타(적을 것: _____)

4. 위의 '기부하는 내적 동기' 외에 다음 중 귀하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단수] (→문6번으로)

- ① 경제적 여유
- ②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 ③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 ④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요청을 받는 경우
- ⑤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 ⑥ (불러주지 말 것!) 기타(적을 것: _____)

※ 면접원 지시사항: 문5는 작년에 '기부한 적이 없는' 응답자 한정 질문임

5. (문2의 ②번 '기부한 적 없다'는 응답자만)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③ 기부 대상자 및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 ④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 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 ⑥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 ⑦ (불러주지 말 것!) 기타(적을 것: _____)

※ 면접원 지시사항: 지금부터는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할 것!

6.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7. [보기카드 3 제시]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대체로 고려한다	매우 고려한다
7-1 기부의 대상 및 분야(예: 아동, 장애인, 노인, 교육 등)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1	2	3	4
7-2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개인이 믿음만한가를 고려한다	1	2	3	4
7-3 기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7-4 기부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를 고려한다	1	2	3	4
7-5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기부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를 고려한다	1	2	3	4

8. [보기카드 4 제시] 귀하께서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가 아닌,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대체로 고려한다	매우 고려한다
8-1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8-2 운영 및 재정 투명성 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8-3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개선효과를 얼마나 갖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8-4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1	2	3	4
8-5 기부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8-6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등)을 제공하는가를 고려한다	1	2	3	4

다음은 '나눔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나눔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의 방법과 즐거움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설명문 4》를 응답자에게 보여주고, 읽게 한 후 질문할 것!

13. 다음의 나눔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 한다
13-1. 나눔교육은 학교(학교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2. 나눔교육은 부모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3. 나눔실천에 대한 강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직장, 종교단체, 각종 사회 단체 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4. 나눔실천에 대한 강조는 공공성이 높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터넷 온라인 기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기부는 기부를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 결제 및 핸드폰 소액결제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설명문 5》를 응답자에게 보여주고, 읽게 한 후 질문할 것!

1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업무시간 포함)

⇒하루(24시간)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15. 귀하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해본 적 있다 (→문16번으로)
- ② 해본 적 없다 (→문18번으로)

1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넷 온라인 기부의 유용성은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 ① 기부 절차나 방법이 간편해서
- ② 다양한 결제수단 이용이 가능해서
- ③ 소액기부도 가능해서
- ④ 원하는 기부처를 폭넓게 찾아 기부할 수 있어서
- ⑤ 기부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 ⑥ 기부 단체의 기부금 사용내역 및 운영 소식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 ⑦ 기부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낼 수 있어서
- ㉞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17. 인터넷 온라인 기부와 관련된 다음 문항들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후 문19번으로)

	예	아니오
17-1.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경험한 이후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자주 기부하게 되었다 (빈도)	①	②
17-2.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경험한 이후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많이 기부하게 되었다 (액수)	①	②
17-3.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계속 기부할 생각이다	①	②

18. 인터넷 온라인 기부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 때문에
- ② 인터넷 온라인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 ③ 기존의 기부방식이 익숙해서 바꾸고 싶지 않으므로
- ④ 인터넷으로 접하는 기부처(기부요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신뢰할 수 없어서
- ㉞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다음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전 10년간의 기부문화 발전,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기부문화 모습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9.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비슷하다 (비슷할 것이다)	아니다
19-1. 나의 기부는 수년(10년 이내)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①	②	③
19-2. 나의 기부는 수년(10년 이내) 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19-3. 우리사회 기부 문화는 수년(10년 이내)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활성화되었다	①	②	③
19-4. 우리사회 기부 문화는 수년(10년 이내) 후, 전반적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20. [보기카드 7 제시]귀하는 우리사회 기부문화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제도적 지원강화(세금공제 혜택 확대 등)
- ② 나눔교육 및 대중캠페인 활성화
- ③ 사회 내 모범적 기부 증대(또는 부유층 또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 ④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신뢰도 상승
- ⑤ 기부방법 다양화, 편리성 증대(기부기회 및 종류 다양화)
- ⑥ 비영리조직의 기부요청 노력의 증대
- ⑦ 내가 속한 공동체(직장, 종교단체, 모임 등)의 기부마인드 제고
-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2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어느정도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21-01. 사회복지 시설/단체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 미인가 시설 포함)	①	②	③	④
21-02.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환경, 여성, 인권 단체 등)	①	②	③	④
21-03. 문화예술 단체(미술관, 박물관 등) 및 협회	①	②	③	④
21-04. 자선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적십자, 이웃사랑회,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구세군자선냄비 등)	①	②	③	④
21-05. 교육기관 (초, 중/고, 대학교)	①	②	③	④
21-06. 의료기관(병원 등)	①	②	③	④
21-07.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①	②	③	④
21-08.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등)	①	②	③	④
21-09. 정당(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①	②	③	④
21-10. 이익단체, 경제인 단체(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전경련, 경총 등)	①	②	③	④
21-11. 대기업	①	②	③	④
21-12.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21-13.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21-14. 지방정부(도, 시, 군, 구)	①	②	③	④
21-15. 사법 기관(법원 등)	①	②	③	④
21-16. 언론기관 (방송사, 신문사 등)	①	②	③	④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천주교(가톨릭) ③ 불교
- ④ 기타() ⑤ 믿는 종교 없다
-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DQ2.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⑦ (불러주지 말 것!) 기타()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DQ3.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금액 단위 주의)

DQ4. 귀하의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만원(※ 금액 단위 주의)

DQ5. 귀하 댁의 가족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십니까?

_____명

DQ6. 귀하 댁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모두 몇 명이십니까?

_____명

DQ7.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현재 배우자가 있다)
- ③ 이혼 ④ 사별 (불러주지 말 것!) 모르겠다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Chul Hee Kang

오랜 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Chul Hee Kang

Giving & Volunteering in Korea: Exploration of Predictors

Yonsei University
Chul Hee Kang

Introduction

- There can be diverse types of giving such as charitable secular giving, faith-based giving, and mutual aid giving (congratulatory and sympathetic giving).
- It is necessary to explore current giving patterns by citizens related to diverse types of giving because the patterns can be different by societies with different cultures.
-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degrees of three types of giving in terms of amounts and ratios by family income and attempts to explore predictors on each type of giving (ratio by family income: giving effort).
- This presentation also focuses on volunteering effort in terms of secular volunteering hours and total secular volunteering hours throughout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ttempts to explore predictors on each type of volunteering effort.

Previous Studies on Giving & Volunteering

1. Demographic Variables in Giving & Volunteering

: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marital status, occupation, family size, place of residence, etc.

2. Perceptual and Behavioral Variables in Giving & Volunteering

: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or giving, trust, socialization on sharing, value on philanthropy, consideration on transparency, acceptance in social distance, awareness of need, etc.

3. New Concerns on Other Types of Giving

: faith-based giving and mutual aid giving

Method

❖ Data

- a nation-wide survey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Koreans
- conducted b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n Korea (June 16 ~ September 20, 2008)
- used interview technique focusing on donation and volunteering behavior and perception of individual citizens during the year 2007(1,016 subjects)
- used input approach (measures the scale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showing the interviewee the lists of specific recipients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and asking if the interviewee has donated to or volunteered for each recipient)

❖ Data Analysis Method

- Tobit Analysis: Estimating an OLS regression equation with the censored data or sample selected data can produce invalid inferences (Smith & Brame, 2003). Tobit estimator is widely accepted as the more reasonable estimator on the censored data.

Method

❖ Variables and Measurements

- **Dependent Variables** : secular giving effort, faith-based giving effort, mutual giving effort
secular volunteering hours, total secular volunteering hours throughout religion
- **Independent Variables**
 - **demographic variables**
: religion(protestant, catholic, buddhist: ref.: none and others), family income(family income and squared family income), gender, age(age and squared age), marital status(single, married: ref.: none and others), occupation(own small business, housewife, blue collar job, white collar job: ref.: others), education(ordinal measure)
 - **perceptual and behavioral variables**
: participation in secular volunteering or giving, socialization on sharing, value on philanthropy, trust on social institutions, acceptance on distant recipient
- **Measurements**
 - **secular giving effort**: ratio of secular giving in family income
 - **faith-based giving effort**: ratio of faith giving amount
(offerings+charitable contributions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in family income
 - **mutual giving effort**: ratio of mutual aid giving amount in family income
 - **volunteering hours**: hours for secular volunteering without & throughout religious organizations
 - **religious volunteering hours**: hours for religious volunteering
 - **secular volunteering**: participation in secular volunteering
 - **secular giving**: participation in secular giving
 - **socialization on sharing**: giving and volunteering experiences
 - **value on philanthropy**: cognition on value of philanthropic education
 - **social trust**: degree of trust on charity related institutions
 - **acceptance on distant recipient**: permission for distance of recipient by giving

Results: Descriptive Results

Social Economic Status of the Respondents

	n	%		n	%
gender (n=1,016)			education(1,007)		
male	497	48.9	elementary school	57	5.7
female	519	51.1	middle school	82	8.1
marital status (n=1,015)			high school	460	45.7
single	245	24.1	undergraduate	91	9.0
married	737	72.6	graduate	305	30.3
others	33	3.3	doctorate	12	1.2
religion (n=1,016)			occupation(1,016)		
protestant	224	22.0	own business	156	15.4
catholic	68	6.7	housewife	256	25.2
buddhism	226	22.2	blue collar	229	22.6
others	498	49.0	white collar	227	22.4
			others	147	14.5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Family Income

Variable	Obs	Mean	Std.Dev.	Min	Max
family income	989	335.3943	155.6194	30	1100

Trust on Social Institution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overall trust	1014	39.0927	6.91988	16	64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trust(1)	1016	18.8435	2.99097	7	28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trust(2)	1014	20.2465	4.84858	9	36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Socialization on Sharing & Value on Philanthropic Education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ocialization	1015	13.4197	2.914157	9	18
value on sharing	1016	14.89665	2.345134	6	20

Participation in Secular Volunteering

secular giving	Proportion	Std. Err.
no	.8425197	.0114333
yes	.1574803	.0114333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Mutual Giving, Secular Giving, and Faith-based Giving

mutual giving	n	%
no	339	33.4
yes	677	66.6

faith-based giving	n	%
no	755	74.3
yes	261	25.7

secular giving	n	%
no	457	45.0
yes	559	55.0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Total Amount in Giving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only secular giving	1016	83.5935	382.6106	0	5306
only faith based giving (offering+thr.religious giving)	1016	262.1368	1076.285	0	20000
only mutual giving	1016	438.5433	680.1417	0	6000
secular+thr.religious giving	1016	109.2569	436.9659	0	5360
only offering	1016	232.7726	1011.063	0	20000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Giving Effort: Ratios by Family Income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ecular giving effort	1006	0.24549	1.066867	0	16.66667
faith based giving effort	1012	0.7227	2.213686	0	20
mutual giving effort	1000	1.575356	3.041769	0	41.66667
secular+thr. religious giving	1006	0.310773	1.122165	0	14.57143
offering effort	1012	0.645922	2.067185	0	20

Results : Tobit Analysis on Secular Volunteering Effort

Insecure-e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ender	gender	-0.40788	0.5709	-0.71	0.475	-1.528245 0.712489
education	education	0.031995	0.259944	0.12	0.902	-0.4781332 0.542123
age	age	-0.1439	0.161223	-0.89	0.372	-0.4602913 0.172496
	age_sq	0.001019	0.001814	0.56	0.575	-0.0025418 0.00458
family income	family income	-0.00345	0.005009	-0.69	0.491	-0.0132798 0.006379
	family income_sq	4.04E-06	5.04E-06	0.8	0.422	-5.84E-06 1.39E-05
giving	faith_giv_effort	-0.10669	0.446929	-0.24	0.811	-0.9837646 0.770392
	secular_giv_effort	1.157687	0.655328	1.77	0.078	-0.1283655 2.443739
	mutual_giv_effort	0.471557	0.375234	1.26	0.209	-0.2648242 1.207937
socialization & value	socialization	0.36781	0.088176	4.17	0	0.1947682 0.540852
	value_cognition	0.112952	0.101665	1.11	0.267	-0.0865613 0.312466
religion	Protestant	0.83989	0.70998	1.18	0.237	-0.5534148 2.233194
	Catholic	1.868911	0.926337	2.02	0.044	0.0510146 3.686807
	Buddhism	1.614432	0.613295	2.63	0.009	0.4108677 2.817996
social_agency_trust	social_agency_trust	-0.01694	0.035037	-0.48	0.629	-0.0856967 0.051821
dist_acceptance	recipient	0.13981	0.233439	0.6	0.548	-0.316341 0.59596
partn_for_giving	partn_for_giving	0.930226	0.544223	1.71	0.088	-0.1377786 1.99825
occupation	own_business	-0.580416	0.961947	-0.6	0.546	-1.307362 2.468193
	housewife	-0.80517	1.016482	-0.79	0.428	-2.799976 1.189627
	blue-collar	0.642284	0.860413	0.75	0.456	-1.046239 2.330807
	white-collar	0.601824	0.869399	0.69	0.489	-1.104333 2.307981
marital_status	married	0.789625	0.823713	0.96	0.339	-0.8308013 2.410051
religious_vol_hour	religious_vol_hour	6.515366	1.823924	3.57	0	2.935995 10.09474
	_cons	-8.67953	3.984664	-2.18	0.03	-16.49926 -0.8598
	/sigma	4.674765	0.336635			4.014133 5.335397

T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976
 LR chi2(23) = 88.32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661.39594
 Pseudo R2 = 0.0626

Obs. summary: 830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hsecurevoltime==0
 146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Results : Descriptive Results

Secular Volunteering Effort : Volunteering Hours without & throughout Religious Organization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ecular volunteering hours	1016	7.51	38.24	0	540
secular+thr. religious organizations	1016	8.21	39.49	0	540

Religious Volunteering Effort : Volunteering Hour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religious volunteering hours	1016	0.7	8.39	0	200

Results : Tobit Analysis on Secular Volunteering Effort

Insecure-e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ender	gender	-0.52462	0.541665	-0.97	0.333	-1.587611 0.538377
education	education	0.026568	0.245449	0.11	0.914	-0.4551144 0.508251
age	age	-0.1281	0.152627	-0.84	0.401	-0.4276271 0.171419
	age_sq	0.000912	0.001717	0.53	0.596	-0.0024588 0.004282
family income	family income	-0.00317	0.004732	-0.67	0.503	-0.0124561 0.006115
	family income_sq	3.79E-06	4.76E-06	0.8	0.426	-5.55E-06 1.31E-05
giving	faith_giv_effort	-0.01852	0.417931	-0.04	0.965	-0.8386913 0.801653
	secular_giv_effort	0.93726	0.623048	1.5	0.133	-0.2854447 2.159965
	mutual_giv_effort	0.407034	0.353366	1.15	0.25	-0.2864311 1.100499
socialization & value	socialization	0.346301	0.08285	4.18	0	0.1837121 0.50889
	value_cognition	0.114471	0.096183	1.19	0.234	-0.0742837 0.303226
religion	Protestant	0.781162	0.672199	1.16	0.245	-0.5379988 2.100322
	Catholic	1.863496	0.867533	2.15	0.032	0.1610015 3.565991
	Buddhism	1.569938	0.579765	2.71	0.007	0.4321749 2.707701
social_agency_trust	social_agency_trust	-0.01336	0.032986	-0.4	0.686	-0.078093 0.051375
dist_acceptance	recipient	0.195636	0.218815	0.89	0.372	-0.2337789 0.625051
partn_for_giving	partn_for_giving	0.876267	0.513069	1.71	0.088	-0.1306085 1.883142
occupation	own_business	-0.583378	0.907681	-0.64	0.521	-1.197906 2.364662
	housewife	-0.62471	0.959324	-0.65	0.515	-2.50734 1.257923
	blue-collar	0.604876	0.814227	0.74	0.458	-0.9930093 2.20276
	white-collar	0.622542	0.822442	0.76	0.449	-0.9914649 2.236549
marital_status	married	0.723352	0.779965	0.93	0.354	-0.8072947 2.253998
religious_vol_hour	religious_vol_hour	10.53553	1.670821	6.31	0	7.256615 13.81444
	_cons	-8.54083	3.768381	-2.27	0.024	-15.93611 -1.14555
	/sigma	4.441629	0.31093			3.831443 5.051814

T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976
 LR chi2(23) = 124.60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672.32185
 Pseudo R2 = 0.0848

Obs. summary: 823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hsecurevoltime==0
 153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Results : Tobit Analysis on Secular Giving Effort

secular giving effort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iving effort	mutual giv. effort	0.1175568	0.027423	4.29	0	0.0637412	0.171373
	faith giv. effort	-0.0210328	0.032461	-0.65	0.517	-0.0847355	0.04267
volunteering	secular vol.	0.1152134	0.044999	2.56	0.011	0.0269048	0.203522
socialization & value	socialization	0.0363938	0.00616	5.91	0	0.0243061	0.048482
	value cognition	0.0206588	0.007595	2.72	0.007	0.0057547	0.035563
religion	protestant	0.1363772	0.04975	2.74	0.006	0.0387454	0.234009
	catholic	0.1217923	0.070306	1.73	0.084	-0.0161811	0.259766
	buddhism	0.0569561	0.044281	1.29	0.199	-0.0299436	0.143856
family income	family income	0.0006137	0.000374	1.64	0.101	-0.00012	0.001347
	family income_sq	-5.96E-07	4.00E-07	-1.49	0.136	-1.38E-06	1.89E-07
gender	gender	0.0055895	0.043173	0.13	0.897	-0.0791362	0.090315
age	age	0.0252923	0.012217	2.07	0.039	0.0013172	0.049267
	age_sq	-0.0002458	0.000135	-1.82	0.07	-0.0005114	1.97E-05
marital status	single	-0.0602773	0.125805	-0.48	0.632	-0.307164	0.186609
	married	0.0032944	0.109028	0.03	0.976	-0.210668	0.217257
social agency trust	social agency trust	0.0176019	0.017648	1	0.319	-0.0170313	0.052235
dist. acceptance	recipient	0.0360873	0.016867	2.14	0.033	0.0029867	0.069188
	own business	0.0360095	0.070356	0.51	0.609	-0.102062	0.174081
occupation	housewife	0.0000909	0.072453	0	0.999	-0.142095	0.142277
	blue collar	-0.0915621	0.065263	-1.4	0.161	-0.2196389	0.036515
	white collar	-0.0026148	0.065589	-0.04	0.968	-0.1313308	0.126101
	education	education	0.0219494	0.0186	1.18	0.238	-0.0145526
_cons	_cons	-1.855491	0.318922	-5.82	0	-2.481362	-1.22962
	/sigma	0.4568527	0.01498			0.427455	0.48625

Obs. summary: 464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only_sec_tot_<=0
510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974
LR chi2(22) = 171.31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577.06799
Pseudo R2 = 0.1292

Results : Tobit Analysis on Faith-based Giving Effort

faith giving effort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iving effort	mutual giv. effort	0.311176	0.074252	4.19	0	0.1654617	0.45689
	secular giv. effort	-0.03051	0.132369	-0.23	0.818	-0.2902737	0.229256
religion	protestant	2.356598	0.15289	15.41	0	2.056562	2.656635
	catholic	2.128182	0.192963	11.03	0	1.749504	2.506859
	buddhism	1.339123	0.146625	9.13	0	1.051381	1.626865
family income	family income	-0.00137	0.001012	-1.35	0.177	-0.0033523	0.000618
	family income_sq	1.79E-06	1.05E-06	1.71	0.088	-2.68E-07	3.86E-06
gender	gender	0.191507	0.120548	1.59	0.112	-0.0450602	0.428074
age	age	0.020947	0.032845	0.64	0.524	-0.0435084	0.085402
	age_sq	-6.7E-05	0.000362	-0.19	0.852	-0.0007768	0.000642
marital status	single	0.088544	0.337437	0.26	0.793	-0.573654	0.750743
	married	0.08011	0.278479	0.29	0.774	-0.4663858	0.626605
occupation	own business	0.318337	0.205971	1.55	0.123	-0.085867	0.72254
	housewife	0.297329	0.204895	1.45	0.147	-0.1047629	0.699421
	blue collar	0.263193	0.191595	1.37	0.17	-0.1128008	0.639186
	white collar	0.377534	0.196005	1.93	0.054	-0.0071121	0.762179
education	education	0.076855	0.052107	1.47	0.141	-0.0254027	0.179112
	_cons	-3.48594	0.829105	-4.2	0	-5.113004	-1.85888
/sigma	/sigma	1.048666	0.04813			0.9542131	1.143119

Obs. summary: 691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faith_tot_<=0
288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979
LR chi2(17) = 442.47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631.93205
Pseudo R2 = 0.2593

Results : Tobit Analysis on Mutual Aid Giving Effort

mutual giving effort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iving effort	faith giv. effort	0.17927	0.055527	3.23	0.001	0.0703014	0.288238
	secular giv. effort	0.249048	0.086505	2.88	0.004	0.0792866	0.418809
religion	protestant	-0.27389	0.085931	-3.19	0.001	-0.4425241	-0.10526
	catholic	0.015068	0.121354	0.12	0.901	-0.2230823	0.253218
	Buddhism	0.076736	0.072833	1.05	0.292	-0.0661952	0.219666
family income	family income	-0.00147	0.000617	-2.38	0.018	-0.0026762	-0.00026
	family income_sq	9.28E-07	6.71E-07	1.38	0.167	-3.89E-07	2.25E-06
gender	gender	-0.15117	0.072763	-2.08	0.038	-0.2939582	-0.00838
age	age	0.076747	0.020329	3.78	0	0.0368531	0.116641
	age_sq	-0.00062	0.000223	-2.78	0.006	-0.001059	-0.00018
marital status	single	0.129253	0.20591	0.63	0.53	-0.2748302	0.533337
	married	0.192845	0.175796	1.1	0.273	-0.1521426	0.537833
occupation	own business	0.362152	0.118059	3.07	0.002	0.1304684	0.593835
	housewife	0.299753	0.121631	2.46	0.014	0.0610603	0.538445
	blue collar	0.244917	0.107848	2.27	0.023	0.0332733	0.456561
	white collar	0.413638	0.1113	3.72	0	0.1952192	0.632057
education	education	0.03393	0.031129	1.09	0.276	-0.0271586	0.095019
	_cons	-1.59809	0.499423	-3.2	0.001	-2.578171	-0.618
/sigma	/sigma	0.825665	0.024562			0.7774643	0.873866

Obs. summary: 327 left-censored observations at ln_peffort_giv_mutual_tot_<=0
652 uncensored observations
0 right-censored observations

T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979
LR chi2(17) = 228.58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1062.4742
Pseudo R2 = 0.0971

Interpretations : Secular Volunteering Effort

1. Secular Volunteering Effort
significant predictors
: religious volunteering hour(+), socialization on sharing(+), catholic(+), buddism(+), participation in secular giving(+), secular giving effort(+)

2. Total Secular Volunteering Effort: Inclusion of Religious Secular Volunteering Hours
significant predictors
: religious volunteering hour(+), socialization on sharing(+), catholic(+), buddism(+), participation in secular giving(+)

There can b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us volunteering effort and volunteering effort; between religious affiliation and volunteering effort; and between socialization on sharing and volunteering effort.

☐☐ Interpretations : Secular Giving Effort

significant predictors

: mutual aid giving effort(+), volunteering(+), socialization on sharing(+), value(+), protestant(+), age(+) & squared age(-), distance acceptance on recipients(+)

noticeable non-significant predictor

: faith-based giving effort(-)

It may signal that religious giving reflects religious citizens' combined responsibility for neighbors as well as God.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re can b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mutual aid giving effort and secular giving effort.

☐☐ Interpretations : Faith-based Giving Effort

significant predictors

: mutual aid giving effort(+),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ticeable predictor

: mutual aid giving effort(+)

Unlike mutual aid giving effort and secular giving effort, th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aid giving effort and faith-based giving effort is not a bi-lateral relationship; rather, faith-based involvement can be a source for mutual aid giving among faith-based organizational members as interpreted in the previous analysis on mutual aid giving effort.

☐☐ Interpretations : Mutual Aid Giving Effort

significant predictors

: faith-based giving effort(+), secular giving effort(+), protestant(+), family income(-), age(+) & squared age(-), all occupational groups(+)

noticeable predictor

: faith-based giving effort(+), secular giving effort(+), family income(-) and age(+) & squared age(-)

As indicated in secular giving effort, there can b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mutual aid giving effort and secular giving effort.

Faith-based involvement can be a source for mutual aid giving among faith-based organizational members.

☐☐ Implications : Among Three Types of Giving

Secular Giving, Faith-based Giving, and Mutual Aid Giving

1. Needs to be further diversely explored on current practice of these different types of giving by different nat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2. Needs to be examined for core predictors on each type of giving with the concern on mutual influences (directions) of different types of giving
3. Needs to be investigated by using a panel data rather than cross-sectional data on these research topics

 **Implications** : Secular Volunteering Effort

Secular Volunteering Hours: Without and Throughout Religious Involvement

1. Needs to be further diversely explored with the concern about duration of secular volunteering in the future research
2. Needs to be examined for core predictors on secular volunteering hour with special attention on religious volunteering hour
3. Needs to be investigated by using a panel data rather than cross-sectional data on these research topics for volunteering efforts

 **Thank you**

Giving USA
Melissa S. Brown

Giving USA

Melissa S. Brown

Associate Director of Research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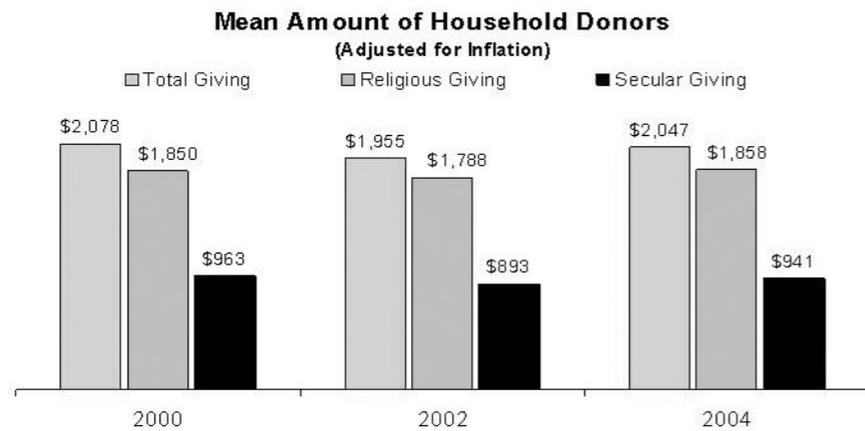
Giving USA

Melissa Brown
The Center on Philanthropy
Indiana University

Trends in Individual Giving

- Informal and primarily to religious organizations before 20th century
- Became formal and institutionalized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 Great wealth created: i.e. Rockefeller, Carnegie
 - Private foundations established
 - Community chest movement started
- In 1973, 88% of households contributed money
- Within a few weeks after the 9/11 tragedy, 58% of Americans reported giving time or money

Individual Giving, 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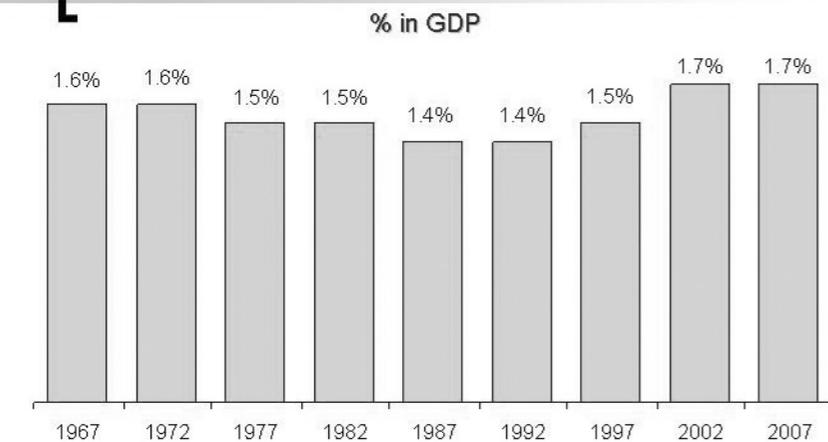
Source: COPPS, COP

Trends in Individual Giving, 196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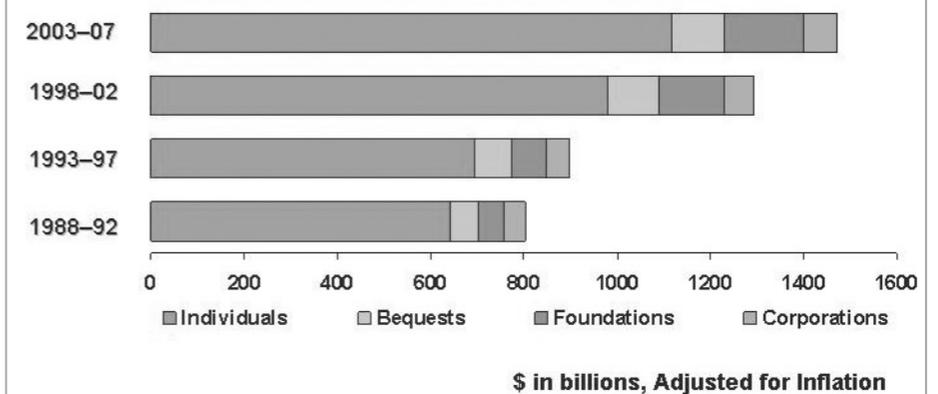
Source: Giving USA, 2008

Individual Giving, 196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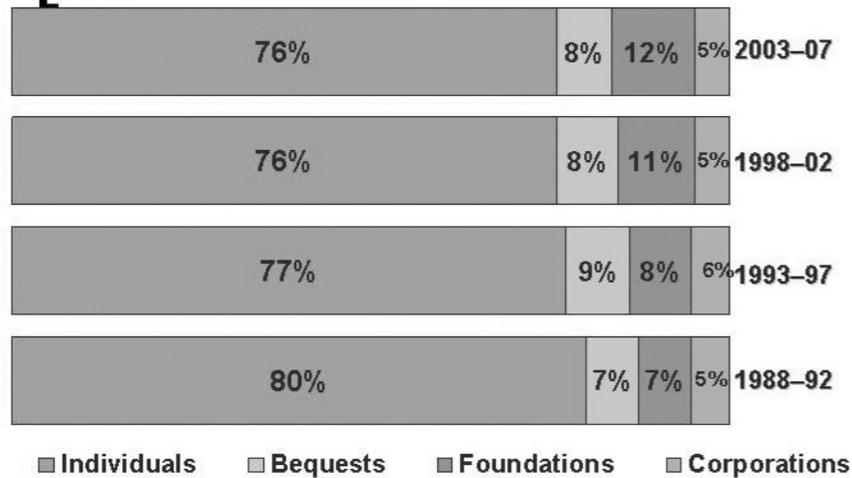
Source: Giving USA, 2008

Total Giving by Type of Donor, by 5-year span, 1988-92 to 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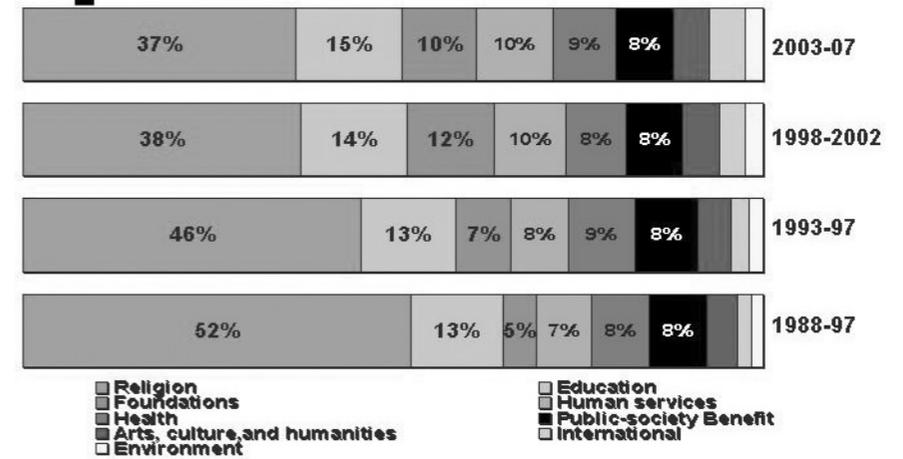


Giving USA uses the CPI to adjust for inflation.

Percentage of Total Giving by Donor Type by 5-year span, 1988-92 to 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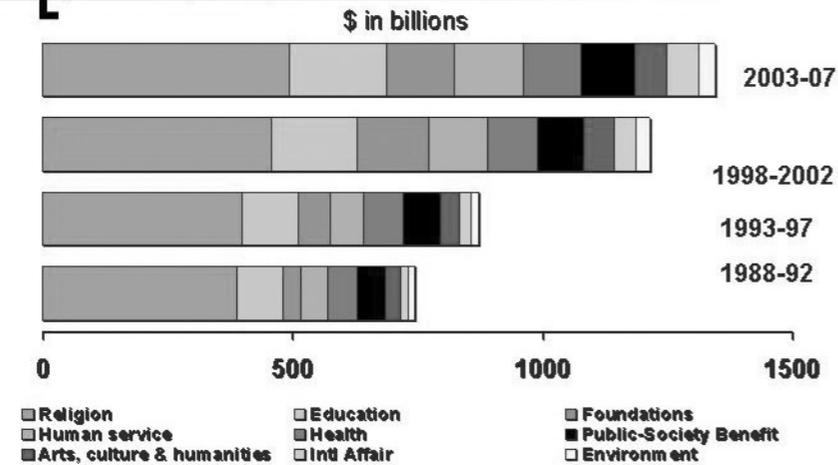


Giving by Type of Recipient as a Percentage of Total Giving



Data begin in 1978 for foundations and in 1987 for environment/animals and international affairs.

Giving by Type of Recipient by 5-year span, 1988-92 to 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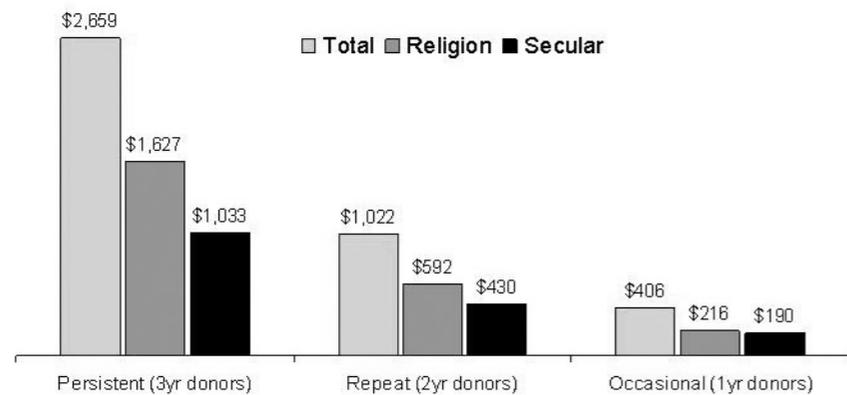


Data in Giving USA book.

Motivation for Giving

- Scholars found the following motivations for giving:
 - Altruism and Self-interest
 - Empathy
 - Sympathy
 - Pity/ Guilt
 - Social justice
 - Prestige and 'Making a Difference'
- Top three motivations for rich donors:
 - Meet critical needs
 - Giving back to society
 - Reciprocity

Continuity and Mean Gift Amount by households



Source: COPPS, COP

Factors Related to Giving for households

- Income ↑ Giving ↑
- Education level ↑ Giving ↑
- Donor advised funds by for-profits
- Fundraising professionals
- Tax policies (ability to give bequests at death tax free, etc.)
- Other supports for charities

Factors Related to Giving – all donor types

Other supports for charity

- Government registers charities. Groups can qualify by meeting “public support test” : 33% of revenue from public each year.
- Charities not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on most income (exceptions for some types of earned income)
- Federal regulations limit benefits that trustees or executives can derive from charity’s work.
- Tax code permits tax deductions for gifts by individuals or corporations to charity.
- States have laws to prevent fraud, register fundraising activity, create “Do Not Call” lists, grant (or not) exemption from property tax, exemption from sales tax.

Tax and Giving

- 501c4 ~ 501c25- non-charitable organizations
 - Social welfare, Social clubs, Veterans’ orgs. Labor unions, Marketing cooperatives, etc
- 501c3- charitable organizations
 - All others that don’t fit in above, including religious
- All the 501c organizations are exempt from taxation on their income
- Donations to 501c3s are deductible b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for income tax purposes and for estate and gift tax purposes
- Contributions to 501c others are not deductible with a few exceptions
- A decrease of \$1 in the cost of giving can predict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1.50 in donation to charity (Peloza & Steel, 2005).

[Unique Aspects in the U.S.]

- Many foundations
 - Their assets reached \$551B in 2005
 - The number exceeded 71,000 in 2005
- Many Rich donors
 - The largest amount contributed and reported as paid in 2007 was \$475 M from George Soros.
 - The minimum gift total of top donors on the Slate 60's report was \$30 M.
- High proportion of charitable bequests
 - 7.6% of total giving in 2007

[Unique Aspects in the U.S.]

- Planned giving
 - a gift that a donor makes in consideration of all other financial planning objectives in order to maximize the potential benefit of the gift to the donor as well as the charity, and to minimize the net cost of the gift
 - Lifetime outright giving- donor gives up all right, title, and economic interest in the contributed property
 - Lifetime split-interest gifts- no tax benefits are available for contribu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in which the donor gives less than his or her total interest in the property.
 - Testamentary gifts and Split-interest gifts for survivors- the economic benefit of the contribution is realized by the named charitable organizations after the death of the donor or a number of years after their death.

[Current Issues in the US]

-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 approved a new rule on 11/20/2007 allowing nonprofits to run issue ads during the election
- A new caucus containing 25 member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formed in the fall of 2007 to discuss legislative goals that affect charities and foundations.

[Sources]

- Peloza, J. and Steel, P. 2005. The Price Elasticities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vol.24, no.2. p.260-272

Giving in Australia

Kym Madden



Giving in Australia

Kym Madden

Senior Research Fellow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Giving in Australia

Kym Madden PhD MA (Hons)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1. Future View
2. Current Scene
3. Momentum
4. What is Shaping Giving
5. Efforts to Cultivate Giving



Uncertainties

Internal Factors

- Funding instability
- Capacity constraints

Environmental factors

- Regulatory and governance pressure
- Ageing population, growing diversity, and rising demand for services
- Small, ad-hoc donations the norm



Vision for philanthropy in Australia

- A nation of planned givers
- Giving at higher levels 'normal' for the wealthy



The current scene

Australians give 0.68% of GDP

AUD \$11 billion in 2004



Based on Giving Australia research

- 12 months to Jan. 2005 for individuals
- 2003 – 2004 FY for business
- Excluding Tsunami giving

Individuals

AUD \$7.7 billion

Includes \$2b charity gambling/event

– **87%** of Australians donate at least once

COMMONLY SPONTANEOUS, LOW-LEVEL GIVING

Businesses

AUD \$3.3b from businesses

Includes money in-kind gifts sponsorships partnerships

67% of businesses donate at least once

COMMONLY LOW LEVEL GIVING NOT PART OF BUDGET

Leaving a Charitable Bequest

- **How much?** Lack data (also not possible to calculate until bequest made)
- NPOs rate bequest income as vital to operations
- (1 in 10 say it is most significant source of funding)
- **BUT low** compared to inter vivos giving
 - In Victoria in 2006, just 5% of all estates
 - 1% of total value of estates
 - 7.5% have named a charity in their will
 - Only 58% have wills
- 2008 research: open-minded but not convinced



Spotlighting Giving in Australia

- Giving amount:
 - Average \$424 pa - median donation \$100
- Commonly unplanned:
 - **Only 16% described giving as planned**
 - 50% describe giving as spontaneous
 - 31% describe it as a mixture of both
- Commonly infrequent:
 - 48% are repeat donations to same NPO
 - 51% of donations are one-off
- Highly variable:
 - **Average planned donation - \$238 pa**
 - Average spontaneous donations - \$59



Giving Australia 2005

Overall: Preferred Caus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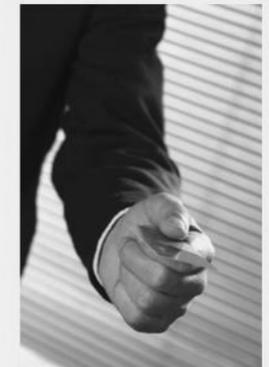
Community and Welfare Organisations

Most consistently supported

- \$1 out of every \$8 given by individuals
- Almost \$1 in \$3 from business
- 1 in every 4 hours volunteered

Health and medical research

Also strong recipients



Giving Australia 2005

Who g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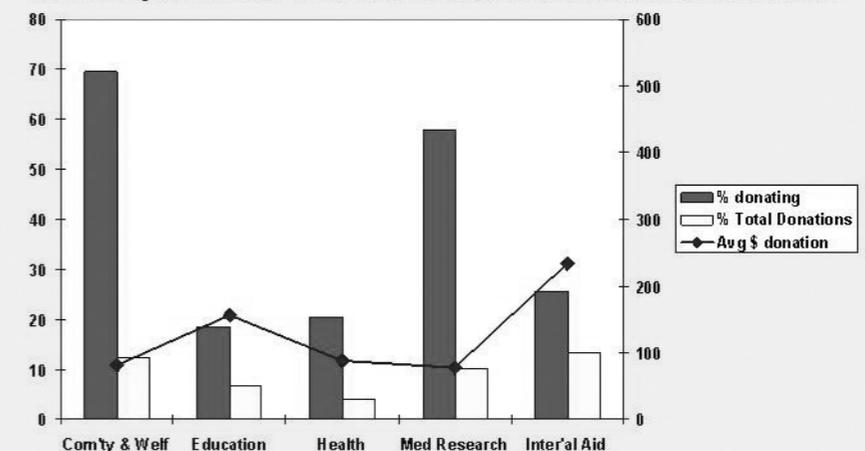
- Age
 - Middle-aged *more likely* to give
 - Those over 65 give the *largest* average donation
- Gender
 - Women *more likely* to give (90% vs. 84% men)
 - Men give *more money* (\$477 vs. \$377 women)
- Income
 - Higher income *more likely* to give and to *give larger average donations*
 - e.g. incomes over \$52,000: 91% give (87%) average donation \$769 pa (\$424)
 - **But not much more, given capacity**



Giving Australia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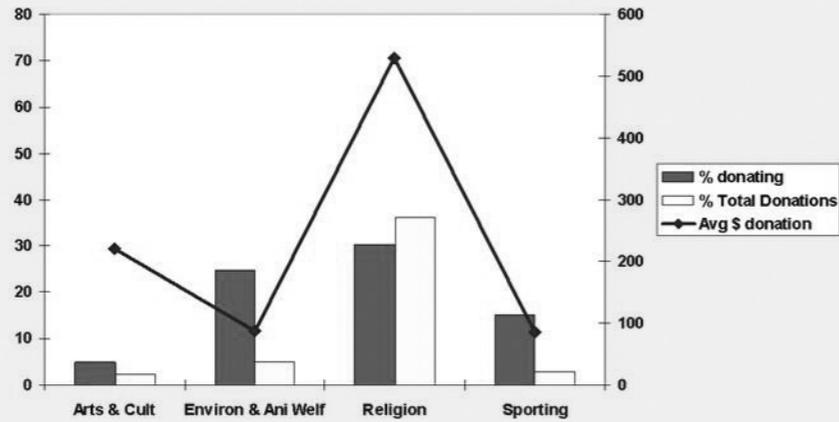
Support for Cause Areas – Individuals

Community & Welfare, Education, Health, Medical Research, Internat. Aid



Giving Australia 2005

Continued... Arts & Culture, Environment & Animal Welfare, Religious Orgs. and Sporting Groups



Giving Australia 2005

Affiliated giving by recipient sector

	% with form of affiliation	Mean by non-affiliated givers (\$)	Mean by affiliated givers (\$)	% total donations by affiliated givers
Community or Welfare Services	24.0	82	96	26.9
Education	73.1	54	131	87.0
Health Services	48.1	65	88	56.1
Medical Research	30.4	77	94	34.3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18.5	252	360	26.9
Arts or Cultural Associations	64.1	87	140	73.1
Environmental or Animal Welfare Groups	15.1	64	143	29.0
Religious or Spiritual Organisations	69.8	277	575	82.7
Sporting Clubs	53.8	42	77	68.3
Total	34.1	114	214	49.2

Giving Australia 2005

Support for Religious Causes in Australia

- Relatively small donor numbers but high average donation
- Affiliated members give the most
- Religion tops all causes for affiliation giving in Australia
- Research highlights the value of affiliation giving in our country



Giving Australia 2005

The Time That We Give

Overall...

- 836 million hours in 2004
- Average per adult = 132 hours per year
- Median 44 hours pa

Who volunteers?

Gender

- Women volunteer *more often* and *for longer*

60% of all volunteering



Giving Australia 2005; AB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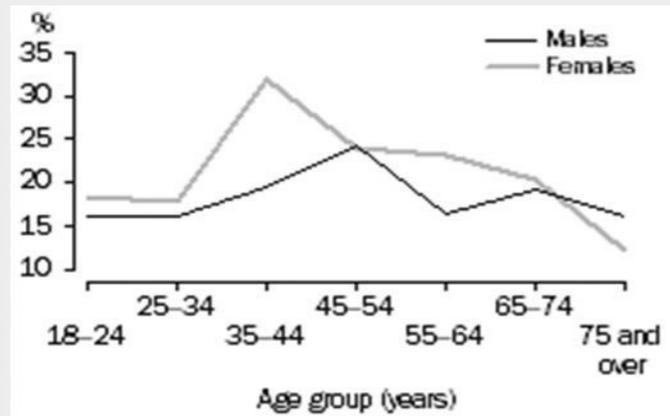
Who volunteers? (Continued)

- **Income**
 - Proportion constant across income bands
 - As income increases, *volunteering hours fall*
- **Education**
 - As education increases, more likely to volunteer but hours fall
- **Age**
 - Middle-aged volunteer *most often* but fewer hours
 - Older: capacity but proportion falls



Giving Australia 2005, AB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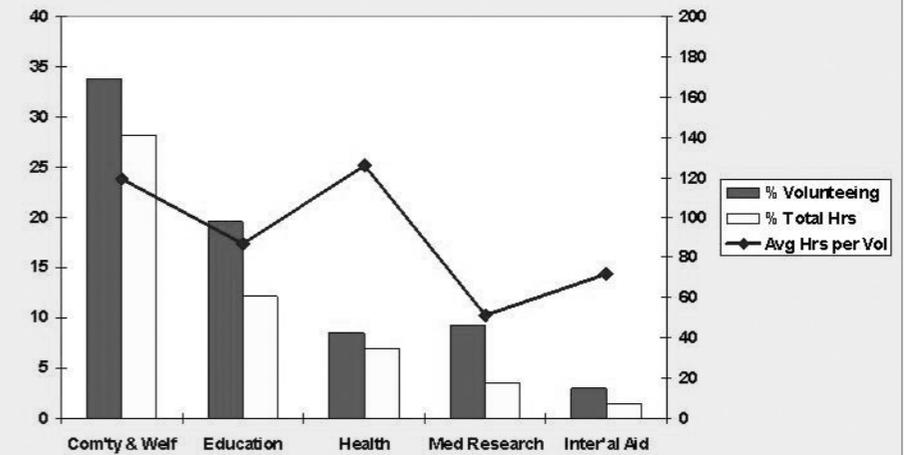
Percentage of Australians who Volunteer Regularly, by Age and Gender - 2006



Source: ABS 2006 Voluntary Work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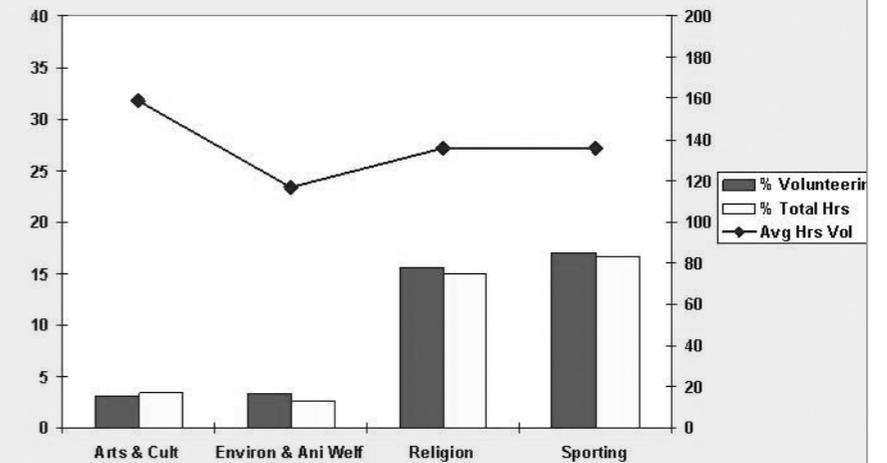
Where Australians Volunteer

Community & Welfare, Education, Health, Medical Research, Internat. Aid



Giving Australia 2005

Continued... Arts & Culture, Environment & Animal Welfare, Religious Orgs. and Sporting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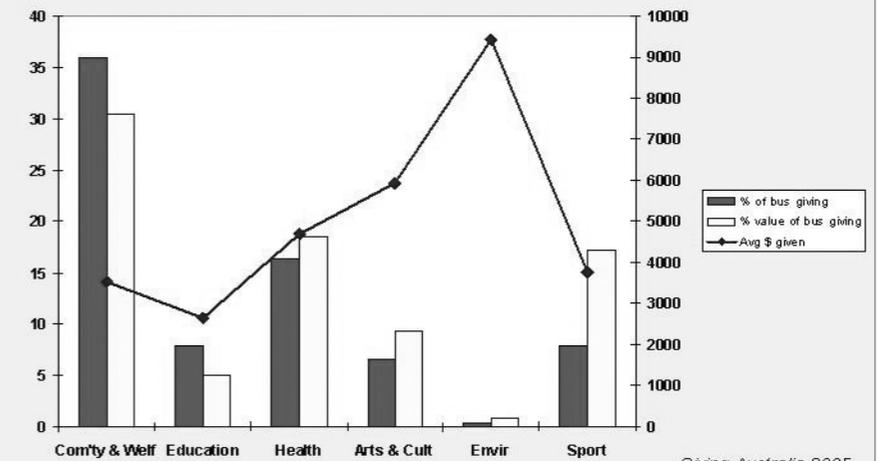


Giving by Private Foundations

- AUD \$471.7 m donated to PPFs in 2007
Increase of 74% from 2006
- Distributions by PPFs of \$117 m in 2007
Increase of 58% from 2006
- Strong support for cultural and welfare organisations

Recipients of Business Giving

Community & Welfare, Education, Health, Arts & Cultural, Environment, Sport



Giving Australia 2005

Giving by Australian Businesses

- 2 out of 3 give
- Mainly cash:
Goods (\$0.5b)
Services (\$0.5b)
Money (\$2.2b)....

Cash donations (58%)
Sponsorship (25%)
Partnerships (17%)



Giving Australia 2005

Giving and Volunteering by Recipient Sector - 2004

	Individual Donations (% total value)	Individual volunteering (% of total hrs)	Business giving (% total)
Community or welfare services	12.8	28.2	30.5
Education	6.6	12.2	5.0
Health (including medical research)	14.2	10.3	18.5
International aid	13.3	1.4	n/a
Arts or cultural associations	2.3	3.4	9.3
Environmental or animal welfare groups	4.8	2.6	0.9
Religious institutions	36.1	15.0	n/a
Sporting and recreational groups	3.7	19.7	17.7
Other	6.2	7.2	18.1
Total	100	100	100
Total Value	\$5.7 b	836 m hours	\$3.2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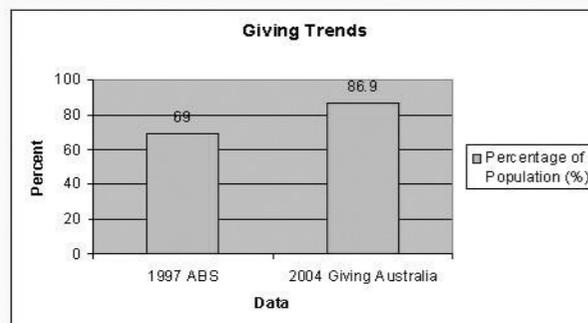
The View From Here: TRENDS in Giving



1. More Australians are giving
2. Total amounts increasing ✓
3. Greater capacity to give by wealthy ✓
4. More foundations being established ✓
5. Business is increasingly a site for giving ✓
6. The face of volunteering is changing ✓ x
7. Donations tend to be small x
8. Giving tends to be reactiv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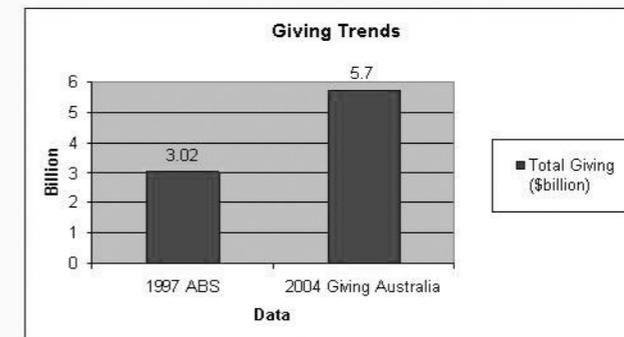
T1: Greater Proportion of Australians Giving

18% increase in 7 years
- now nearly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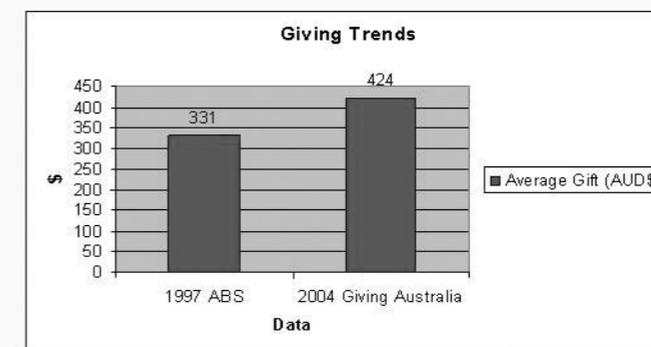
T2: Value of donations by individuals increasing

Total giving \$ rose 88% in 7 years
- 58% after inflation



Also...Average Donation Increasing

Up by more than a quarter - \$331 to \$424 -
in 7 years



T3: Greater capacity to give by wealthy

- The largest cohort of wealthy Australians have taxable incomes of \$100k - \$500k but only claim donations of **0.45% of their income, per average donor** (vs. 0.33% for lower income)
- Those with taxable incomes over \$1m give 0.98% of incomes but still well behind HNW giving trends
- 4 out of ten with taxable incomes between \$100,000 and \$1 million **did not claim any tax-deductible donations**

(McGregor-Lowndes & Newton 2007; Madden & Scaife 2008)



T4: More foundations being established

- 769 Prescribed Private Funds (PPFs) established since 2001, adding to existing foundations
- **Total value of \$1.5B from PPFs**
- Distributions to rise in coming years as agreed with Australian Taxation Office

(McGregor-Lowndes and Newton 2008)



T5: Business increasingly a site for giving

- LACK DATA but indications are that
 - Businesses becoming **more strategic** in their giving
 - Community involvement increasingly regarded as a way to maintain **reputation**, build **brands**, attract quality **staff** and build morale
 - Increase in 'partnerships' & multi-dimensional support
 - Increase in employee volunteering and dollar-matching programs
 - Large companies leading



T6: The Face of Volunteering is Changing

With qualitative studies showing we are interested but time-poor and we expect choice

- *Overall participation is up*
41% of all adults in 2004, up 7% in just two years
- Volunteering hours per person falling
- 'Bounce-in, bounce-out' volunteering is rising
- Interest in workplace volunteering is rising



T7: Donations tend to be small

- Do not see the need to give large gifts
 - 'Australians are not in need as elsewhere: we have safety nets'
 - 'Government is looking after those who need help (or should)'
 - 'Philanthropy belongs to the US and Europe...that's how they do it'
- We do not see ourselves as wealthy
 - 'We are doing fine but not rich'
 - 'We do not talk about money'
 - 'Money is new'
- We are 'outside' charities
 - Low connection
 - High cold-calling
 - 'Charity begins at home'



T8: Giving tends to be reactive

Only 16% plan their gifts each year

- Not on people's 'radar' to include charity in their budgets
 - Not thought about it
 - Not seen as needed
 - Not convinced can afford it



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 Long period of prosperity
- Growing population, diverse ethnicity, ageing
- Changing role of government: mutual responsibility, new limits to social support
- Living longer and medical costs rising: how much will be needed in retirement?
- Work patterns changing: little spare time. Recent economic downturn likely to mean delayed retirement
- Generational changes: as donors question authority and demand attention

Cultural Considerations

Attitudes

- Australians see themselves as equal – all in the same boat - even if they have money
- Happy to give in emergencies/tragedies
- Suspicion of motives for visible giving
- See giving as a highly personal decision, not a 'should'
- Expect government to provide safety net to the disadvantaged
- Expect taxation to pay for social programs

Mores

- Rare to see people giving at a high level
- Rare to talk about giving
- Low religious involvement
- Many older people have lived through depression and are frugal
- Many boomers are living 'the good life' and wanting the best for family
- Common to direct caring for own families

Characteristics of Australian Givers

- **High level givers**
 - Feeling passion
 - Feeling closely involved with charity
 - Perceived capacity to give
 - Personal values aligned to giving
- **Medium givers**
 - Giving in a group/social networks
 - Self identity
 - Respect for the work of the np organisation
 - Quality of communications
- **Negligible givers**
 - Not something they consider
 - No need to be philanthropic
 - Need for privacy
 - Concerns about charities

Private trusts and foundations in Australia

- Motivated to see systemic change
- Desire not to duplicate others... instead fund 'between the cracks' but will seek out partners
- Strategic and outcome-oriented
- Looking for innovation and new thinking
- Older entities have difficulties interpreting the wishes of founders



Strategies to Increase Giving



Taxation: Main Lever

- Adds to incentive to give for all
 - Like a tax break.
 - About **one in four dollars** donated to Australian NPOs is claimed as a tax deduction.
 - High income individuals are responsive to tax measures.
- Provides a framework for giving
- Means to measure giving

Measures by Australian Govt in 2001

'to encourage greater corporate and personal philanthropy in Australia'

- Centrepiece: the allowance of gift deductibility to private and corporate foundations known as **Prescribed Private Funds (PPFs)**
- 5-year averaging of donations
- Deductions for gifts of property over \$5,000
- Deductions for gifts of shares under \$5,000
- Deductions for minor benefit contributions (e.g. gala dinners)
- Deductions for workplace giving
- Conservation covenants
-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gifts within the Cultural Gifts Program

(AUD\$230 million over 5 years)

Other Strategies for change called for

Individual Nonprofit Organisations

- Strengthening donor involvement
- Improving donor closeness to the organisation
- Using innovative methods in soliciting gifts
- Encouraging personal contacts
- Promoting planned giving
- Streamlining fundraising operations.

Nonprofit Sector

- Encouraging strong leadership
- Encouraging greater collaboration
- Supporting professional upskilling
- Offering NPOs better support services

Strategies for change

Societal level

1. Further improving the legal, regulatory and taxation environment
2. Developing philanthropic infrastructure to increase awareness, education, interactions and access to resources about philanthropy eg giving circles
3. Implementing public campaigns that address cultural attitudes, values, norms and mores about philanthropy
4. Developing a national agenda for philanthropy research and action including a challenge to specific groups to giving goals.

Conclusion



Thank you



Sources

- ABS. (2006).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Australia 2005-2006 (cat no 6523.0)*.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 (2007). *Voluntary Work Survey, Australia (cat. no. 4441.0)*.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 (2008). *ABS 4102.0 - Australian Social Trends, 2008*.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 Baker, C. (2007). How Victorians leave their money - patterns of transmission and giving.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Bonyhady, B. (2008). *The Future of Australian Philanthropy: New Uncertainties and Opportunities*
- Paper presented at the Philanthropy Australia National Conference, Sydney, October.
- Giving Australia. (2005). *Giving Australia: Research on Philanthropy in Australia* (No. FaCS2006.0510). Canberra: Prime Minister's 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s, Department of Family & Community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www.fahscia.gov.au
- Lyons, M., & Passey, A. (2005). *Australians Giving and Volunteering 2004*.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 Madden, K., & Scaife, W. (2008). *Good Times and Philanthropy: Giving by Australia's Affluent*. Brisbane: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Madden, K., Scaife, W., & Crissman, K. (2006). How and why small to medium size enterprises (SMEs) engage with their communities: an Australi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1(1), 49-60.
- McGregor-Lowndes, M., & Newton, C. J. (2008). *An Examination of Tax Deductible Donations Made by Individual Australian Taxpayers*. Brisban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Volunteering Australia. (2004). *Submission on the Productivity Commission's commissioned study 'Economic Implications of an Ageing Australia'*.

Giving Japan
Yoshiho Matsunaga

Giving Japan

Yoshiho Matsunaga

Associate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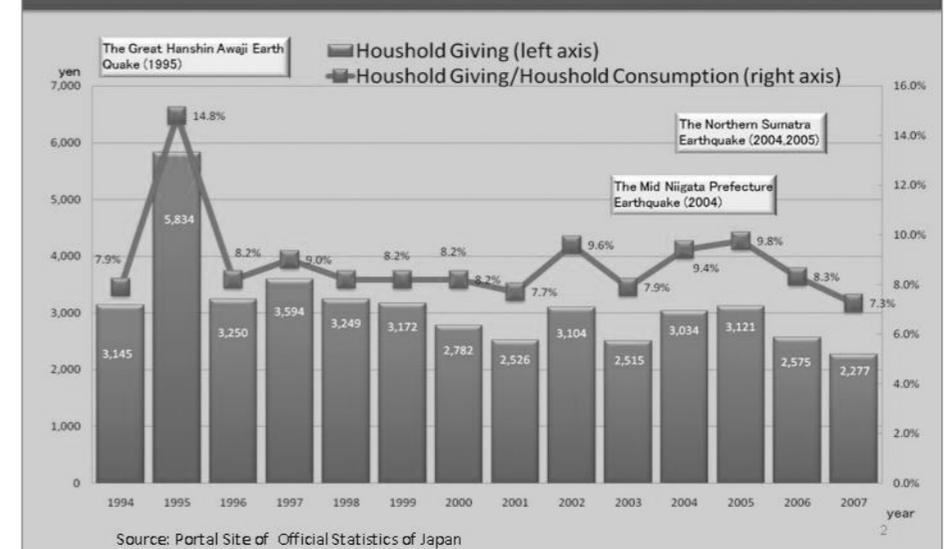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Executive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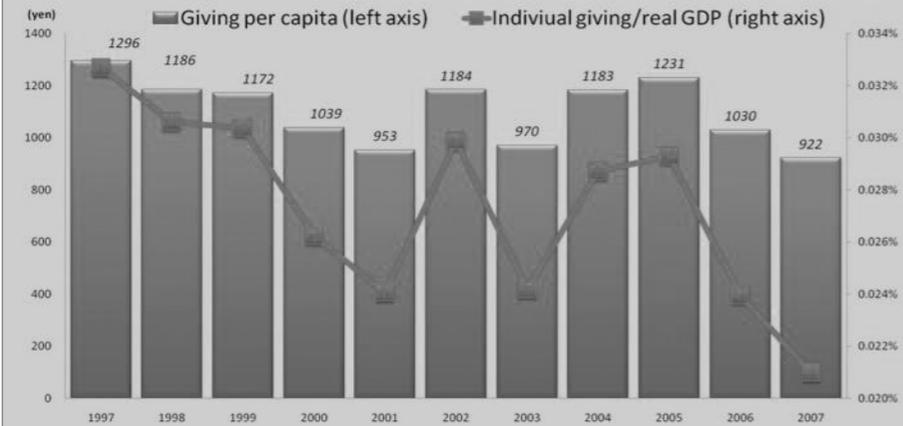
The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Trend of Giving by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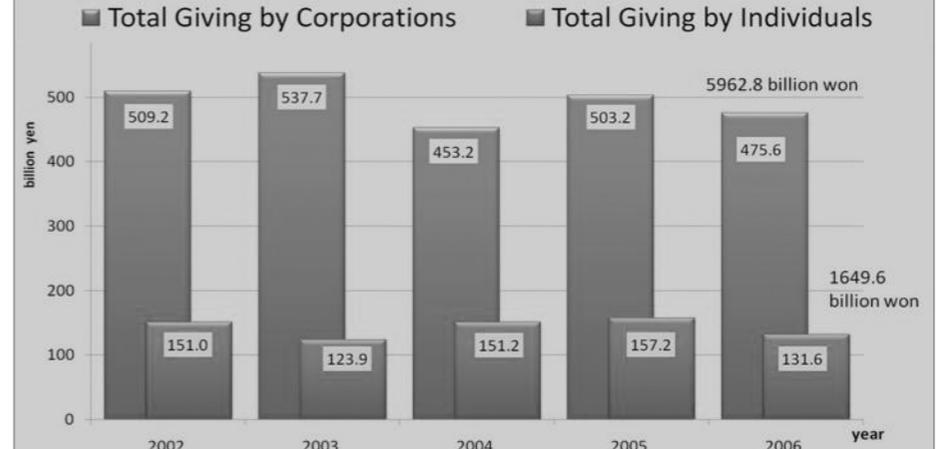


Individuals are now giving less [922yen(=11,558won) in 2007]



Source (population): Statistical Survey Department,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al GDP):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 of households): The Basic Resident Reg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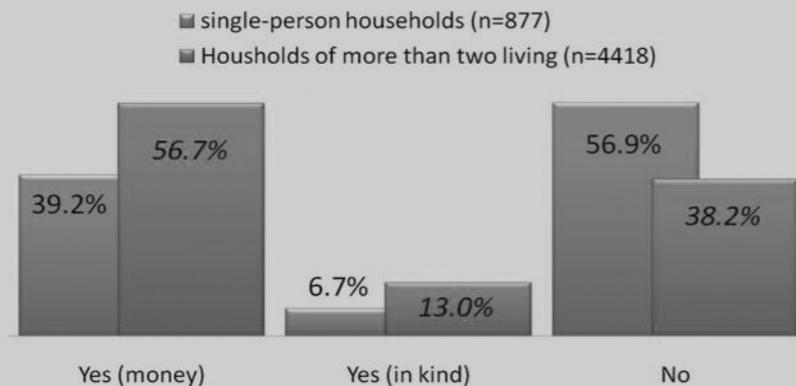
Corporations are likely to give more than individuals (about 3.6 times)



Source (Giving by corporation): regional taxation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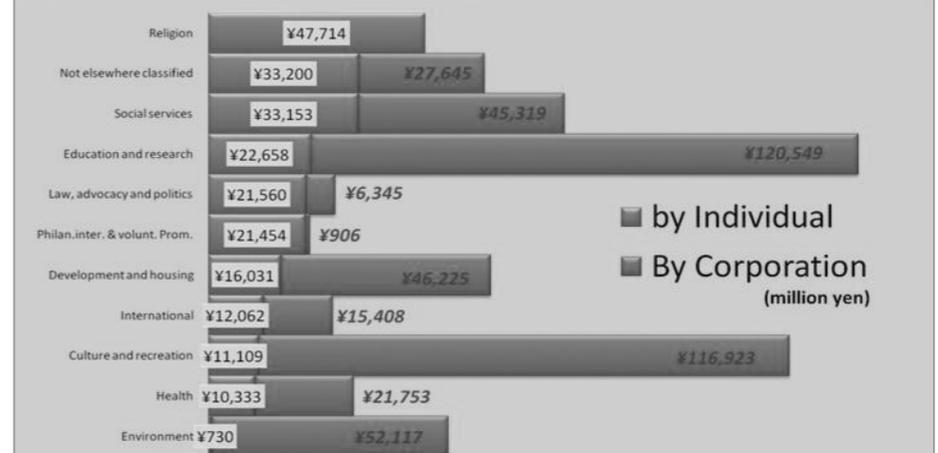
Households of more than two livings are likely to donate more as compar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



Sourc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Individuals donate money to religious organizations whereas corporations donate money to education and research



ICNP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Philan.inter. & volunt. Prom.: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Source: Okuyama, N (2007) "Overall picture of giving in Japan", in The Japanese Nonprofit Almanac, Yamauchi, N, Tanaka, T, and Kawai, K (eds.), pp.11-20.

Motivation for giving-A routine work?

Why did you give last year? [multiple answers]

Giving is my routine work	45.2%
Their mission was empathetic	34.9%
I was asked	31.7%
They seems to be trustworthy	14.9%
I wanted to help others	14.8%

Source : The Central Community Chest of Japan's National Office (2006)

7

Why Japanese people give little? - Three feasible reasons-

[1] Christian is only 2% of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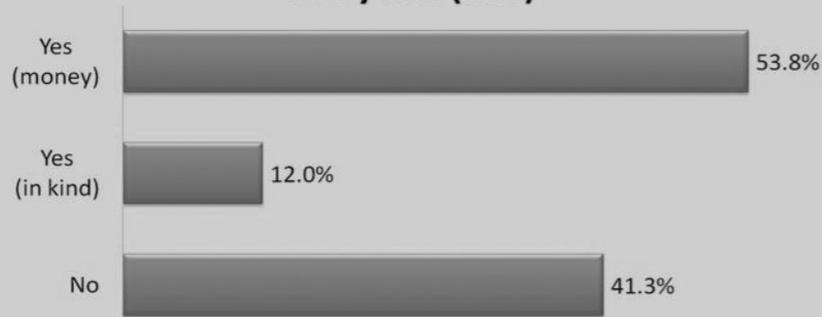
**[2] Income redistribution is not our job
but the Japanese government's job!**

[3] Tax benefit for givers is insignificant

9

About 66% of people have made charitable donations!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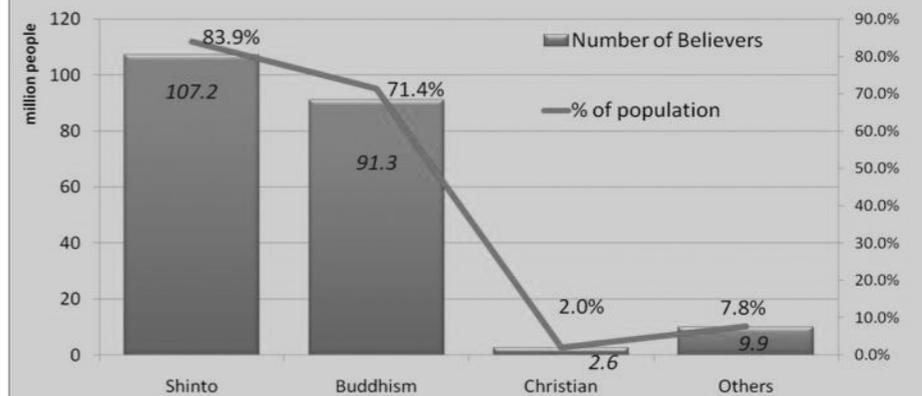


Sourc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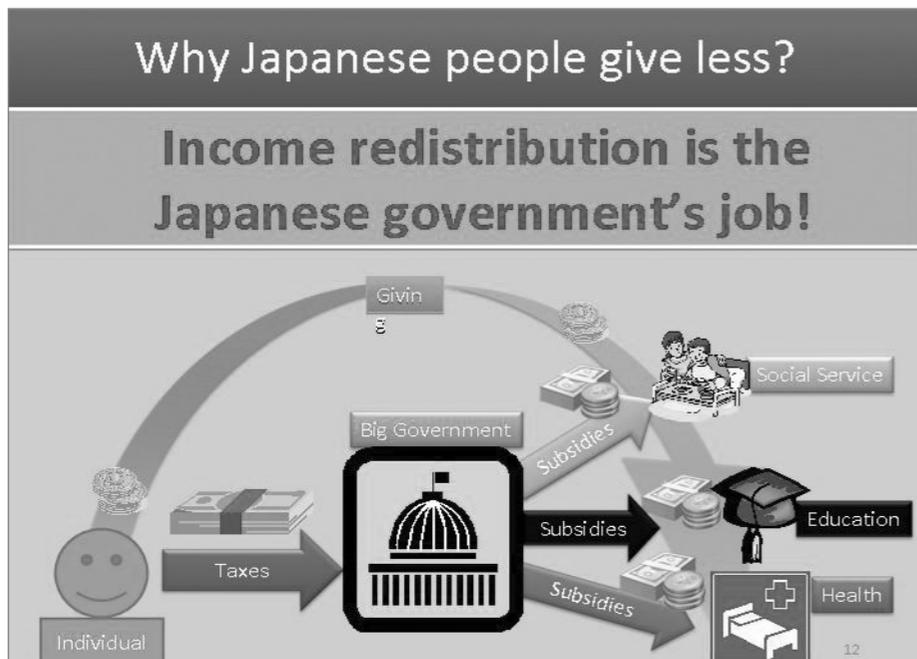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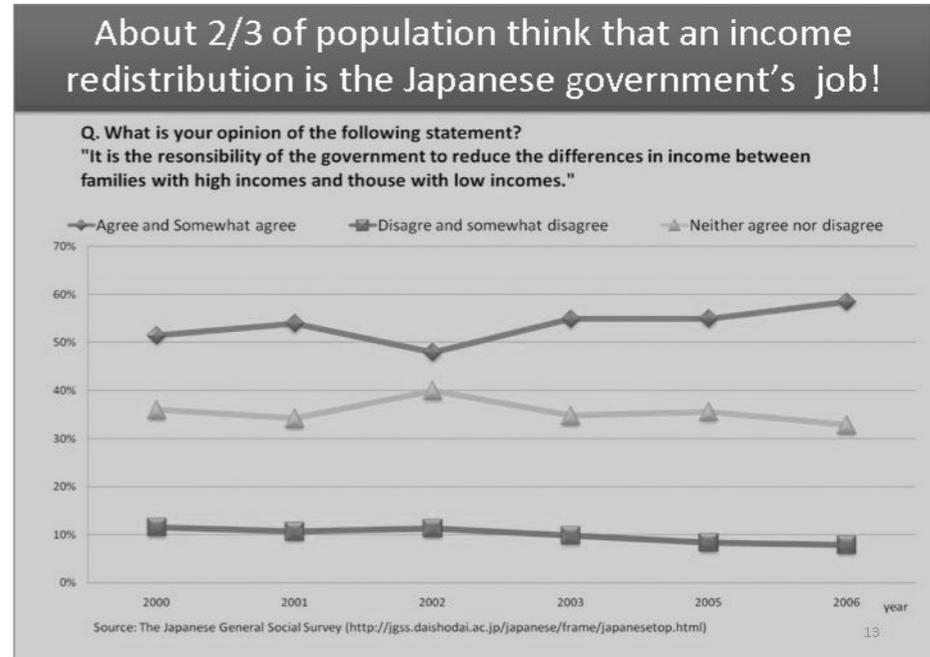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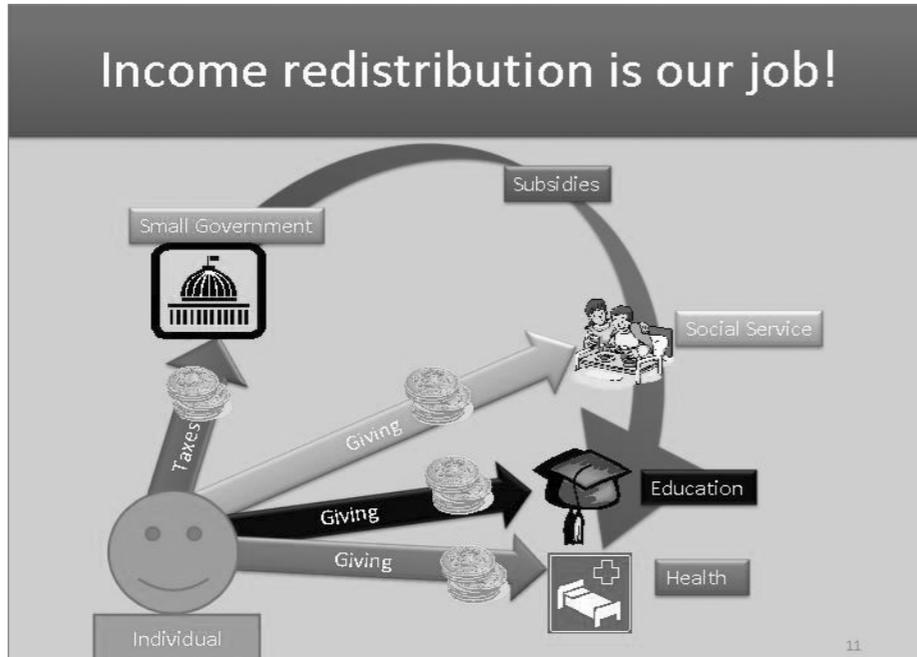
Christians are only 2% of the Japanese population

Christians are more likely to think that income redistribution is our job, but there are few Christians in Japan!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10



Tax benefit for individual givers is in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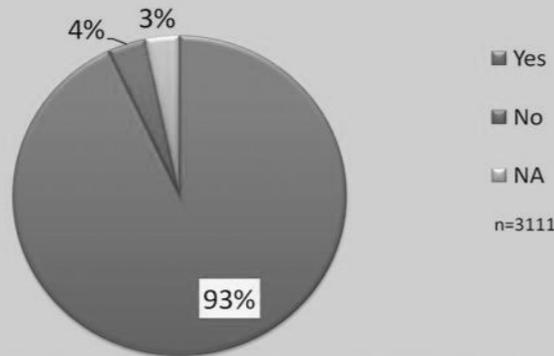
The amount of tax deduction = $\min(40\% \text{ of wage income, the amount of donating money})$

-5000yen

- This tax system does not attract tax payers to donate large amounts of money.
- Most charitable donations in Japan are in the form of small contributions collected on the street (No tax benefit).
- Unlike the US case, Price of giving $\neq (1 - \text{marginal tax rate})$

Only 3.7% of the Japanese people claimed a tax deduction!

Q. Did you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 charitable donations?



Source: Th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15

What factors affect the Japanese people's decision to give? —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for giving and volunteering

$$\begin{cases} GIVE^* = \gamma_1 VOLR^* + \beta_1' X_1 + \varepsilon_1, \\ VOLR^* = \beta_2' X_2 + \varepsilon_2, \end{cases}$$

$$[\varepsilon_1, \varepsilon_2] \sim \text{bivariate normal}[0, 0, 1, 1, \rho], \quad -1 < \rho < 1$$

where $VOLR = 1$ if $VOLR^* > 0$, 0 otherwise

$GIVE = 1$ if $GIVE^* > 0$, 0 otherwise

For more detail about my econometric model of giving and volunteering, please download a full paper (written in English) at <http://fukuoka.cool.ne.jp/yoshiho/GIVEVOLR.pdf>

17

It is not true that the rich is more likely to donate the poor!

Q. Have you made charitable donations last year?



Source: The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 (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16

A Data Set: The JGSS 2005

- (a) Sample Area : Nationwide
- (b) Sample population : men and women 20-89 years of age living in Japan
- (c) Sample size : 4,500
- (d) Sampling method : Two-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stratified by regional block and population size
- (e) Number of survey points : 307
- (f) Number of samples at each survey point : 15
- (g) Number of respondents contacted: 4,500
- (h) Number of valid responses: 2,023
- (i) Number of no responses or invalid responses: 2,477
- (j) Response rate: 50.5%

The data is provided by the 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2005. The GSS served as a model for the JGSS. The General Social Survey (GSS) is conduct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We also hav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social survey known as the 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s).

18

Variables affecting people's decision to giv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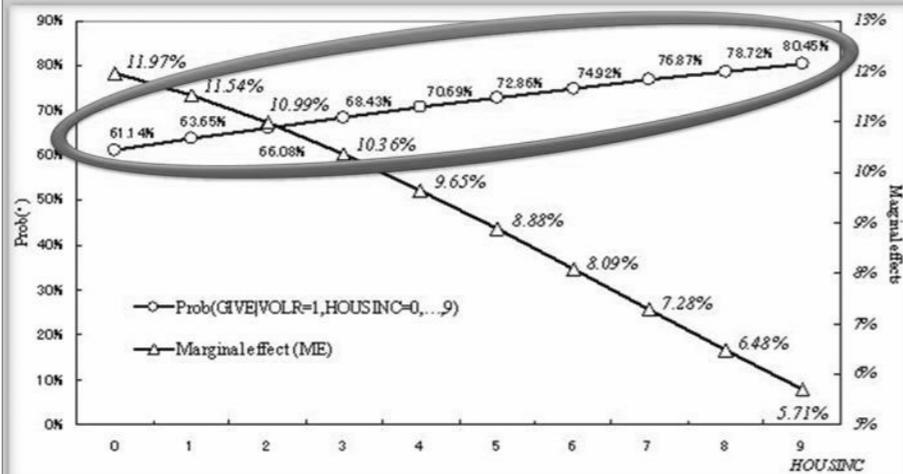
☑ Persons of faith are more likely to give.

☑ Persons who think governm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education of children are less likely to give.

☑ A person who think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families with high incomes and those with low incomes is less likely to g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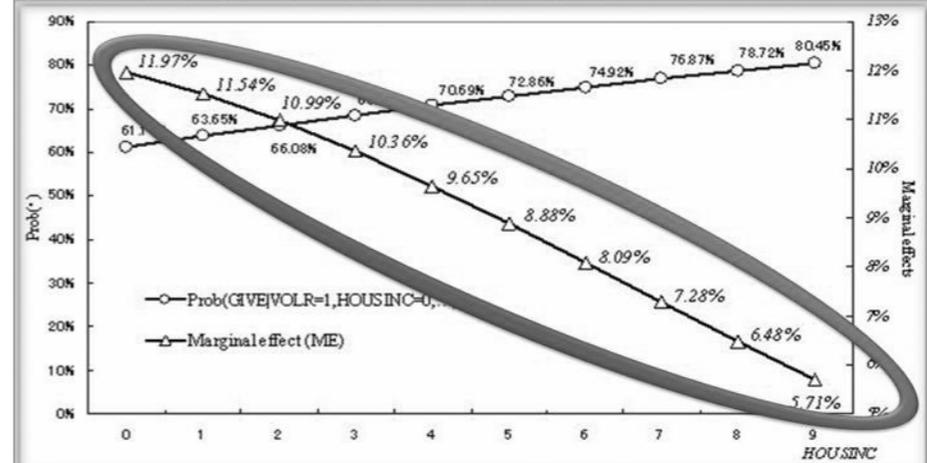
23

☑ A person with high household income is more likely to give then a person with low househol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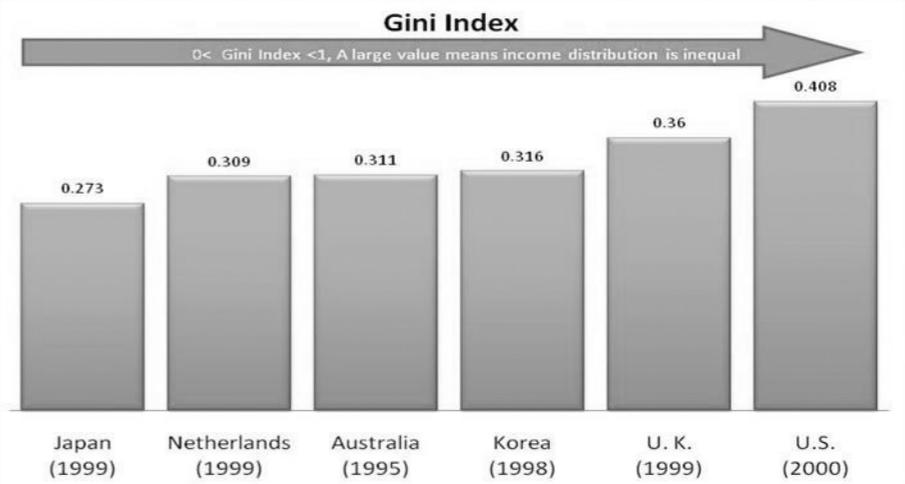
24

☑ Poor persons who become volunteers are more likely to also become givers than rich persons who become volunteer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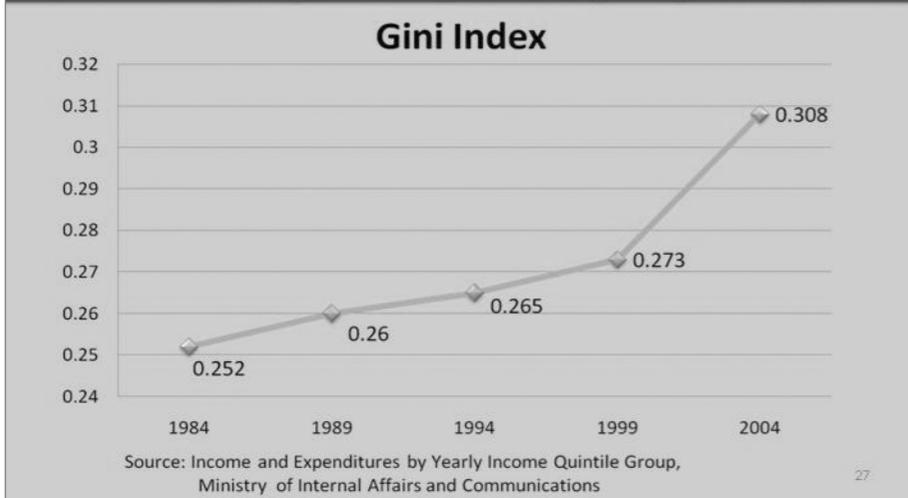
Gini Index is very low in Japan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is working well?



Source: Human Development indicator 2007/200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come and Expenditures by Yearly Income Quintile Group,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6

Gini Index in Japan is getting worse-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 though tax system might be now collapsing



Giving in the Netherlands

Theo Schuyt

Concluding Remarks Some Policy Implications

✓ If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 through donating money to nonprofits works much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an that through the Japanese tax system and a poor Japanese becoming a volunteer is more likely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coming a giver, then it is better off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for charitable donations and to encourage people's volunteer activities, thereby expanding the nonprofit sector.

Giving in the Netherlands

Theo Schuyt

Professor of Philanthropic Studies

VU University, Amsterdam

Giving Netherlands



Giving in the Netherlands
Prof.dr. Theo Schuyt
VU University Amsterdam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Seoul December 3, 2008

VU University amsterdam
De Boelelaan 1081
1081 HV Amsterdam
The Netherlands

FSW/department of Philanthropy
www.giving.nl
gin@fsw.vu.nl

Content

1. Figures of household giving in the Netherlands
2. Recipient organizations
3. Why do people give?
4. Culture of giving: stewardship and Protestant Ethics
5. Philanthropy scale
6. Total giving in the Netherlands
7. Current issues related to giving

December 3, 200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otal amount of € 1.8 billion in 2005 given by Dutch households

€ x million	2005	2003	2001	1999	1997	1995
Households	1,854	1,899	1,788	1,414	1,121	1,419

About 0.35 % of GDP in 2005

December 3, 2008

3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Causes to which are donated in 2005

€ x million	Money and goods	In %
Religion	704	38
Health	234	13
International aid	439	24
Environment/ nature/ animals	158	9
Education/ research	33	2
Culture	31	2
Sports/ recreation	29	2
Public and social benefit	166	9
Other (not specified)	61	3
Total	1.854	100

December 3, 2008

5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Average amount of household giving

- Households donate an average of € 310 in 2005
- There is an increase in giving from 1997 till 2003. Since 2003 the household donation behavior seems to stabilize.

December 3, 2008

4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Why people give?

- Literature survey conducted by Bekkers and Wiepking identified eight mechanisms as the most important forces that drive giving:
- Awareness of need
 - Solicitation
 - Costs and benefits
 - Altruism
 - Reputation
 - Psychological benefits
 - Values
 - Efficacy
- (Bekkers and Wiepking 2007)

December 3, 2008

6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Why people give?

Results of Survey Giving in the Netherlands (GIN) 2007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giving by households:

1. Religious people, frequently attending Service
2. Higher education
3. Higher income
4. Higher age
5. Living in smaller communities
6. Having children

December 3, 2008

7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Unique culture of giving: The Protestant Ethic and Stewardship in The Netherlands

The philanthropic goals be categorized under three main functions that enable society to survive:

- Social functions
 - Socialization: education, human services, public benefit, international aid
- Intergenerational functions
 - Healthcare: health and medical research
 - Culture: arts, culture and humanities, religion, sport
- Ecological functions
 - Environment, wildlife

December 3, 2008

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he philanthropy scale aims to measure the attitude of individuals to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and readiness to act (by contributing time and /or money) in the interest of the social and ecological well-being of socie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December 3, 2008

9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he Philanthropy Scale

Response categories:

1. Disagree completely
2. Disagree
3. Neither disagree nor agree
4. Agree
5. Agree completely

December 3, 2008

10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he Philanthropy Scale

1. I don't feel familiar with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2. It is hard for me to support causes I do not benefit from
3. Society is in danger because people nowadays are less concerned about each other
4. The global warming issue is over-exaggerated
5. The world needs responsible citizens

December 3, 2008

11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he Philanthropy Scale

6. I often think: tomorrow can take care of itself
7. Charity and public benef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not by citizens and business corporations*
8. People are part of the community
9. We have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for the next generation
10. I don't feel responsible for society's well-being

* Agreeing with the statement indicates a lack of a philanthropic attitude

December 3, 2008

12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Total giving in the Netherlands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philanthropic contributions:

- Individuals / households
- Bequests
- Foundations
- Businesses
- Good causes lotteries

December 3, 2008

13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Sources of contribution in 2005

Households (money and goods)	1,854 million	42%
Bequests	182 million	4%
Foundations: Fundraising foundations	159 million	4%
Endowed foundations	272 million	6%
Corporations (gifts and sponsoring)	1,513 million	35%
Good causes lotteries	396 million	9%
Total	4,376 million	100%

December 3, 2008

14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Recipient organizations in 2005

	X million euros	Percentage
Religion	773	18
International aid	742	17
Sports and recreation	686	16
Public/ social benefit	522	12
Health	477	11
Environment, nature en animals	356	8
Culture	326	7
Education and research	277	6
Other (not specified)	220	5
Total	4,376	100%

December 3, 2008

15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Current issues

- Growing philanthropic sector
- Professionalizing
- Ethnic Philanthropy
- Service-clubs

December 3, 2008

17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Giving as a percentag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2005	2003	2001	1999	1997	1995
	Amount x million euros					
Gross Domestic Product	506,000	454,000	429,000	372,000	322,000	288,000
Total estimated amount in donations	4,376	4,924	3,615	3,422	2,163	2,279
Donations as %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0.9%	1.1%	0.8%	0.9%	0.7%	0.8%

December 3, 2008

16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Current issues

- Philanthropy and Welfare State
- Pre-Welfare State
- Welfare State Paradigm
- Philanthropy and Power
- Path Dependency
- The Compact in UK

December 3, 2008

18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Giving in the UK

Richard Harrison



Giving in the UK

Richard Harrison
Director of Research and Insight
Charities Aid Foundation

Giving in the UK

Giving in the UK

Richard Harrison, CAF
December 2008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Today's agenda

- 1) Culture
- 2) Key measures
- 3) The future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1) Culture

- Brief history
- Culture of giving
- Perceptions
- Trends
- Motivations

CAF

Brief history of giving in the UK

- Before 16th century
 - wishes of rich rather than the poor
- 1601: Statute of Charitable Acts
- 19th Century
 - Industrial Revolution
 - Sense of 'moral obligation'
 - Already 700 charities in London
- 20th Century into 21st Century
 - From tins to virtual goats

Our culture of giving: Belief that we are a generous society

Country	Giving as % of GDP
USA	1.7
UK	0.8
Canada	0.7
Australia	0.7
South Africa	0.6
Rep of Ireland	0.5
Netherlands	0.5
Singapore	0.4
New Zealand	0.4
Turkey	0.3
Germany	0.3
France	0.2

CAF

Our culture of giving: evolution of new donors

- Proud history, and belief in another new dawn
 - Built on 15 years of economic success
 - New philanthropists / philanthrocapitalism
 - Echoing the industrialists age
 - Digital opportunities
 - Social networking
 - Engaging online methods
 - Slowly less reliant on cash
 - Synergy with 'green' issues: a 'new' donor (KPIs, efficiency)

CabinetOffice

CAF

Our culture of giving: charities evolving

- Charities
 - 160,000 charities
 - Revenue of over £25 billion
 - Fuelled by service provision
 - 50/50 income
 - Public benefit
- But more than charities ...
 - Social enterprises,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recreational facilities, Housing associations, Ethnic/race relations organisations etc etc

Government
 Non-government / Voluntary

CAF

The public has strong and increasing trust of charities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Charities

2008 Mean Scores

Doctors	7.5
Police	7.0
Charities	6.6
Social Services	5.9
Ordinary man/woman in the street	5.5
Banks	5.5
Private companies	4.9
Your local Council	4.8
MPs	4.1
Government Ministers	3.9
Newspapers	3.9

Base: All respondents - 2008 (1,008) Source: Ipsos MORI

CAF

Half of all individuals believe in charitable giving but half think it should be easier

Unsure of right way to give	31%
Charities should make giving more enjoyable	40%
Comfortable for online giving	43%
More info on charities to help decision	44%
Trust expenditure of money by charity	48%
Charities should try to make giving easier for the giver	48%
I think giving is something everyone should do	54%

CAF

Motivations for giving

...these have an emotional foundation

- Altruism (Simply the right thing to do morally)
- Faith-based (A sense of religious duty)
- Giving something back (Supporting a cause which has helped me / someone close to me)
- Personal gratification (Feeling great about doing the right thing)
- Family oriented (Desire to leave a legacy / family tradition)
- Business-oriented

CAF

Motivations for giving

- "We are incredibly lucky... there are a lot of people worse off, and I think we should do some things to redress the balance" -CAF Account Customer-
- "I do get the satisfaction of giving. I feel I am discharging my responsibilities to society and that gives you a certain degree of satisfaction" -CAF Account Customer-
- "Largely based on avarice I don't want the tax man to get a large part of what I have saved up, or any of it in fact. It's simply based on having enough and not needing any more" -CAF Account Customer-
- "I spend time juggling my finances and wondering where I can economise. When you have seen the poverty, it does affect your life. You think of economising and not wasting things" - CAF Account Customer -
- "I have no long term objectives nor strategic philanthropy objectives... It gives me a warm feeling and does not impinge on my lifestyle" - CAF Account Customer -

CAF

2) Key measures

- Amounts
- Regularity
- As % of GDP
- Recipients

CAF

The public gives nearly £10 billion, we do see variation

Figure 1. Estimated total annual amount donated, 2004/05 – 2006/07

Year	Adjusted for inflation	Not adjusted for inflation
2004/05	8.7	8.2
2005/06	9.7	9.4
2006/07	9.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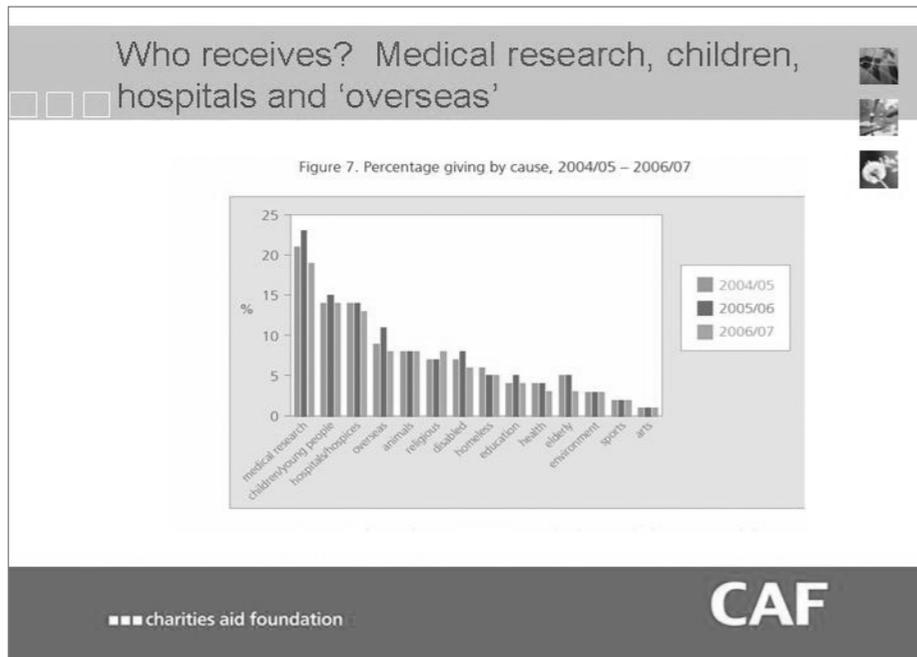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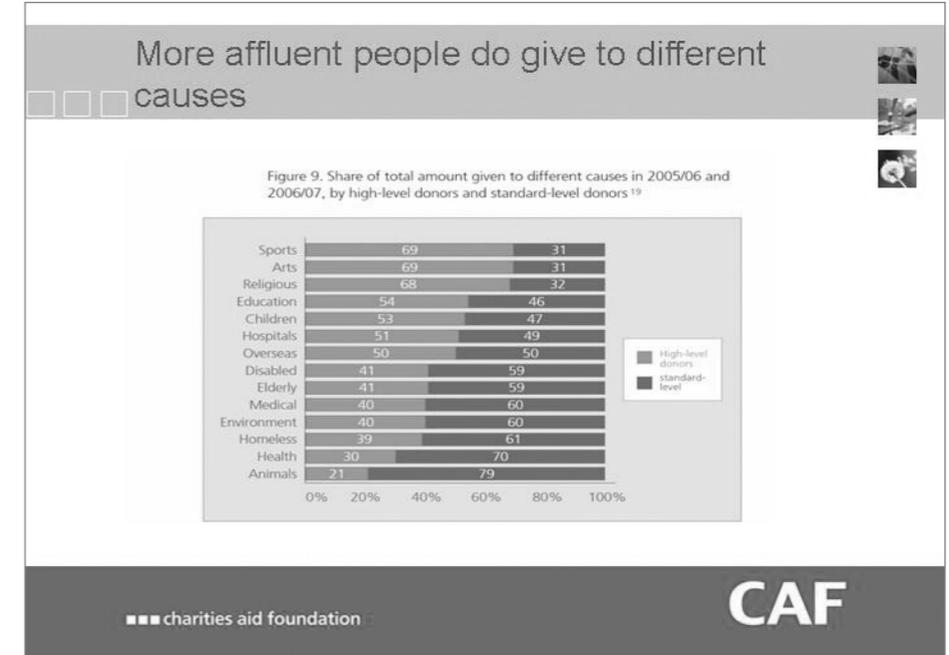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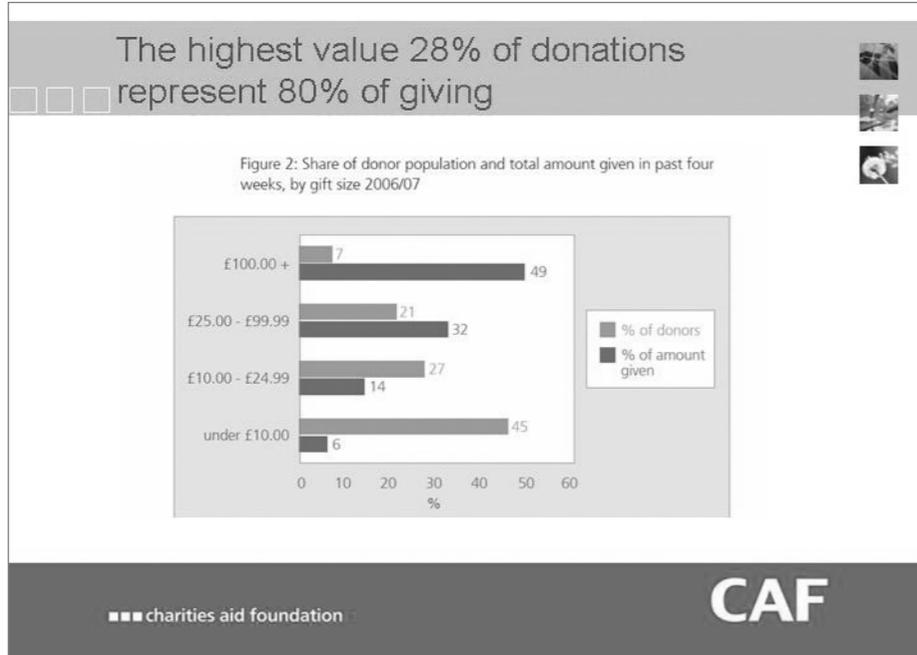
CAF

More women give, but big givers still usually male

Table 1. Changing giving patterns, by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group

	Proportion giving to charity, %		
	2004/05	2005/06	2006/07
Gender ¹¹			
Men	52	53	48
Women	62	60	59
Age Group			
16 – 24	44	43	41
25 – 44	58	62	56
45 – 64	57	60	59
65 +	51	53	52

CAF



3) The future

Recession and taxation
The rise of the Social Warrior?

CAF

The future: New types of giving

1. **New types of financing for charities.**
 - risk-based capital and quasi-equity
2. **More strategic and more engaged donors.**
3. **Targeting gaps in current services.**
 - Recognising that government resources are finite
4. **The rise of the social investor**
5. **Focus on impac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CAF

The future: And taxation

- Higher rate tax payers
 - And the new government
- Inheritance tax
 - Changes to have an effect
- Legacies
 - Optimism
 - Baby boomer values, lifetime legacies
 - Pessimism
 - Recessionary impact

C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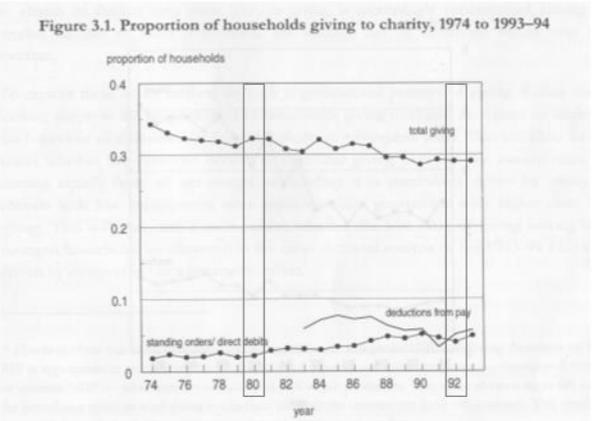
But maybe we don't have to panic ...



CAF

Giving during last recessions did not have such an impact

Figure 3.1. Proportion of households giving to charity, 1974 to 1993-94



CAF

Youth: always a reason for optimism

	Total	Age				
		18-24	25-34	35-44	45-54	55-64
Donors						
A Credit Card that gives 2% of spend to charity (Gift Aided)	47%	63%	58%	45%	48%	36%
A new user-friendly website designed to help you give to charity easily	38%	62%	46%	37%	35%	28%
A personal Online Bank Account where profits go to Charity of choice	38%	54%	46%	38%	38%	27%
Be Able to Donate using Text Messages	22%	58%	35%	23%	15%	7%
A personal Online Bank Account with personal telephone banking	20%	30%	30%	21%	17%	13%
A legacy service	19%	38%	20%	20%	18%	12%
Personal Trust Fund	13%	29%	16%	14%	12%	6%

■■■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Discussion

■■■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나눔의 지혜로 나아가는 지식 창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 전문 연구소로서, 한국 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 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 기부문화 확산의 토대 구축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부문화의 확산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를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을 개최 합니다

* 기부관련 연구의 활성화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부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하고 국내외 기부문화 연구자료들을 공유합니다

* 비영리 단체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비영리 단체의 사업 내실화

기부문화연구소는 아름다운재단을 포함, 비영리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 운영, 모금, 기부관련 세·법제, 재단 등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를 출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 기부문화 연구 :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의 기부현황 및 기부문화에 대해 연구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는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사회공헌 연구 :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기업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부관련 세제 및 법제 연구

기부문화연구소는 재단 및 기부와 관련한 법규, 기부문화 확산에 장애가 되는 세제 및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기부문화연구소는 매년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기부 동향 및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기부 문화 형성을 모색, 전략을 제시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기부문화연구소는 전문적인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의 생활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기부와 관련한 주제들을 이슈화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비영리단체 운영, 한국 상황에 맞는 모금 기법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 기부 및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출판 활동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단체 운영과 모금, 기부와 관련된 도서를 출판합니다. 이러한 출판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비영리단체 운영이 이루어지고 모금의 전문성, 과학성을 높입니다

* 기부관련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부문화 연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부 연구의 장, Giving Korea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매년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합니다. 기빙코리아는 일반 시민과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기부관련 연구조사의 결과와 최신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사회에 창의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기빙코리아에서 다루어지는 두 가지 주요 주제는 개인기부문화와 기업사회공헌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격년으로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한국인의 기부지수'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연구 조사합니다. 기부와 관련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이 연구조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조사의 결과는 매년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에서 발표됩니다. 기빙코리아 연구 자료는 영어로도 번역·출판되어 해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Special Thanks

한국 사회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부문화연구소가 Giving Korea 2008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을 지원해주신 김영진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신임 소장으로서 Giving Korea 2008의 초기 기획과 실무 과정 내내 노련하고 성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태규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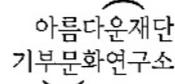
한국을 대표하는 기부지수인, 기빙인덱스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신 강철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정과 전문성에 더해 연구비까지 기부해주시는 교수님의 마음에 늘 격려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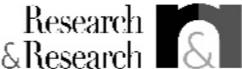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장장 7개월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검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빙인덱스 2008 결과를 얻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리서치앤리서치 김봉신 연구원님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변은지, 이종은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수고와 성실함으로 기빙인덱스가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절 중요한 한 때를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Giving Korea 2008과 함께 해준 재치 있고 유능한 국제협력연구팀 인턴들, 정세윤 군, 이형범 군, 김지혜 양, 박성환 군, 황대길 군, 김영실 양, 김상진 군, 정벼리 양, 김정현 군, 홍성필 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직은 '나눔'이라는 단어가 낯설던 2002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Giving Korea를 공동주최함으로써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지경을 넓히는 데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주신 유한김벌리와 기부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인기부 및 기업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협찬해주신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최 및 주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유한김벌리

주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협찬  Research & Research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8

발행일 2008년 12월 2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박상중
등록일 2006년 10월 25일 제300-2006-150호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 및 편집 아름다운재단 국제협력연구팀
주 소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전 화 02) 766-1004
전 송 02) 730-1243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김수영
인 쇄 해든디앤피 02) 2266-6372

ISBN : 978-89-958799-7-9 [94300]

ISSN : 1976-4510

값 10,000원